

연구보고 2010-01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서 문 희

공동연구자: 최 윤 경

신 윤 정

이 세 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영유아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확대 등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 투자가 증가하면서 영유아 양육 소요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원금 규모가 자녀 양육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 추진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한 기초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외국은 아동양육비용을 추정하여 이를 이혼 가정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비용, 사망 및 사고 보상금, 예비부모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아동수당 확대가 논의되면서 2008년에 영유아 양육비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산출되고 있지 않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가계 수입·지출 국가통계 생산이 주목적이므로 영유아 관련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아동연령별 지출을 조사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원의 1회 방문조사에 의한 것이며 대분류 항목을 적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는 국내 영유아가구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및 별도로 실시한 일일가계부 작성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요비용을 산출하였다. 영유아 지출 관련 항목을 세분화하고, 영유아 연령, 부모 취업 특성 및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여 영유아 양육 관련 정책 결정에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가 정부의 합리적 정책 추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 현장 관계자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약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내용

- ☐ 국내 영유아가구의 가계소비 자료를 수집하여 총 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요 비용을 산출하여 양육비 통계를 생산하고, 양육비용 관련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선행연구,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추정모형 등 관련 이론 등을 파악함.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을 고찰하고 각 추계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현실적인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에 대해 논의함.
 - 다양한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미국, 호주, 일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자 함.
 - 영유아 양육비용을 영유아가구 및 아동 단위로 아동특성, 소득수준, 모의 취업 등 부모 경제 사회적 특성별 차이를 반영하며 산출함. 특히 영유아 양육에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항목별 소요비용을 추정함.
 - 양육비 산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모색함.

나. 연구 방법

- ☐ 이론적 배경으로 자녀 양육비 추정방법을 검토하고, 미국, 호주, 일본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 사례와 그 활용성 등을 검토하였음. 또한 국내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 검토하였음.
- ☐ 통계청 200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분석하였음. 응답 가구수는 총 10,881 가구이며, 월 단위 자료의 규모는 총 85,197여개의 월로 구성되어 있음.

- 영유아 가구 소비지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약 25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 6월 한 달간 일일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여 분석하였음.
-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다양한 양육비용 추계 방법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미국, 호주, 일본의 국내 외 자녀 양육비 추계를 검토하였음.
-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차원에서의 자녀 양육비 산출이 필요함.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미국의 USDA, 호주의 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자녀 양육비 산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본도 2008년에 내각부가 아동수당 등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 추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양육비용 산출은 여러 가지 가정 하에 조건을 달아서 양육비 지출을 추정할 수밖에 없음. 동일한 방법으로도 특정 항목의 포함여부 및 작용 비율의 차이 등으로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주도 큰 영향을 줌.
 - 미국은 소비지출 중심으로 산출하지만, 일본의 양육비 조사는 주거비나 광열비 등을 제외하였고 비소비 지출인 예·적금과 보험료를 포함하였음. 호주의 경우도 Lee가 양육비에 의료비용과 교육비용을 포함시킨 반면에 Lovering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또한 분석 대상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특정 요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추계 과정에 있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음.

Ⅲ.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통계청의 200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양육비와 가구소득과 가계지출 대비 비율을 산출하고자 하였음.
- － 가구 단위로 영유아수별, 모의 취업여부별, 소득계층별로 산출하고, 한 자녀 가구만 선별하여 아동 연령별로 산출하였음.

가. 가구 소득 및 지출

-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 영유아 자녀가 많은 가정이 적은 가정에 비해 소득은 낮고 지출 수준은 높아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증가함. 특히 영유아가 3인 2세대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약 94%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다자녀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영유아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 기타상품 및 서비스 항목이 증가하는데, 특히 교육비가 크게 증가함.
- － 영유아 연령별로 보면 0세 때는 보육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상품서비스, 보건 관련 지출이 많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영아기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유아기에 들어 급증하여 만5세 자녀 가구에서는 교육비가 소비지출 대비 17.1%로 높음.
- － 맞벌이 영유아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영유아가 3인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평균보다 10%정도 낮음.
- － 영유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1인당 평균 8만5천원 정도씩 교육비가 증가하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2인 일 때는 평균의 1.4배를 더 지출하며, 3인일 때는 일반가구의 32%로 수준으로 떨어짐. 이는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의 낮은 소득으로 교육비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양육비 추정

-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추정한 영유아 양육비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영유아 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인 경우 66만원, 3인인 경우 53만원으로 산출되어, 외국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서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음. 그러나 총 양육비와 소득 및 지출대비 양육비 비중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났음. 이는 1인 39.8%, 2인 55.5% 3인 69.0%임.

- 이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투입되는 양육비용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줄어드나 그 외 자녀공동 비용과 가구공동 비용은 자녀수·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실제 투입비용과 양육비 비중 면에서 늘어나므로, 다자녀가구 대상의 지원액에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함.
- 맞벌이·외벌이 가구와 비교한 결과, 맞벌이가정의 경우 영유아 자녀수별 1인당 양육비가 1인 100만원, 2인 80만원, 3인 74만원이고, 외벌이 가구는 자녀1인당 양육비가 각각 77만원, 62만원, 52만원으로 차이를 보임. 그러나 양육비의 소비 지출 대비 비율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가 별 차이가 없음. 즉, 소득 대비 일정 부분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맞벌이 자녀 비용자원의 배경을 제공함.
- 소득계층별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총 양육비가 1인 약 58만원, 2인 약 97만원, 3인 111~14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잠정 최저 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의 수준을 나타냈음.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줄지만, 가계지출 대비 양육비 비중은 일관되게 1인 약 40%에서 3인 약 70%로 나타났음.
- 한 자녀 가정의 자녀 연령별 양육비는 지출대비 비율은 평균 40%로, 대체로 연령이 많아지면서 비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3세의 양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IV.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 전국 도시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247가구가 1개월 동안 작성한 가계부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음.
- ☐ 도시 중산층 중심 양육비 산출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이 증가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나타냈음. 양육비용은 자녀가 1인인 경우 한 자녀 양부모가정 103만9천원, 자녀 2인 가구 148만6천원, 3인인 경우 165만9천원으로 나타났음.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9.5%, 50.0%, 57.5%임.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여 한 자녀 3인가구는 차이가 없고 두 자녀 4인가구는 가계동향조사가 5.5% 높고, 3자녀 5인가구는 11.5%가 높았음.
- 자녀 고유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 양부모가정 58만4천원, 자녀 2인 가구 76만7천원, 3인인 경우 85만2천원임.
 - 식료품 및 음료는 0세에 6만8천원이고 이후부터는 2만원 정도로 감소하고 그 대신 공동 비용이 증가함. 의류 및 신발은 평균 4만원 이상이고, 가정용품 서비스 비용은 0세에 1만3천원이 지출되며 그 이후는 감소함. 보건의료도 0세에 5만3천원이 들어가고, 이후 크게 감소함. 오락 문화비나 교육비는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함. 기타 상품 서비스비는 0세가 48만3천원 수준이고 연령이 낮아지면서 감소함.
-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으나 유아기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음.
 -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4세의 양육비 지출이 커서, 0세~3세보다 4세~6세에서 30만원 정도 더 양육비에 지출함.
-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양육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음.
 -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비교해 보면, 두 자녀 가정까지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21~29만원 정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는 한 자녀 가구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은 관계로,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적었음.
- 저소득층의 양육비 지출이 최저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최소 30만원 이상 수준은 되어야 함을 나타냈음.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의 경우 양육비는 자녀가 1인인 양부모가정 71만6천원, 자녀 2인 가구 99만4천원, 3인인 경우 151만5천원임. 영유아가 1명 있는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도 77만5천원이고 고유 항목 지출이 40만7천원임.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하는데,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드나 가계지출 대비 양육비 비중은 일관되게 1인 약 40%에서 3인 약 60%로 나타남. 그러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소득 대비 비중 감소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 항목별 양육비는 가구원 수나 아동 연령에 따라 탄력성을 보임.
 - 양부모 한 자녀 가구는 양육비 103만9천원 중 34만6천원을 기타상품 서비스에 지출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은 교육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 두 자녀 가정은 총 양육비 148만6천원 중 31만6천원을, 세 자녀 가정은 165만9천원 중 57만3천원을 교육비에 지출함.
 - 연령별로도 교육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타 상품 서비스 지출은 0세아가 가장 많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함.
 - 젓병 및 이유식기, 예방접종, 아기기저귀는 0~1세때의 지출이 가장 많음.
 - 서적이나 교구교재비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함. 또한 혈연에 의한 보육료는 0세가, 보육도우미는 1세가, 보육시설 이용료는 2세와 5세가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V. 정책 제언

- ☐ 영유아 양육비용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였음. 그 결과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 정책방안을 언급하고자 함.
- ☐ 단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및 수당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함.
 -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맞벌이 지원, 예방접종 등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중산층 취업모는 대부분 정책대상에서 소외됨. 전액지원이라고 하지만 부모들의 특히 유아의 경우 단가 자체가 낮으며, 추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지원을 받는 부모 조차도 체감도는 매우 낮음.
 - 맞벌이 지원 강화가 필요함.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양육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음.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21~29만원 정도 많이 지출함.

-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정부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만, 적용되는 항목이나 제공 기관이 제한되어 있고, 보건소는 취업모가 이용하기 쉽지 않음.

－ 취약계층 지원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함. 특히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5만원에 불과함.

□ 장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보편적 현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아동수당은 아동연령, 지원금액, 출생순위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최저 수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양육비를 자녀 2인 가정을 기준으로 1인 비용을 추정하여도 58만원 수준임. 이를 고려하면 15~2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으나 우선 10만원부터 실시함.

－ 이러한 제도는 부모의 비용부담 체감도와 조기투자의 편익을 감안하여 영아부터 점차 확대 적용함.

－ 출생순위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함. 자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첫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모들의 부담과 민감성을 고려하여야 함. 한 자녀 부모는 추가 출산 결정으로 출산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상이기도 함.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으나 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의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을 고려하여 자녀수를 감안함.

－ 제도 도입 시 서비스 비용 지원과는 분리하여야 하고, 기존 양육수당이나 조세 지원은 재검토를 요함.

□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자녀 양육비 산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본 정부도 저출산 대책인 아동수당 확대를 배경으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였음.

－ 우리나라도 향후 미혼부 양육비 청구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근거가 필요함.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3
4. 용어 정의	9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0
1. 자녀 양육비용 추정 방법	10
2. 외국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18
3. 선행연구 검토	48
4. 정책 시사점	52
III.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	54
1. 분석 방법	54
2.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56
3. 영유아 양육비 추정	71
4. 요약 및 시사점	82
IV.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86
1. 조사 방법 및 대상	86
2.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96
3. 영유아 양육비 추정	104
4. 요약 및 시사점	141
V.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 제언	145
1.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과 문제	145
2.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제언	152
3. 맺는말	159
참고문헌	161
부 록	165

표 차 례

〈표 I-3- 1〉	일일가계부 작성 양식	5
〈표 I-3- 2〉	가계 소비지출 항목 분류	6
〈표 I-3- 3〉	사전 기초조사 내용	7
〈표 I-3- 4〉	전체 및 기초조사 참여 가구	8
〈표 II-2- 1〉	양육비 및 총 지출 대비 비중 추정(Betson, 1990)	20
〈표 II-2- 2〉	미국 소비지출조사 주요 항목	22
〈표 II-2- 3〉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을 이용한 미국 자녀 양육비 지출 비중 추계 결과	30
〈표 II-2- 4〉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1999)	31
〈표 II-2- 5〉	호주 자녀 1인당 주당 양육비용 추계(1993~1994)	35
〈표 II-2- 6〉	호주 자녀수에 따른 자녀 양육 한계 비용(1993~1994)	36
〈표 II-2- 7〉	일본 인터넷 육아비용조사 항목	37
〈표 II-2- 8〉	월 양육비용 항목별 순위-중분류	39
〈표 II-2- 9〉	자녀연령별 월 양육비용 및 총양육비대비 비율	41
〈표 II-2-10〉	연령별 양육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부담률	42
〈표 II-2-11〉	학교외 활동 및 교육 월비용 추이	43
〈표 II-2-12〉	연 가구소득별 영유아 월 양육비용	44
〈표 II-2-13〉	소득수준별 영유아 양육비 대비 항목별 비율	45
〈표 II-2-14〉	자녀연령별 맞벌이·외벌이 가구유형 분포	46
〈표 II-2-15〉	맞벌이·외벌이 및 고용형태별 월양육비 지출	47
〈표 II-2-16〉	영유아 맞벌이·외벌이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	47
〈표 III-1- 1〉	영유아 및 성인 소비지출 항목	55
〈표 III-2- 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1세대 2인 및 2세대 3인 가구	56
〈표 III-2- 2〉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2세대 4인 가구	57
〈표 III-2- 3〉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2세대 5인 가구	57
〈표 III-2- 4〉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59
〈표 III-2- 5〉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60
〈표 III-2- 6〉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61

〈표 III-2- 7〉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62
〈표 III-2- 8〉	일반 및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비교	63
〈표 III-2- 9〉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65
〈표 III-2-10〉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66
〈표 III-2-11〉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소득과 지출	67
〈표 III-2-12〉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67
〈표 III-2-13〉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	68
〈표 III-2-14〉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소득과 지출	70
〈표 III-2-15〉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70
〈표 III-2-16〉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71
〈표 III-3- 1〉	2세대 가구 영유아수별 양육비	72
〈표 III-3- 2〉	2세대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수별 양육비	73
〈표 III-3- 3〉	2세대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수별 양육비	74
〈표 III-3- 4〉	소득계층별 영유아수별 양육비	75
〈표 III-3- 5〉	한 자녀 3인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78
〈표 III-3- 6〉	맞벌이 한 자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79
〈표 III-3- 7〉	소득계층별 한 자녀 3인 가구 양육비	80
〈표 IV-1- 1〉	영유아 고유 지출 항목	87
〈표 IV-1- 2〉	현재 살고 있는 가구원 수	88
〈표 IV-1- 3〉	자녀 가구원 수 분포	88
〈표 IV-1- 4〉	가족유형	88
〈표 IV-1- 5〉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89
〈표 IV-1- 6〉	월 평균 가구 소득액	90
〈표 IV-1-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90
〈표 IV-1- 8〉	부모의 평균 연령	91
〈표 IV-1- 9〉	부모의 교육정도	91
〈표 IV-1-10〉	부모의 직업 및 종사상 위치	92
〈표 IV-1-11〉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93
〈표 IV-1-12〉	미취학 자녀의 건강	93
〈표 IV-1-13〉	미취학 자녀가 다니는 기관	94
〈표 IV-1-14〉	미취학 자녀가 양육자	94

〈표 IV-1-15〉 정부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 여부	94
〈표 IV-1-16〉 정부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월)	95
〈표 IV-1-17〉 가족 내 경조사 등의 큰 행사 여부(2010년 6월)	95
〈표 IV-1-18〉 비소비 지출 횟수	96
〈표 IV-1-19〉 비소비 지출액	96
〈표 IV-2- 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97
〈표 IV-2- 2〉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금액 및 구성비율	98
〈표 IV-2- 3〉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99
〈표 IV-2- 4〉 맞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100
〈표 IV-2- 5〉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101
〈표 IV-2- 6〉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101
〈표 IV-2- 7〉 영유아수별 지출	102
〈표 IV-3- 1〉 가구규모별 양육비	104
〈표 IV-3- 2〉 항목별 가구규모별 양육비 지출 평균	105
〈표 IV-3- 3〉 항목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과 항목별 양육비 구성 비율	106
〈표 IV-3- 4〉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가구규모별 양육비	108
〈표 IV-3- 5〉 외벌이 가구 항목별 가구규모별 양육비 지출 평균	109
〈표 IV-3- 6〉 외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 및 구성 비율	110
〈표 IV-3- 7〉 맞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양육비 지출 평균	111
〈표 IV-3- 8〉 맞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	111
〈표 IV-3- 9〉 소득계층별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113
〈표 IV-3-10〉 가구규모별 양육비	114
〈표 IV-3-11〉 연령별 양육비: 0-6세	115
〈표 IV-3-12〉 연령별 양육비 항목별 지출액: 0-6세	116
〈표 IV-3-13〉 연령별 자녀고유 및 가족공동 양육비 항목별 지출액: 0-6세	117
〈표 IV-3-14〉 연령별 자녀고유 항목별 지출: 0-6세	119
〈표 IV-3-15〉 지출 아동 연령별 자녀고유 항목별 지출 0-6세	120
〈표 IV-3-16〉 자녀수 및 모 취업여부별 0세아 양육비	121
〈표 IV-3-17〉 소득수준별 0세아 양육비	122

〈표 IV-3-18〉 자녀수별 1세아 양육비	124
〈표 IV-3-19〉 가구소득수준별 1세아 양육비	125
〈표 IV-3-20〉 자녀수별 2세아 양육비	126
〈표 IV-3-21〉 가구소득 수준별 2세아 양육비	127
〈표 IV-3-22〉 자녀수별 3세아 양육비	128
〈표 IV-3-23〉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	129
〈표 IV-3-24〉 자녀수별 4세아 양육비	130
〈표 IV-3-25〉 가구소득수준별 4세아 양육비	131
〈표 IV-3-26〉 자녀수 및 모 취업여부별 5세 양육비	132
〈표 IV-3-27〉 가구 소득수준별 5세 양육비	133
〈표 IV-3-28〉 자녀수별 6세 양육비	134
〈표 IV-3-29〉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	135
〈표 IV-3-30〉 한 자녀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36
〈표 IV-3-31〉 한 자녀 가구 연령별 양육비 세부 항목별 지출	138
〈표 IV-3-32〉 한 자녀 맞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39
〈표 IV-3-33〉 한 자녀 외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40
〈표 V-1- 1〉 중앙정부의 자녀양육 수당 제도: 2011	152

그 립 차 례

[그림 I-3- 1]	가계부 조사 표본 추출 작업	7
[그림 II-2- 1]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 및 자녀 연령별(2008)	26
[그림 II-2- 2]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항목별 비중(2008)	27
[그림 II-2- 3]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항목별 비중: 자녀 연령별(2008)	28
[그림 II-2- 4]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비교 (1999)	32
[그림 II-2- 5]	호주 연령 및 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1993~1994)	35
[그림 II-2- 6]	영유아기 품목별 월양육비 비율	40
[그림 II-2- 7]	연령별 월 양육비용	41
[그림 II-2- 8]	연령별·품목별 소득대비 양육비 부담률	42
[그림 II-2- 9]	가구소득수준별 영유아기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44
[그림 II-2-10]	맞벌이· 외벌이 가구유형별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46
[그림 III-2- 1]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59
[그림 III-2- 2]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60
[그림 III-2- 3]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62
[그림 III-2- 4]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63
[그림 III-2- 5]	일반 및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비교	64
[그림 III-2- 6]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65
[그림 III-2- 7]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68
[그림 III-2- 8]	만 5세 가구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	69
[그림 III-3- 1]	가구유형별 자녀수별 자녀1인당 및 총 양육비	74
[그림 III-3- 2]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경상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75
[그림 III-3- 3]	한 자녀 가구 맞벌이여부별 연령별 양육비 추이	79
[그림 III-3- 4]	소득수준별 자녀연령에 따른 양육비 추이	82
[그림 IV-2- 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97
[그림 IV-2- 2]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99
[그림 IV-3- 1]	가구규모별 양육비	105
[그림 IV-3- 2]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가구규모별 양육비	108
[그림 IV-3- 3]	연령별 양육비: 0-6세	116

[그림 IV-3- 4]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0세아 양육비	122
[그림 IV-3- 5]	소득수준별 0세아 양육비	123
[그림 IV-3- 6]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1세아 양육비	124
[그림 IV-3- 7]	가구소득수준별 1세아 양육비	125
[그림 IV-3- 8]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2세아 양육비	126
[그림 IV-3- 9]	가구소득 수준별 2세아 양육비	127
[그림 IV-3-10]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3세아 양육비	128
[그림 IV-3-11]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	129
[그림 IV-3-12]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4세아 양육비	130
[그림 IV-3-13]	가구소득수준별 4세아 양육비	131
[그림 IV-3-14]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5세아 양육비	132
[그림 IV-3-15]	가구 소득수준별 5세 양육비	133
[그림 IV-3-16]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6세아 양육비	134
[그림 IV-3-17]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	135
[그림 IV-3-18]	한 자녀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37
[그림 IV-3-19]	한 자녀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과도한 자녀 양육비용이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크게 증가하였고 제한적이거나 양육수당도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은 장애 아동 수당,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등 주로 취약 계층 혹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 부처 차원의 정책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 수당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향후 자녀 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 투자가 증가하면서 영유아 양육 소요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기관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제도의 지원 액수의 적절성이 논의되고 있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순수 보육료나 교육비 이외에 부모 조기교육 욕구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등 유아 사교육비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산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혼의 증가로 이혼 부모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그 수준 결정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행 법률상에서는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놓고 있지 않다. 민법 제 837조에서는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1조에서도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비용 지원 등 영유아 양육관련 비용을 지원하

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추정하는 가계소비 관련 자료나 자녀 양육 비용에 관한 자료는 전반적인 국가통계 생산이 주목적이고 분석 단위가 전체가구이며 영유아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자료 수집이나 방법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영유아 관련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자료에 기초하여 사교육비를 발표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경우는 제외되며, 비용 산출 시에도 유아교육비 이외 보육료 등을 모두 사교육비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자녀 양육비 지출의 일부로 교육 비용 특히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산출하고 있다.¹⁾ 그러나 이 조사도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출산력 및 가족실태조사 시에 아동연령별로 소요 비용을 조사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원의 1회 방문조사에 의한 것이며 분류항목이 대분류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한계점이다.

학계의 관련 연구도 많지 않아서, 허경옥(1997, 2007)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동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총 양육비를 추정한 바 있고, 신윤정(2007)이 외국의 추계방법을 소개하고 미국과 호주의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외 일부 소규모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양육비 지원금 규모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한 기초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도 실제로 취약계층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기초한 추계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욕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추계하는 자료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외국의 경우 아동양육비용을 추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각종 양육비 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 이래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 아동에 대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매년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는 이혼 가정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비용, 사망 및 사고 보상금, 예비부모교육 등에 기

1) 통계청은 2009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초중고 1,012개 학교의 약 44,000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 2천 원(전년대비 3.9% 증가),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영유아가구의 가계소비 자료를 수집하여 총 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양육비 통계를 생산하고, 양육비용 관련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자 한다. 조사항목 중 특히 영유아 지출 관련 항목을 세분화하고, 영유아 연령별, 부모 취업 특성별, 아동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여 영유아 양육 관련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선행연구,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추정모형 등 관련 이론 등을 파악한다.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을 고찰하고 각 추계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현실적인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다양한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미국, 호주, 일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영유아 양육비용을 연령 등 아동특성, 소득분위, 모의 취업 등 부모 경제사회적 특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하고, 특히 영유아 양육에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고유비용을 가족 공동 비용과 구분하여 항목별 소요비용을 추정한다.

넷째, 추정 비용 대비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단·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3. 연구 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이론적으로 1인당 비용추계방법(per Capita Method), 한계비용 추계방법(Marginal Cost Method), 표준예산 측정방법(Budget Standard Method) 등 자녀 양육비 추정방법을 검토하고, 미국, 호주, 일본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 사례와 그 활용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 검토하였다.

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통계청 200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구입, 영유아가구를 선별하여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영유아 양육비용을 분석하였다.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는 월 단위 자료이다. 특정가구의 항목별 월 단위 지출 내역으로 가구당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응답 가구수는 총 10,881가구이며, 월 단위 자료의 규모는 총 85,197여개의 월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방법은 일차적으로 부부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으며, 먼저 일반 소비지출을 분석하고 이어서 영유아 양육비를 추정하였다. 양육비 추정 방법은 미국 USDA 추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비 품목을 영유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품목,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품목, 전 가구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품목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인원수로 균등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3장에서 기술하였다.

다. 영유아 가구 가계소비실태 조사

기존 자료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자료인 영유아 관련 자료를 생산,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구의 월 단위 가계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유치원 비용은 공교육비로, 보육료는 사교육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유아 개별 지출 항목의 분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구 가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5월 중 1주간 이루어졌는데,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10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지의 문항이 적절한지, 가계부 코드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작성 방법은 수월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 받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 규모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약 25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 6월 한 달간²⁾ 일일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가계부 양식은 <표 I-3-1>과 같다. 구입한 품목과 수량 및 금액, 그리고 구입방법을 기입하고, 지침서에서 물품의 번호를 찾아서 기입하고, 아울러 그 물품을 누구를 위하여 구입했는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2) 최저생계비계측 조사 역시 한 달간 수행하고 있으며, 계절이나 행사 등의 변동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비교적 평달이라고 볼 수 있는 6월에 조사를 시행하였음.

〈표 I-3-1〉 일일가계부 작성 양식

①			②	③	④						⑤		⑥					
품목의 번호 기입란			품목	수량 및 단위	지출 대상 ※출생순위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자녀1에 기입 ()안에 만연령을 기입						구입 방법		금액(원)					
					부	모	기타 성인1	자녀1 (5세)	자녀2 (2세)	자녀3 (0세)	현 금	외 상, 카드						
1	1	1	사과	3개				√	√	√	√				3	0	0	0
2	5	7	기저귀	1팩						√		√			1	9	8	0

또한 가구원을 부, 모, 기타 성인 및 자녀 각각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물품번호는 별책(부록 2 참조)으로 지침을 주어서 해당 번호를 찾아 적도록 하였다. 물품은 13개 영역 107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표 I-3-2 참조). 품목 코드 및 분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품목 코드에 기초하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품목 코드에는 영유아 관련 품목이 상세하게 나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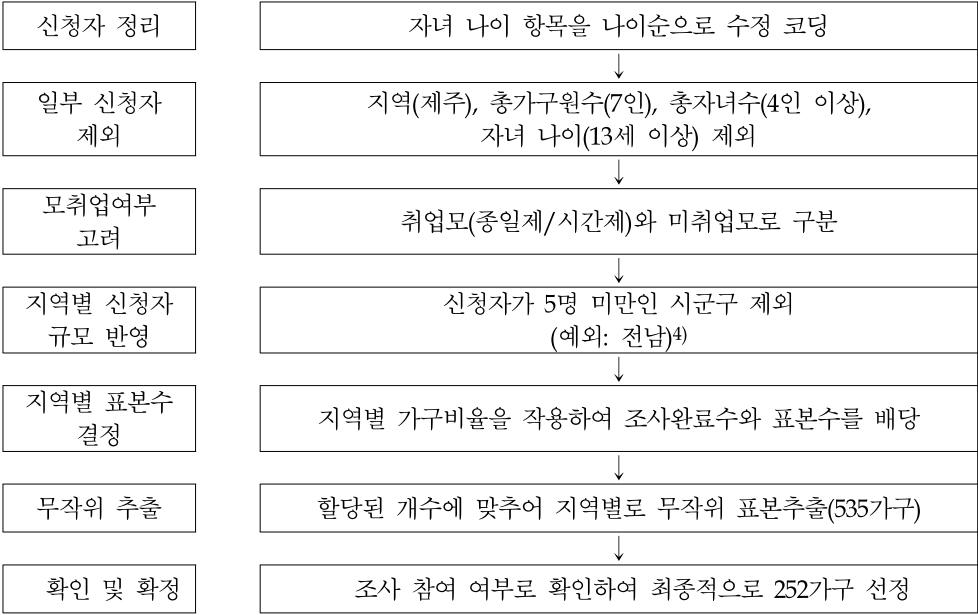
조사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국내 주요 육아관련 기관 웹사이트 및 포털³⁾을 통해 2010. 4. 19~5. 7 3주간 동안 공모하였고, 공모 결과 공모에 신청한 가구는 총 2,100여 가구이었다. 이중 미취업모와 취업모를 각각 균등 배분하고 전국 가구의 각 시·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조사 대상을 2배수로 선정한 후에 개별 접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52가구를 선정하였다(그림 I-3-1 참조).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초조사와 본 가계부 작성조사로 구성하였다. 조사원이 먼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 이어서 가계부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에 가계부조사표를 배포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주일 후에 2차 방문, 10일 후에 3차 방문하여 가계부 작성 상태를 점검하고 기 작성된 가계부를 회수하였으며, 가계부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육아정책연구소 등 기관과 월간지인 베스트 베이비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였음.

〈표 1-3-2〉 가계 소비지출 항목 분류

대분류	소분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기타채소,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이유식,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 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정용 섬유, 가전 및 가정용기기,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기저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양한방), 인삼·영양보조제,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외래비, 기타의료서비스, 병원입원치료비
교통	자동차 등 운송기구 구입, 운송기구 유지·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개인 교통 서비스, 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기록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 화훼관련, 애완동물관련,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구입, 서적, 유아용학습교재 교구, 초등학생학습교재, 중고생 교재·참고서, 기타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초중고등 교육, 유치원 순수교육비, 유치원 특기활동 비용, 유치원 돌봄 추가비용, 초등학교,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입시 및 보습, 음악학원, 영유아 외국어 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직업준비학원, 방문학습지, 체험교육, 기타학원교육비, 개인과외비, 성인학원교육, 학교 보충교육비,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아기 물티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순 이용료, 보육 시설 추가비용, 보육 도우미, 혈연에 의한 보육료, 기타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수수료), 기타서비스
기타지출 및 자산이전	연금보험료,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교제비, 경조비, 송금, 부모님 용돈·생활비, 비영리단체로 이전, 자산축적 및 변동지출, 손실금·벌금, 세금



[그림 1-3-1] 가계부 조사 표본 추출 작업

<표 1-3-3> 사전 기초조사 내용

구분	비고
I. 가구원 특성	- 가구원의 가구주와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경제활동분야, - 부모의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아이와 보내는 시간, 월평균수입 - 가구원 수, 가족유형
II. 주택 및 경제적 특성	- 소득, 자산, 부채, 가구규모, 국민기초생활보장 여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 자녀 보육과 교육 실태 - 집의 형태, 집의 소유형태 - 정부로부터의 지원여부 - 자녀 용돈 지출, 비소비 지출 - 연간 가족 행사 등

4)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표본이 5개 미만인 시군구 지역을 삭제하였으나,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남 지역은 삭제하지 않음.

기초조사는 가구원 특성과 가구의 주택 및 경제적 특성으로 구성하되, 한 달 가계부 조사에서 미처 조사되지 못하는 비소비지출 및 연중 목돈이 지출되는 행사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가구원의 가구주와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경제활동분야를 질문하고, 부모의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아이와 보내는 시간, 월평균 수입을 조사하였으며, 가구원 수, 가족유형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득 등 경제 상태와 자녀 보육실태,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비소비지출과 연간 가족행사로 구성하였다(표 I-3-3 참조).

가계부 조사 결과 총 252개의 가구가 참여하여 249개의 유효 조사표가 제시되었다. 기초조사와 1개월간(2010. 6. 1~30)의 가계부 조사를 모두 마친 조사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다음의 <표 I-3-4>와 같다. 참여 가구의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 34.9세, 어머니 32.4세이다. 이외 조사 참여 가구의 특성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I-3-4> 전체 및 기초조사 참여 가구

단위: 명, %

시도	가구수	가구수 비율	취업모 가구		미취업모 가구		총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3,501	21.0	26	26.3	26	17.3	52	20.6
부산	1,218	7.0	6	6.1	12	8.0	18	7.3
대구	835	5.0	1	1.0	11	7.3	12	4.9
인천	892	5.0	9	9.1	5	3.3	14	5.7
광주	485	3.0	5	5.1	2	1.3	7	2.8
대전	516	3.0	2	2.0	6	4.0	8	3.2
울산	360	2.0	1	1.0	5	3.3	6	2.4
경기	3,776	22.0	24	24.2	33	22.0	57	22.7
강원	530	3.0	5	5.1	3	2.0	8	3.2
충북	525	3.0	2	2.0	6	4.0	8	3.2
충남	698	4.0	3	3.0	7	4.7	10	4.0
전북	616	4.0	3	3.0	6	4.0	9	3.6
전남	653	4.0	4	4.0	6	4.0	10	4.0
경북	958	6.0	4	4.0	9	6.0	13	5.3
경남	1,111	7.0	4	4.0	13	8.7	17	6.9
제주	190	1.0	-	-	-	-	-	-
전체	16,862	100	99	100.0	150	100.0	249	100.0

라. 자문회의

의견수렴은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을 위한 자문회의와 가계부 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계부 예비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문회의에서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전반 및 연구의 방법, 샘플링, 단순 가계동향조사 분석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계부 조사 양식 및 사전조사지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4. 용어 정의⁵⁾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경상소득(current income)은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또한 비경상소득(non-regular income)은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한편, 가계지출(expenditure)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써,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소비지출(consumption)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이며, 비소비지출(current transfer paid)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을 의미한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자녀 고유 지출 비용과 가족 공동 지출 비용으로 구분된다. 자녀 고유 지출비용은 기저귀와 같이 자녀만을 위한 항목에 지출한 비용이며 가족 공동 지출 비용은 대부분의 식비, 주거비, 광열비와 같이 전체 또는 일부 가족을 위한 지출이다.

5)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통계설명자료.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자녀 양육비용 추정 방법

본 절에서는 자녀 양육비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조사 방법론과 추계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조사는 시민의견조사(opinion survey), 마켓바스켓 접근법(market basket), 가계지출조사(expenditure survey)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부분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비용접근법, 한계비용추계방법, Prais-Houthakker 추계 방법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방법론의 가정과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가. 자녀 양육비용 조사 방법론

1) 시민 의견조사 방법

시민 의견조사에서는 대표성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기초로 하여 자녀 양육비 지출 현황을 파악한다. 대표적인 예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를 들 수 있다. 동 조사에서는 조사원 면접 조사를 통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지난 3개월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가구의 소비 지출액 중 자녀를 위해 지출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각 항목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⁶⁾ 이러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자녀 연령과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자녀 양육비를 분석한다.

시민 의견조사 방법에 의한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는 대규모 조사에서 자녀 양육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자녀 양육비 규

6) 지출항목은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및 관련 비용,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자녀 양육비는 자녀 출생 순위별(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김승권 외, 2006).

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면접 조사를 하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응답자의 대답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대답하는 지출 액수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교육비와 같이 자녀에게만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응답할 수 있을 뿐 가구 전체를 위해서 지출하는 항목 중 자녀에게 특수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알아내기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조사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가계부 기장 방법에 따른 가계지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 방법의 간편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용 조사 방법론이다.

2) 마켓 바스켓 접근법

마켓 바스켓 접근법은 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정한 가구가 일정한 수준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항목의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가격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출액을 산정한다. 즉 표준적인 소비 지출 항목 및 이에 대한 소비량을 결정 한 후, 각 지출 항목에 대한 가격 수준을 적용하고 이것을 총합하여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총 지출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추계 방법에서는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어떠한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규범적인 기준’과 ‘행태적인 기준’을 사용한다. 규범적인 기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며, 행태적인 기준은 과거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 예산 측정 방법은 많은 판단과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생활수준과 현실적인 생활수준 사이에서의 조정을 통해 최종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다. 각 재화와 서비스 항목에 어떠한 생활수준을 적용할 것인가,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가격은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필요로 한다.

마켓 바스켓 접근법은 부모가 실제로 아동에게 얼마를 지출했는가를 기준으로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결정함으로써 추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마켓 바스켓 접근법에 따른 아동 양육비용 추계 결과는 다른 추계 방법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다. 동 추계 방법은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한 추계 결과가 아니며 연구자의 자의성에 따라 결과가 달

라 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이상적인 수준의 재화 및 서비스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출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가계 지출 조사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아동 양육비 추계는 가계지출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추계하고 있다. 가계지출조사의 우리나라 예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들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 가구를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기입하며,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조사 대상자가 제공받은 가계부를 활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한다. 수입과 지출 항목은 국민계정체계와 목적별 개인소비분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COICOP) 항목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각 월별로 자료를 수집한다.

미국의 경우 양육비 추계를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주관 하에 미국 상무성의 미국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이 실시하는 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가 있다. 이는 가구를 하나의 소비 단위로 간주하여 각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수준, 지출액을 조사한다. 가구 지출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의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사에서는 2005~2006년 동안 7,000~7,800개의 가구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수행하여 한 해 당 약 28,000개가 넘는 자료가 수집된 바 있다. 각 가구는 인터뷰 시점 이전의 3개월에 대한 지출을 보고 하였다. BLS는 분기별로 응답한 개별 가구를 독립적인 샘플로 간주하고, 각 분기 자료를 통합하여 연간 자료가 생산된다. USDA는 1960년부터 이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여 왔다.

나.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자녀 양육비용 추계는 대부분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 방법은 크게 1인당 비용 추계 방법, 한계 비용 추계 방법, Prais-Houthakker 추계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추계 방법

의 방법론과 기본 가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논의한다.

1) 1인당 비용 추계 방법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계의 총 소비 지출을 가족 수로 나누어 가구원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자녀 양육비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두 당 지출비의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는 데는 간편한 방법이다(허경옥, 2007). 이 추정 방법은 추정과정이 간편하고 활용하기는 쉬우나 가구원 전체가 각 소비 항목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지출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가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는데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에서는 교육비를 가구원수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 가구원에 대해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문제가 있다. 가구 소비의 경우 소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첫째아가 사용하던 물품을 둘째아에게 물려주는 등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절감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에서는 가구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함으로써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첫 번째 방법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소비 지출 항목만을 선정하여 각 항목별 총 지출비용을 자녀수로 나누어 자녀 양육비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방법 역시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양육비 지출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광열비,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등 가구원 전체를 위하여 지출 비용에 자녀를 위한 지출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이 자녀 양육비 추정에서 누락되어 자녀 양육비가 과소 추정될 위험성이 있다. 허경옥(2007)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구 소비 지출 항목을 자녀를 위한 소비 지출 항목, 성인을 위한 소비 지출 항목, 가구원 전체를 위한 소비 항목으로 나누어 성인을 위한 소비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자녀를 위한 소비 지출 총액은 자녀수로 나누고 가구원 전체를 위한 소비 항목은 가구원 수로 나누어 각각의 비용을 합산한 지출액을 자녀 1인당 소비 지출액으로 보았다.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녀와 성인에 대한 지출 비중을 각 소비 항목별로 추정하여 이러한 비율을 항목별 소비 지출액에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정순희(1996)는 성인 1인당 자녀 1인의 지

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성인 한명이 지출하는 액수의 약 87.5%를 자녀 한명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⁷⁾

미국 USDA의 CES 자료를 활용한 양육비용 추정도 1인당 추계 방법을 적용한다. 우선 이 자료에서 성인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자녀 지출 항목과 가구 공통으로 지출된다고 간주된 항목으로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를 선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지출비용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소득, 자녀수, 막내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인구 집단별로 항목별 총 지출비용을 추계한다. 각 항목별로 추계된 비용을 1인당 자녀 지출비용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식료품비용은 1994년 USDA Food Plan에서 산출된 소득 및 자녀 연령별 지출 비율, 의료비는 미국 의료비 조사(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에서 자녀에게 지출된 의료비 비중을 적용하여 자녀 1인당 식품비와 의료비를 산정하였다. 보육·교육비는 지출이 있는 경우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자녀수로 나누어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를 산정하였다. 이외 주거비, 교통비, 기타 잡비 등 가구 공통지출 항목은 가구원수로 나누어 자녀 1인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 연령별 자녀 1인당 자녀 양육비와 이것이 각 항목별 지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였다. 또한 지역변수까지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연령별 1인당 양육비 지출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 추계 사례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2) 한계 비용 추계 방법

한계 비용 추계 방법에서는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함에 있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자녀가 없었을 때 누렸던 동일한 후생 수준을 누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1인당 자녀 양육비로 본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던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면 이전에 부부가 지출했던 재화와 서비스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부부가 소비했던 재화와 서비스의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부부의 후생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후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다. 한계 비용 추계 방법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의 증가분을 1인당 자녀 양육비로 간주한다. 따라서 첫째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동일한 후생 수준”에

7)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항목별 성인 1인에 대한 자녀 1인의 지출 비율은 식비(0.817), 외식비(0.372), 의류비(1.135), 교통통신비(0.231), 보건의료비(0.453), 교육비(5.188), 교양오락비(1.129), 기타비용(0.345), 가구가사용품비(1.035)임.

있는 자녀 없는 가정과 1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의 지출의 차이로 계산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둘째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는 1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2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간의 지출 차이로 계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동일한 후생수준에 있는 두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동일한 후생 수준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한계 비용 추계 방법은 Engel, Rothbarth, Iso-Pro, Barten-Gorman 추계 방법으로 구분된다. Engel 추계 방법은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가정들을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Engel 법칙에 따라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가정이 비중이 높은 가정보다 높은 후생 수준에 있다고 본다. Rothbarth 추계 방법은 총 지출에서 성인들만이 지출하는 항목(예를 들면, 담배, 술 등)에 대한 비중이 같은 가정을 같은 효용 수준에 있다고 본다. Iso-Prop 추정 방법은 식료품과 성인지출항목 이외에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 등 특정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같은 가정을 동일한 효용 수준에 있는 가정이라고 간주한다.

한편 Barten-Gorman 방법은 부부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부부의 간접효용함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효용 함수를 가정하고 가계 지출 자료로부터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산출하는데 부모의 효용함수는 비목별 소비량의 함수이며 가구원 전체를 위한 총소비량 가운데 부모가 소비하는 부분의 함수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자녀 출산 전후의 동일한 효용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지출 수준을 비목별로 산출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한다. Barten-Gorman 방법에서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필요 소비지출의 증가분은 소비품 가격함수에 반영되어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가 없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총지출이 커진다는 수요함수의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있다(이성림, 2007).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 아동보건 및 인간발달국(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의 지원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때 한계 비용 측정 방법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양육비를 추계하였다.⁸⁾

8) Espenshade(1984)는 엔겔방법에 따른 추계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Lazear와 Michael(1986)은 Rothbarth 추정 방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추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Turchi(1983)는 Prais-Houthakker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였으며, Olson(1983)은 특정 효용 함수를, Mathtech(1981)은 다양한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함. 또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Betson(1990)은 미국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지원으로 소비지출조사(CES, 1980~1986) 자료를 이용하여 Engel, Iso-prop,

그러나 이러한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을 적용한 자녀 양육비 추계는 대부분 30년 전에 수행된 연구들이다. 따라서 과거 시대 가계의 소비 지출 행태를 가정하고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어 현대 가정의 소비 지출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OECD(2009)는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가정의 효용 수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특정 품목의 지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정의 효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가족의 지출 행태는 가족의 의사 결정의 결과인데, 자녀의 출생에 따른 지출 결정은 가정 내의 '협상 과정(bargaining process)'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의 효용 수준은 이러한 협상 과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구 소비 지출 행태는 다이내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의 출생은 가계 소비 지출 패턴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함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또한 새롭게 지출되는 항목도 발생하게 된다.

종합하면, 자녀에 대한 지출비용은 부모의 소득수준, 부모의 선호, 자녀 연령, 자녀 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가 있는 부부와 자녀가 없는 부부의 지출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소지가 크다. 자녀의 출산은 가족의 소비 패턴 및 부부의 선호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한편으로는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의 변화(특히 여성인 경우)와 더불어 부부의 소득 수준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양육비 추계 모형에서 부부의 선호 체계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와서 한계 비용 측정 방법보다는 1인당 비용 측정 방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SDA가 자녀 양육비용을 측정하고 있는 방법 가장 좋은 사례이다(USDA, 2009). 미국의 USDA는 1인당 비용 측정 방법에 따라 지출비용을 가구원수로 동일하게 나누는 방법을 택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다. 1인당 비용 측정 방법도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이 범하고 있는 오류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허경옥(2007)은 Engel 측정 방법을 이용한 Espenshade(1984)의 식비지출비용

Rothbarth 측정 방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였음.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분석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쉽게 표준화시키기가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크기와 구성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를 만든 후 각 해당 부문에 대해 동일한 식비지출 비중을 갖도록 하는 지출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Espenshade는 가게의 지출, 가게의 식비지출 비중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있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양육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출과 식비지출 비중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 결과가 가상적이며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식비지출이 가게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지 못하고, 교육비, 통신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 식비지출 비중 개념을 응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가게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성립(2007)은 우리나라 가게는 자녀수가 늘면 교육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식료품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비지출 수준을 큰 폭으로 줄이는 소비패턴을 이루기 때문에 엔겔방법이나 Barten-Gorman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자녀 양육비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엔겔방법은 가족 구성이 같으면 총소비지출 금액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비율은 감소하고 총소비지출 금액이 같으면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비가 증가한다는 엔겔법칙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게의 식료품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엔겔방법에 의해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Barten-Gorman 방법을 적용하여 부부가족 교육비 수준을 1로 할 때 유자녀 가게에 대한 균등화지수가 1보다 커지는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녀 양육비용 자체가 적절하게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3) Prais-Houthakker 추계방법

Prais-Houthakker 추계 방법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유형의 재화에 대한 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재화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의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많이 소비를 하고, 나이가 많이 든 부모가 젊은 부모보다 보건서비스 관련 지출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Prais와 Houthakker는 주요 가게 지출 항목에 가족 유형별

가중치(relative expenditure scale)를 적용하여 총 가구지출을 추계하였다. 이 가중치는 가계지출 항목과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수치를 가진다.⁹⁾

동 가중치는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해 조정된 1인당 지출비용을 추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인당 비용 추계 방법과 달리 조정된 1인당 추계 방법은 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 서로 다른 양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조정된 1인당 지출비용 추계치는 가족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지출 항목에 대하여 가정 내의 자녀는 조정된 1인당 지출비용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용은 자녀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계산한 1인당 지출비용에서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감소된 부분으로 간주한다.

동 추계 방법은 특정한 재화에 대한 지출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가족의 후생 수준을 정의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출 항목별 조정된 1인당 지출비용을 추계하는데 사용하는 일련의 함수들은 그 함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지출 항목별 가족 구성원 유형에 따른 가중치는 알 수 있어도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각 지출 항목별로 얼마를 지출하는지에 대한 추계 자료를 얻을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Prais-Houthakker 추계방법으로는 조정된 1인당 지출비용을 추계하는데 사용한 가중치를 가지고 아동에 대한 지출비용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외국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가. 미국 사례

1) 한계비용 추계 방법

미국의 Beston(1990)은 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1980~1986) 자료를 활용하여 Engel, Rothbarth, Iso-prop 추정 방법을 각각 이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각 방법론에 따라 추계된 양육비 결과를 비교하였다. Engel 방법에서는 식료품 지출비용을 가정 내에서의 식료품 지출비용과 외식까지 포함한 총

9)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유아보다 식료품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식료품에 대한 가중치는 청소년 자녀가 많은 가정이 한명의 유아만 있는 가정보다 높음. 의료비 가중치는 유아가 있는 가정이 청소년이 있는 가정보다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유아가 청소년보다 의료비 지출이 높기 때문이다.

식료품 비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용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가구를 동일한 후생 수준이 있는 가구라고 가정하였다. Rothbarth 측정 방법에서는 성인에 대한 지출 항목을 성인 의복, 술, 담배에 대한 지출 비중과 성인 의복 지출 비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so-props 측정방법에서는 특정 소비 항목을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가 차지하는 비중, 가정내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Engel, Iso-prop, Rothbarth의 방법론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양육비 추계 결과가 도출되었다.

Engel 추계방법에서 가정 내 식료품비 지출 비중을 이용한 경우 가장 높은 1인당 자녀 양육비가 추계되었으며, 이 결과는 총 지출을 가구원수로 나눈 per capita 추계 방법에 의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Iso-prop 측정 방법과 Rothbarth 측정 결과는 소비 지출 항목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수록 양육비 추정치가 높고, 협소하게 포함시킬수록 자녀 양육비는 적게 추정되었다.¹⁰⁾

자녀 양육비 측정 방법론에 따라 자녀 양육비 측정 결과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공통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총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자녀 양육비는 증가하지만 자녀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el(1) 추계 방법에 따른 결과의 예를 보면 자녀 1인에 대한 연간 양육비는 9,905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자녀 2인을 양육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839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소요되는 비용의 약 절반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셋째 아이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3,053달러로 둘째 아이를 양육할 때 추가되는 비용의 약 63%, 그리고 첫째 아이를 양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약 1/3 정도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의 후생 수준을 총 소비 중 식료품비 비중으로 가정한 Engel 추계 방법과, 성인 지출 항목으로 추정한 Rothbarth 추계 방법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이 소득수준별로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10) 예를 들어 Iso-prop 측정 방법의 경우 지출 항목에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를 포함한 경우(Iso-prop(1))가 지출 항목에 가정내 식료품비와 주거비만 포함한 경우(Iso-prop(3))보다 높은 자녀 양육비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음. Rothbarth 측정 방법의 경우 성인 지출 항목에 성인 의복, 술, 담배를 포함한 경우(Rothbarth(1))가 성인 지출 항목에 성인 의복비만 포함한 경우(Rothbarth(2))보다 높은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를 보이고 있음.

러나 다양한 가구 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으로 자녀 양육비를 추정한 Iso-prop 추정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2-1〉 양육비 및 총 지출 대비 비중 추정(Betson, 1990)

단위: 달러, %

	Engel		Iso-prop			Rothbarth		per capita
	1	2	1	2	3	1	2	
양육비 추정								
자녀수								
1인	9,905	9,010	4,807	3,874	2,796	7,480	6,994	10,000
2인	14,744	13,606	8,757	8,064	6,315	10,595	9,815	15,000
3인	17,797	16,598	12,357	12,217	10,181	11,762	11,126	18,000
자녀 연령								
4~8세	13,674	11,146	6,028	7,370	6,728	10,781	9,847	15,000
9~10세	14,744	13,606	8,757	8,064	6,315	10,595	9,815	15,000
11~16세	15,788	15,060	10,280	9,605	7,206	-	-	15,000
지출대비 비율								
자녀수								
1인	33	30	16	13	9	25	23	33
2인	49	45	29	27	21	35	33	50
3인	59	55	41	41	34	39	37	60
자녀 연령								
4~8세	46	37	27	25	22	36	33	50
9~10세	49	45	29	27	21	35	33	50
11~16세	53	50	34	32	24	-	-	50
소득수준								
저소득	49	46	34	33	28	36	36	50
중산층	49	45	29	27	21	35	33	50
고소득	49	45	27	23	17	35	31	50

주1: Engel(1)은 가정내 식료품 지출 비중, Engel(2)는 총 식료품 비중, Iso-prop(1)은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 비중, Iso-prop(2)은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비중, Iso-prop(3) 가정내 식료품비와 주거비 비중, Rothbarth(1)은 성인 의복, 술, 담배 비중, Rothbarth(2) 성인 의복비 비중으로 효용 수준을 추정함.

주2: 양부모 모두 있는 가정으로 자녀수와 자녀 연령 분석은 연간 소비 지출액이 \$30,000인 가정 대상임.

주3: 자녀1인 가정은 자녀 연령 8세, 자녀2인 가정은 자녀 연령이 각각 8세와 10세, 자녀3인 가정은 자녀 연령이 각각 4세, 8세, 13세라고 가정함.

자료: Lewin/ICF (1990) "Estimates of Expenditure on Children and Child Support Guidelines"

2) USDA의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미국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은 17세 이상 자녀 양육비에 대한 추계를 1960년 이래 수행하여 왔다. 양육비 추계 결과는 주정부가 아동지원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이혼부부 일방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불액을 산정하는데 주로 활용되어 왔다. 가장 최근 자료로서 USDA는 2008년 자녀 양육비 지출액을 양부모가정(husband-wife families)과 한부모가정(single-parent families)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본 절에서는 미국 USDA가 2008년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방법론과 주요 결과를 소개함으로 우리나라 자녀 양육비 추계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자녀 양육비 추계 자료와 방법론을 고찰하고, 양육비 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한 특징을 기술하며, 동 추계 결과를 다른 방법론을 이용한 추계 결과와 비교한다.

가) 이용 자료

2008년도 자녀 양육비 추계를 위하여 2005~2006년 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 항목은 <표 II-2-2>와 같다.

자녀 양육비 지출은 부모 연령이 20~60세인 양부모가족 11,800 가구와 한부모가족 3,350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는 17세 이하의 자녀를 한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핵가족으로 하였다. 추계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미국 전체 인구를 반영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2005~2006년도 조사 자료를 2008년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적용하였다. 2005년도 자료를 2006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산출된 자료를 다시 2008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소득 수준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총 항목지수를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지출 항목은 해당되는 항목별 CPI를 적용하였다.¹¹⁾ 지역별 분석 자료는 지역별 CPI를 적용하여 2008년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이 자료에는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기타 잡비에 대해서는 가구 전체 지출 비용 자료가 있었으며, 자녀 의복비, 보육·교육비는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 자료가 있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각 가구원에게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다음 절에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다.

11) 예를 들면, 식료품 지출액은 CPI의 식료품 지수를 적용하였음.

〈표 II-2-2〉 미국 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주요 항목

구분	내용
주거비	- 주거비(주택대출 원금·이자 납부금, 재산세, 집세, 수리·유지비, 보험료) - 공과금(가스비, 전기료, 연료, 전화통신료, 수도료) - 가구비 및 수리비(가구비, 수리비용)
식료품비	- 식품 및 무알콜 음료 비용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에서 구입, 푸드 스탬프로 구입한 비용도 포함) - 외식비, 학교 급식 비용
교통비	- 자동차 구입 대출금 및 할부금 지불비 - 가스비, 자동차 연료비 - 자동차 유지비 및 수선비 - 자동차 보험료 - 대중교통 요금비(비행기 비용 포함)
의복비	- 기저귀, 셔츠, 바지, 드레스, 정장 등 - 신발류 - 의류 서비스 비용 (드라이클리닝, 수선비 등)
의료비	- 보험 비급여 의료비 및 치과 진료비 - 보험 비급여 처방 의약품 및 의료용품비 - 회사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건강보험료 - 신체 혹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 비용
보육비/교육비	- 보육료 및 준비물 비용, 베이비시터 비용 -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 - 교재비, 문구비 등
기타 잡비	- 이미용비(헤어커트비용, 치아미백비용 등) - 오락비(휴대용오락기, 스포츠용품비, TV, 컴퓨터 등) - 도서비(일반도서, 신문, 잡지 비용)

자료: Lino, M. (2009)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08"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Miscellaneous Publication No. 1528-2008.

나)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

(1)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의복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

동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지출비용을 소득수준, 가구원수, 막내 자녀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계하였다.

(가) $E_i = f(Y, HS, CA)$

E_i =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가구 지출액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아동 의복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

Y = 월평균 세전 가구 소득

- 양부모 가족: \$56,870 이하, \$56,870~\$98,470, \$98,470 이상¹²⁾

- 한부모 가족: \$56,870이하, \$56,870 이상

HS = 자녀수 (1자녀 가정, 2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CA = 막내자녀 연령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¹³⁾)

자녀 양육 지출비용을 지역별로 산출하기 위하여 양부모 가정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나) $E_i = f(Y, HS, CA, RG)$

E_i , Y , HS , CA 에 대한 정의는 모형 (1)에서와 같음

RG = 지역 변수(동북부 도시, 남부 도시, 중서부 도시, 서부 도시, 농촌 지역)

식료품비, 교통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 지출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OLS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의료비와 아동 의복비는 전체 조사 표본의 약 10%가 아무런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지출액을 추계하였다.¹⁴⁾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Coefficient)를 이용하여 집단별 항목별 지출액을 추계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가계 총 지출액을 추계한 후 한 자녀 양육에 소요하는 비용을 구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지출 항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의복비는 회귀 모형에 따라 추정된 의복비 지출비용을 자녀에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고, 총액을 자녀수로 나누어 자녀 1인당 의복비 지출액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1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의복비 지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16~17세 자녀 의복비 지출액이 15세 이하 자녀 의복비 지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드라이클리닝, 수선비 등 의류서비스 비용도 전체 가구원에게 동일한 비중을 적용하였다.

둘째, 보육·교육비는 조사 대상 가구의 약 반수 정도가 지출액이 없었는데,¹⁵⁾ 선행 USDA 추계에서는 모든 가구를 포함하여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를 추계하였으나, 2008년도 연구에서는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만 포함하여 1인당 보육·교육비를 산출한 후 자녀 1인당 양육비에 적용하였다. 보육·교육비를 보육비와

12) 동 소득 그룹은 분석 샘플을 소득 수준에 따라 3등분한 것으로 USDA의 선행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전통적인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연령 구분임.

14) 분석 샘플의 상당수가 지출액이 0인 경우에는 OLS 보다는 Tobit 모형이 통계적으로 편차가 없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음.

15) 소득수준별로 보면 양부모 가족의 경우 저소득가정 31%, 중산층가정 45%, 고소득가정 56%가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저소득가정의 34%, 중산층이상 가정의 56%가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비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CES에서는 식료품 지출비용을 가구원별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USDA Food Plan이 제공하는 자녀 식료품비 비중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양부모 2자녀 가정은 식품비 중 17~25%, 2자녀 한부모가정은 총 식품비 중 25~34%를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비 중 자녀 지출 비중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CES는 의료비 역시 개별 가구원이 지출한 비용을 수집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 보건부의 2005년 의료비 패널 조사(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의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의료비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추정된 가구당 총 의료비에 적용하여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였다. 즉, 양부모 2자녀 가정은 총 의료비의 16~25%, 한부모 2자녀 가정의 경우 총 의료비의 24~33%를 자녀를 위해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총 의료비 지출 대비 자녀 의료비 비중은 자녀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운송비 산정은 가족과 관련된 활동에 지출한 운송비만을 자녀 양육 관련 운송비라고 간주하였다. 미국 교통부 연구에 따르면 가구의 총 운송 행위 중 59%가 가족과 관련된 운송비로 파악되므로(Hu and Reuscher, 2004), 자녀 1인당 운송비는 자녀 양육 관련 가구당 총 운송비를 가구원 수로 나누어 추정하였다.¹⁶⁾ 추정결과, 양부모 2자녀 가정 1인당 자녀 운송비는 총 가구 가족 관련 운송비의 약 15% 차지하고, 한부모 2자녀 가정의 1자녀 당 약 20%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은 자녀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운송비를 지출해야만 가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¹⁷⁾ 과소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 기타 잡비는 운송비 지출액과 마찬가지로 기타 잡비 지출에서 자녀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구한 자료는 없었다. 따라서 1인당 비용 산정법을 이용하여 기타 잡비 지출에 대한 자녀 지출액을 산정하였다.

(2) 주거비

CES는 연간 주거비 지출 자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USDA는 한 가정에서 자녀

16) 미국에서 자녀 지출 운송비를 산정한 최초의 연구도 1인당 비용 산정법을 적용하여 가족과 관련된 총 운송비를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바 있음(Dublin and Lotka, 1946).

17) 예를 들면 장애인 자녀가 있어서 규모가 큰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등임.

가 새롭게 태어남에 따라 부엌이나 거실 수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침실의 수는 더 필요하다는 논거에 의한 “침실 추가에 대한 평균 비용 접근법”을 자녀 주거비용 산정에 활용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기준을 통제하고 주거비용을 가정 내에서의 침실 수에 따라 회귀 분석하여 추가 비용을 추정하였다.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가정 각각에 대해 추정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지역에 따른 주거비용의 차이를 보정하였다.

동 추계 방법은 두 자녀 가정에서 자녀가 방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주거비는 추가적인 침실이 있음으로 해서 지출되는 공공요금과 가구비용이 포함된다. 침실 유지 비용은 자녀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용은 자녀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¹⁸⁾

다)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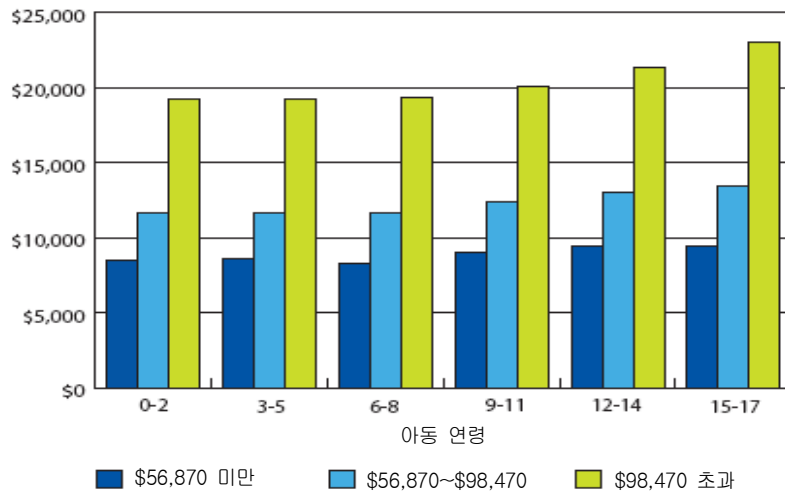
(1) 양부모 가정¹⁹⁾

(가) 소득 수준별 비교

미국에서 양부모 가정의 연간 0~17세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 연간 소득이 5만 6,879불 이하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연간 자녀 1인당 양육비는 8,330불~9,450불이며, 소득 5만 6,870불~9만 8,470불인 가정의 경우, 1만 1,610불~1만 3,480불이고, 소득 9만 8,470불 이상 가정의 경우는 1만 9,250불~2만 2,960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소득 집단의 가정은 세전 소득의 24%를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으며, 중간 소득 가정은 16%, 고소득 가정은 12%를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소득 집단 가정은 가장 낮은 소득 집단의 가정보다 두 배 이상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지출액은 예산 항목에 따라 다양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품비, 의복비 등 필수재(necessities)로 간주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지출항목은 가계가 형편에 따라 재량껏 지출하는 항목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추가적인 침실에 대한 평균 비용 접근법은 특정 동네, 넓은 정원이 있는 집, 집의 다른 방에 아이들을 위한 가구 구입, 자녀 없는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을 것을 기대하고 큰 집을 장만하는 경우, 기타 가구원의 존재, 아이에 대한 양육 등 다양한 가구 특성이나 상황을 모두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음.

19)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두 자녀를 가진 양부모 가정이 막내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임.



주: 두 자녀를 가진 양부모 가정이 막내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
 자료: USDA(2009). Expenditure on Children by Families 2008.

[그림 II-2-1]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 및 자녀 연령별(2008)

(나) 지출 항목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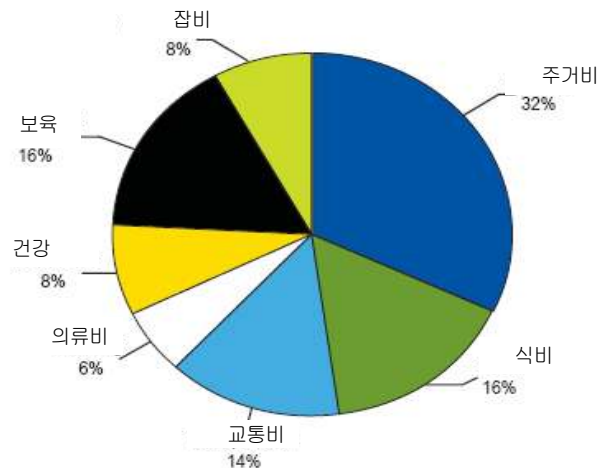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거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가 전체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 가정 33%, 중산층 32%, 고소득층 35%로 소득 수준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육·교육비는 지출을 하지 않는 가계가 있는 반면에 지출을 하고 있는 가계도 있는 유일한 항목이었다. USDA 측정방법에서는 보육·교육비 항목에 지출을 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소득 집단에서 보육·교육비는 자녀 양육비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항목으로서 전체 양육비 지출 중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집단에서 전체 양육비 지출 중 13~16%로 나타났다. 고소득가정이 보육·교육비 비중이 큰 이유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아 보육비 지출이 높았기 때문이며, 저소득가정의 경우 자녀 보육은 친인척 혹은 친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료품은 저소득 가정이 지출하는 자녀 양육비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으로 전체 양육비 중 18%를 차지하고, 중산층 가정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출과 비슷한 수준인

약 16%이며, 고소득층 가정에서 총 양육비 중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지출 항목이 총 양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비 12~14%, 기타 비용 7~9%, 의복비 5~7%, 의료비 5~8% 수준이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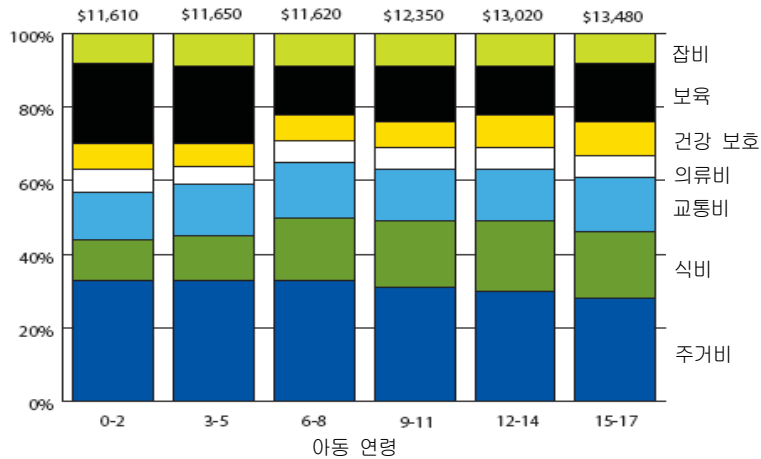
주: 두 자녀를 가진 중산층 양부모 가정이 막내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
 자료: USDA(2009). Expenditure on Children by Families 2008.

[그림 II-2-2]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항목별 비중(2008)

(다) 자녀 연령별 비교

자녀 양육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자녀 연령이 어린 경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연령이 높은 경우 지출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3]은 중산층 가정의 자녀 연령별 지출 항목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동 그림에서 보이는 자녀 연령별 지출 경향은 다른 소득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소득 집단에서 식품비, 교통비, 의복비, 의료비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영양섭취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게 된다. 교통비는 대부분 자녀가 운전을 시작하는 연령인 15~17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육·교육비 지출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대부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6세 이하 자녀에게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고용주가 지급해 주지 않는 보험료를 포함함.



주: 두 자녀를 가진 중산층 양부모 가정이 막내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
 자료: USDA(2009) "Expenditure on Children by Families, 2008"

[그림 II-2-3]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항목별 비중: 자녀 연령별(2008)

(라) 지역별 비교

지역별로 보았을 때 동북부 도시 지역이 자녀 양육 지출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부 도시지역과 중서부 도시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용은 남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 지출액의 지역적 차이는 지역에 따라 주거비용과 교육비용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비 중 주거비 지출액은 서부 도시지역과 동북부 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으며 농촌 지역에서 가장 낮다. 보육·교육 비용은 동북부 도시 지역에서 가장 높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교통비용은 서부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가장 높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교통 거리가 더 멀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사실이라 하겠다.

(2)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지출은 양부모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비 지출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양부모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비 총 지출액은 소득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거비, 식품비, 보육·교육비는 총 양육비 지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연간 소득 5만 6,870불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은 한부모 가정의 85%, 양부모 가정의 33%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 양육을 위한 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다. 이 두 집단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자녀 양육비 지출액은 양부모 가정 15만 9,870불, 한부모 가정 14만 8,620불로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에 대해 7% 정도 낮게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소득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부모 가정이 더 높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한부모 가정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소득 5만 6,870불 이하 집단에서 한부모 가정의 소득 수준은 대부분 하위 분위에 분포하여 한부모 가정의 경우 평균 소득이 2만 5,220불로 양부모 가족의 3만 6,380불보다 낮다. 양부모 가정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은 반면에 한부모 가정의 경우 대부분 홀벌이기 때문에 가계 소득이 더 낮은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출액은 자녀의 주 양육 부모가 지출한 본인 부담의 양육비 지출액이다. 자녀의 주 양육 대상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있을 것으로, 이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14만 8,620불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3) 한계 비용 추정 방법 결과와의 비교

한계 비용 추정 방법은 자녀 양육비 지출을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사이의 지출의 차이를 자녀 양육비 지출액으로 보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 동일 후생 수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론은 없으나 대부분 Engel 방법과 Rothbarth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ngel 방법은 두 가정의 총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같으면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다고 보는 방법이며, Rothbarth 방법은 사치품(주류, 담배, 오락, 디저트 등) 지출 비중이 같으면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Engel 방법과 Rothbarth 방법의 한계점은 이러한 추계 방법론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계 비용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은 가정에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주거비, 식료품비, 기타 다른 항목 등에 가정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 양육비용을 측정하지 않고 일정한 시점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지출 비용의 차이를 계산할 뿐이다. 한계 비용 측정방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은 자녀가 태어난 후에 부모가 자신들의 지출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난 후

예전에 누렸던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지출을 줄이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활동으로 대체하는데, 한계 비용 측정 방법에서는 이러한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은 자녀 양육비용을 과소 추정할 위험성이 있다.

<표 II-2-3>는 2000년 이래 CE 자료를 활용하여 Engel 방법과 Rothbarth 방법을 적용하여 양부모 가정에서 자녀수별로 자녀 양육비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계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연구 결과들은 자녀 양육 비용이 전체 지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계하였으며 실제로 각 지출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는 추계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Rothbarth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총 지출에서 성인 의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가정을 동일한 효용 수준에 있는 가정이라고 보았다.

〈표 II-2-3〉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을 이용한 미국 자녀 양육비 지출 비중 추계 결과
단위: %

연구자	측정방법	자녀수		
		1인	2인	3인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2001)	Engel	30	44	52
	Rothbarth	26	36	42
McCaleb, Macpherson, Norrbin, MacDonald and Feng (2004)	Engel	22	38	53
Policy Studies Inc (2006)	Rothbarth	25	37	44
MacCaleb, Macpherson and Norrbin (2008)	Engel	21	31	38
	Rothbarth	32	47	57
평균		26	39	48
USDA(2009)		27	40	47

주: 양부모 가정 대상

자료: USDA(2009). Expenditure on Children by Families 2008.

자녀 양육비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계한 결과는 연구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전체 지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구 결과에 따라 21~32%로 다양했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는 31~47%, 세 자녀 가정의 경우는 3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함에 있어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을 이용할 때 연구자가 동일한 효용을 가진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동일한 효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정의한 방법론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한 데이터의 연도

와 모형 구축 방법에 따라서도 결과는 다양하였다. 예를 들면 Policy Studies Inc(2006)와 MacCaleb, Macpherson, and Norrbin(2008)은 동일한 Rothbarth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였지만 전자는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양육비 지출 비중이 37%인 것으로 추계한 반면, 후자는 47%인 것으로 추계하였다.

USDA(2009)²¹⁾ 측정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녀 양육비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녀 가정의 경우 27%, 두 자녀 가정 40%, 세 자녀 가정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 양육비 비중 추정치는 Engel 추계 방법과 Rothbarth 추계 방법을 이용한 결과의 평균값과 매우 유사하다.

나. 호주 사례

1) 추계 방법 비교

호주의 Harding과 Percival(1999)은 가구소비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 1993~94) 자료를 활용하여 Barten-Gorman, Iso-prop, 마켓 바스켓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미국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계 방법론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다양하게 추정되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마켓 바스켓에 의한 자녀 양육비 추정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Iso-prop 측정 방법에 의한 추정 결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Barten-Gorman 측정 방법에 의한 추정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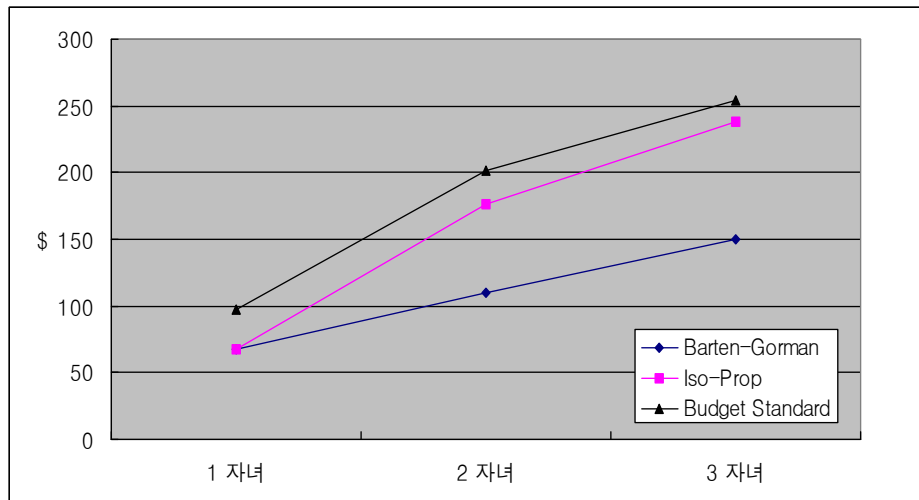
단위: 달러

자녀수	저소득 가정				중산층가정			
	총지출	BG	Iso-prop	마켓바스켓	총지출	BG	Iso-prop	마켓바스켓
1자녀	458	68	68	97	613	92	116	135
2자녀	552	110	176	202	749	150	253	278
3자녀	604	150	238	254	895	227	378	425

주: 호주 연구에서 달러는 호주 달러임. 이상 표 단위도 동일함.
자료: Harding and Percival(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94" Family Matters No.54 Spring/Summer.

21)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상호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출 항목 선정에 있어 Engel 측정방법과 Rothbarth 측정방법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산층 가정이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양육비 규모가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높다. 또한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두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한 자녀를 양육할 때 지출되는 비용보다 낮고, 또한 세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두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낮다. 이러한 사실 역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주: 저소득 가정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자료: Harding and Percival(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94" Family Matters No.54 Spring/Summer

[그림 II-2-4]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비교 (1999)

2) 자녀 양육비 추계 현황

호주 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AIFS)는 기관지 "Family Matters"에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수정한 바 있다. 그 후 동 추계 결과에 기초하여 물가 상승률만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²²⁾ 1999년에 양육비 추계 수정 발표를 중지

22) 일정한 방법론에 따라 양육비용에 인플레이션 영향력을 적용시켰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하였다. 동시에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였던 방법론과 추계 하였던 양육비용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1999년까지 'Family Matters'에서 자녀 양육비용 추계를 위해 사용하였던 방법론은 1983년 Kerry Lovering이 개발한 바스킷(basket of goods) 방법론과 1989년 Donald Lee가 개발한 소비지출조사(expenditure survey) 방법론이었다.

Lovering은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두개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각의 리스트에 포함된 항목들을 구매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지 계산하였다. 리스트 중의 하나는 '기초 상품'으로서 저소득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들로 가정되었으며, 다른 리스트는 보다 풍요로운 상품들을 포함한 것으로서 중산층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들로 간주되었다. 두 리스트에는 모두 자동차 관련 비용, 주거비 등 가구원이 공통으로 소비하는 항목들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소비 항목 리스트는 어떤 항목이 필수품이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Peter Saunders는 수정 보완된 바스킷(basket-of-goods)방식 유형의 예산표준(budget standard) 방식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추계하였다. 여기서는 자동차와 같이 가구 소유 품목에 대하여 자녀의 비용 비중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하였다.

Lee는 대안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가구소비지출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소비 수준과 서로 다른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소비하는지 측정하였다. Lee가 추정한 양육비 지출액은 Lovering이 추정한 양육비 지출액보다 높았는데, 이는 Lee가 의료비용과 교육비용을 양육비용에 포함시킨 반면 Lovering은 포함시키지 않은데 상당부분 이유가 있었다.

Rebecca Valenzuela나 Ann Harding과 Richard Percival은 가구소비지출조사(expenditure survey) 접근 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태어나는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누렸던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하여 가계가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의 증가분을 자녀 양육비용으로 보았다.

호주 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는 서로 다른 양육비 추계 방법론과 추계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호주의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 사례 중 한계 비용 측정법을 적용한 Ann Harding과 Richard Percival의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러한 방식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음. 또한 1980년대 이후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양육비 추계에 반영시키지 못하였음.

3)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Harding & Percival 추계

가) 추계 방법

Ann Harding과 Richard Percival은 한계 비용 측정법을 적용하여 한 가정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정 내에서의 식품비, 연료 및 전기료,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비내구재(예를 들면 종이 기저귀), 통신비, 개인용품 및 개인 서비스 비용(샴푸 등)과 같은 항목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았다. 전체 소비지출과 서로 다른 가구의 생활수준을 추계하기 위하여 동 연구에서는 호주 통계청의 1993~1994 가구소비지출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658 가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 가구는 호주에 거주하는 양부모 가족으로서 17세 이하의 자녀에게 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자녀 양육비를 정의하였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을 더 잘 비교하기 위하여 25~54세 이외 연령, 자영업자 등 호주의 표준적인 부부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부는 제외하였다.

나)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1) 연령별 자녀 양육비

소득 기준은 총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소득층에서부터 최고소득층까지 5분위로 구분하였다. 자녀 양육비용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 연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양육비용은 0~4세 자녀를 양육하는 주당 총 소득은 410불²³⁾인 최저소득계층이 지출하는 비용 주당 52불이고, 가장 높은 비용은 15~17세 자녀를 양육하는 최고소득층이 지출 비용은 주당 280불이었다. 고소득가정이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양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최고소득층이 최저소득층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자녀 양육에 지출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가구소득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자녀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세를 양육하는 최고소득층 9%에서 15~17세 자녀를 양육하는 최저소득층의 31%까지 다양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별로 양육비용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이는 적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연령별 양육비 비중의 차이는 큰 것으로

23) 호주 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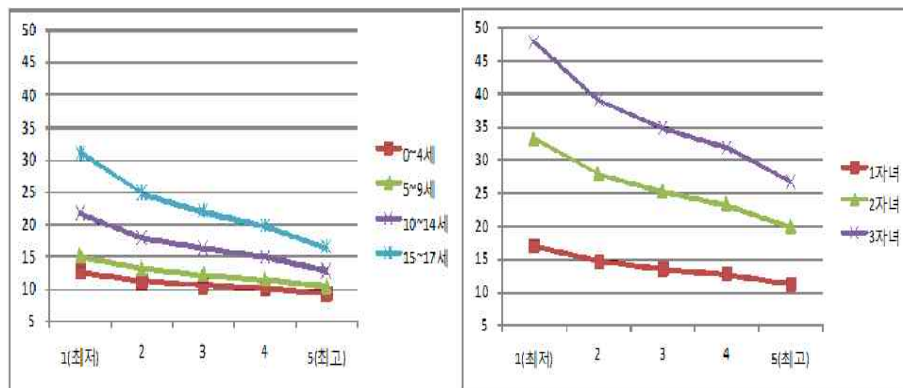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출액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소득별 차이가 크며,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비 지출액 비중의 소득별 차이가 적다. 예를 들어 15~17세 자녀 양육비의 소득 대비 비율은 17~31%인 반면에 0~4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분위별로 9~13%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2-5〉 호주 자녀 1인당 주당 양육비용 추계(1993~1994)

단위: 달러

소득분위	평균소득	자녀 연령				자녀 수		
		0~4세	5~9세	10~14세	15~17세	1자녀	2자녀	3자녀
1분위	410	52	62	89	127	70	136	196
2분위	620	70	82	111	154	91	173	242
3분위	810	86	99	132	178	110	204	282
4분위	1,030	104	119	154	204	132	240	328
5분위	1,700	157	177	219	280	191	338	453

자료: Harding and Percival (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94" Family Matters No.54 Spring/Summer



자료: Harding and Percival(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94" Family Matters No.54 Spring/Summer

〔그림 II-2-5〕 호주 연령 및 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1993~1994)

(2) 자녀수별 자녀 양육비

자녀수별 자녀 양육비용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

정에서 최저소득층은 주당 \$70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최고소득층은 주당 \$191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자녀의 경우 11~17%, 2자녀의 경우 20~33%, 3자녀의 경우 27~48%이다.

자녀 양육 한계 비용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소득별로 주당 70~191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이보다 낮아서 최저소득층은 주당 66불, 최고소득층의 경우 주당 147불을 지출하고 있다. 세 자녀를 가진 가정의 양육비 지출을 보면 소득 3분위 계층의 경우 첫 번째 자녀에게 주당 110불, 두 번째 자녀에게 주당 94불, 세 번째 자녀에게 주당 78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2-6 참조).

〈표 II-2-6〉 호주 자녀수에 따른 자녀 양육 한계 비용(1993~1994)

단위: 달러

소득분위	평균소득	자녀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1분위	410	70	66	60
2분위	620	91	82	69
3분위	810	110	94	78
4분위	1,030	132	108	88
5분위	1,700	191	147	115

자료: Harding and Percival(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94" Family Matters No.54 Spring/Summer.

다. 일본 사례 24)

1) 조사 개요

일본은 일본 내각부에서 2009년 1년간 인터넷을 통해 연간 육아비용을 조사하였다. 저출산 국가의 하나인 일본은 저출산이 원인인 '양육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²⁵⁾을 집중하고 있는 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출산,

24) 일본 내각부 정책통관관 「인터넷에 의한 육아비용조사 보고서」(2010년 3월) 내용에 근거함.

25) 일본의 경우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대상의 다양한 공적 지원제도가 있으며, 아동수당을

육아, 의료, 보육, 교육 등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가계부담 경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 육아비용의 구조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2-7〉 일본 인터넷 육아비용조사 항목

구 분	내 용
의류·복식잡화비	의류, 속옷류, 신발, 가방류, 기타 신변품
식비	가정내에서의 식사비, 도시락 재료값, 외식비, 군것질, 간식비
생활용품비	생활소모품, 문방구, 도화공작용품비, 만화·잡지·서적·그림책, CD·DVD, 비디오, 장난감·게임류, 휴대전자기기류, 어린이용 생활용품·용구, 어린이용 가구·가전, 어린이용 침구
의료비	보건·의료기관 청구에서의 지불액, 보건·의료기관까지의 교통비, 조제약국·드럭스토어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류
보육비	보육소·유치원 등의 입원 초기비용, 보육소·유치원 등의 입원 준비비, 보육소·유치원 등의 보육료·수업료·급식비 등, 보육소·유치원 등의 행사·교재비, 일시보육료, 베이비시터 대금 등, 학동보육비
학교교육비	국립·사립학교의 입학 초기비용, 국립·사립학교의 수업료, 국립·사립학교의 기부금, 학교급식비 초등학교·중학교의 급식비, 학급비, 학생회비, 학부모회비등, 수학여행, 임간(林間: 숲 속의 여름학교)·임해(臨海: 해변의 여름학교)학교, 소풍 등의 비용, 과외 클럽활동비, 교복, 통학용품비, 통학교통비, 학교 교재비
학교외 교육비	가정내 학습용 도서, 학원비, 통신교육·교재학습비, 가정교사료, 기타 학교외 학습비
학교외 활동비	원 외 취미교습 수업료, 취미교습의 용구·용품비, 검정비용, 발표회·시합비용, 기타 학교외 활동비, 아동의 단기유학·홈스테이 비용
아동 휴대전화요금	출산축하 관계비, 입원·입학, 졸업·졸업 관계 축하비, 생일축하, 계절행사
용돈	-
축하행사관계비	-
어린이를 위한 예·적금·보험	예·적금, 각종 보험
레저·여행비	어린이와의 당일치기 레저 비용, 어린이와의 숙박을 수반하는 여행비

주: 출산관련 비용 항목(임신중 출산준비비, 출산관련비, 출산관련 정부 조성금 수급액)은 실제 양육비용 측정에 활용되지 않아 생략함.

자료: 일본 내각부(2010). 인터넷에 의한 육아비용조사 보고서. 6쪽.

중심으로 한 현금급부와 보육서비스 등의 현물급부 등이 제공되고 있음.

일본 가정의 양육비용이 어떠한 용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는 지를 파악하여 육아에 드는 각 가계의 직접 지출을 집계하고, 이를 향후 저출산 대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에 의한 앙케트 조사 형식으로, 육아에 드는 가계지출금액을 항목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조사에 사용된 육아비용 지출항목은 총 13개로 구성은 <표 II-2-7>과 같다.

양육비용 산출은 주·월·연 단위로 회답한 비목별 금액을 합산하여 이루어졌다. 주 단위 월 조사는 총무성 가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가계비 지출의 변동이 가장 적고 월평균 가계지출에 가장 근접한 11월 한 달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특성

조사대상 응답자는 0~15세 신생아부터 중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의 총 11,145명의 성인이며, 여성이 남성의 2배 수준인 70%이다. 조사대상 가정의 총 자녀수는 평균 1.17명이며, 자녀수 2명을 둔 가정은 47%로 약 과반수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가구의 부 평균 연령은 38.3세, 모 평균 연령은 36.4세이며, 전체적으로 29세 이하 7.5%, 30대 61.1%, 40대 29.9%, 50세 이상 1.5%로, 30대의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한화 약 608만3천엔으로 월평균 약 507만엔으로 나타났다.²⁶⁾ 월평균 부부 소득을 비교한 결과 모 14만엔, 부 33만엔으로 모의 수입이 부의 4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연령별 가구소득 추이를 보면, 첫째 자녀의 연령·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은 조금씩 높아진 반면, 어머니의 경우 0세를 제외하면 자녀의 연령·학년에 따른 모 수입의 차는 적었다. 전반적으로 첫 자녀가 영아인 가구보다는 유아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보다는 양부모 가구가,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의 가구의 소득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2.5%, 모 취업률 41.1%, 부 정규직 비율 86.3%, 그리고 한부모 가정 비율 3.7%로 표집되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엔대가 18.1%로 최다 비율을 보였다. 이는 월 417만엔 범위에 해당한다. 이 소득구간에 중산층 가구소득의 중간값이 존재한다.

조사대상 가구 미취학 영유아 중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은 연령별

26) 한화로 환산하면 연소득은 약 8천4백만원, 월 소득은 약 700만원임.

로 각 4.7%, 16.8%, 21.8%로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만3세 이후의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이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해 연령별로 각 46.4%, 90.5%, 97.3%, 95.9%로, 취학 연령이 가까워질수록 대부분의 아동들이 유치원 또는 인정어린이원·보육소를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기의 경우 유치원 이용률이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조사 결과

가) 품목별 양육비용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8만7천엔으로, 영아의 경우는 월 약 7만 엔(한화 약 97만원), 유아 월 약 10만엔(한화 약140만원)으로 유아기 자녀의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자녀의 장래를 위한 어린이용 예·적금·보험비가 23.6%로 월 평균 1만7천엔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비와 생활용품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는 보육비가 월평균 3만2천엔으로 총 양육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비, 예·적금·보험비로 나타났다(표 II-2-8 참조).

〈표 II-2-8〉 월 양육비용 항목별 순위-중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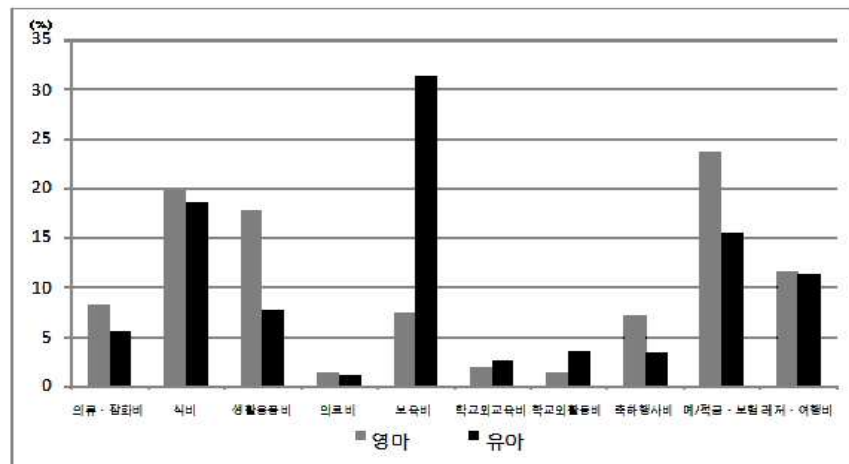
단위: 엔, %(명)

구분 ²⁷⁾	영 아 (미취원아, 수=2,231)			유 아 (보육소·유치원아, 수=2,583)		
	항목	비용	비율	항목	비용	비율
합계		70,268	100.0		101,379	100.0
1위	예·적금·보험	16,617	23.6	보육비	31,618	31.2
2위	식비	13,866	19.7	식비	18,719	18.5
3위	생활용품비	12,452	17.7	예·적금·보험	15,601	15.4
4위	레저·여행비	8,094	11.5	레저·여행비	11,366	11.2
5위	의류·잡화비	5,730	8.2	생활용품비	7,711	7.6
6위	보육비	5,233	7.4	의류·잡화비	5,539	5.5
7위	축하행사비	4,991	7.1	학교외활동비	3,599	3.5
8위	학교외교육비	1,303	1.9	축하행사비	3,423	3.4
9위	의료비	989	1.4	학교외교육비	2,566	2.5
10위	학교외활동비	955	1.4	의료비	1,122	1.1

주: 비용이 경미하거나(휴대전화요금, 용돈), 해당사항이 없는(학교교육비) 3항목은 생략함.

27) 일본 보고서에서 0~2세 영아기 아동을 미취원아로, 3~6세 유아기 아동을 '보육소·유치원아'로 칭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각각 영아, 유아로 표기하였음.

영유아기 품목별로 총 양육비 대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앞서 살펴본 대로 유아기의 보육비와 영아기의 예·적금·보험과 식비, 생활용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의료비와 학교외 교육 및 활동 비용의 비율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II-2-6] 영유아기 품목별 월양육비 비율

나) 연령별 양육비용

첫 자녀 연령에 따른 월평균 양육비용은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월평균 양육비용은 0세 7만8천엔, 1세 7만3천엔, 2세 7만9천엔, 3세 8만6천엔, 4세 10만엔, 5세 9만7천엔, 6세 10만엔으로 산출되었다.

각 연령별 주요 지출 품목을 살펴보면, 0세에는 생활용품비와 예·적금·보험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세에는 예·적금·보험비가, 2세에는 식비와 예·적금·보험비, 3세 이상에서는 보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영유아기 연령에 따른 양육비 지출의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취학전 자녀양육은 보육비의 부담이 커서 1세 이후부터 보육 비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세에서 월 23만엔 이상, 4~6세는 월 34만엔 이상으로 '보육비'부담의 증가가 양육비용 총액의 증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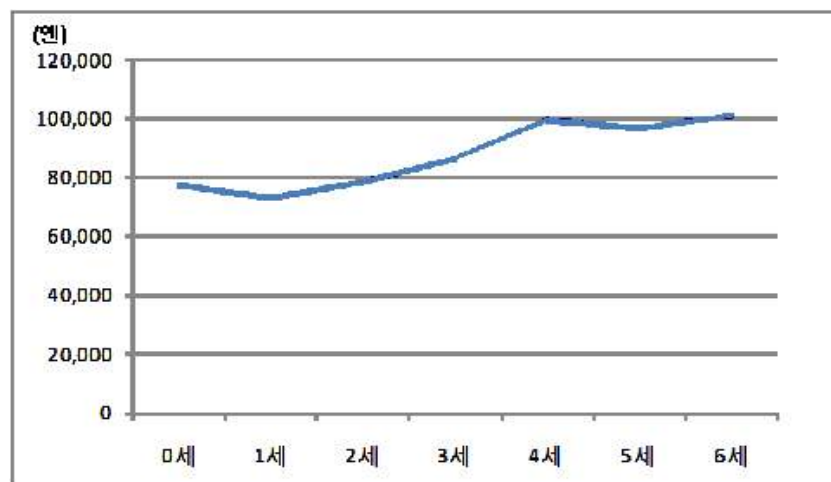
영아기 자녀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를 위한 예·적금·보험비는 연령증가에 따른 양육비용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총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II-2-9〉 자녀연령별 월 양육비용 및 총양육비대비 비율

단위: 엔, %(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총 비용(엔)	77,603	73,170	78,559	86,714	99,759	96,626	101,270
항목별 구성 비율							
의류·복식잡화비	9.5	7.9	7.0	6.0	5.6	4.9	5.8
식비	11.9	17.7	20.9	20.4	18.9	19.7	21.1
생활용품비	23.9	18.1	13.9	8.6	7.0	6.6	6.5
의료비	1.4	1.6	1.2	1.1	1.1	1.1	1.1
보육비	5.5	12.6	17.2	25.8	30.4	29.4	27.7
학교외교육비	0.9	1.5	1.9	2.2	2.7	3.0	3.3
학교외활동비	0.3	0.7	1.3	2.0	3.4	5.2	5.7
축하행사비	17.1	3.2	3.1	4.1	3.6	3.3	3.0
예·적금·보험비	23.8	25.4	20.7	18.1	15.5	14.4	13.3
레저·여행비	5.7	11.0	12.8	11.6	11.5	12.3	1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28)	(827)	(782)	(744)	(762)	(739)	(433)



[그림 II-2-7] 연령별 월 양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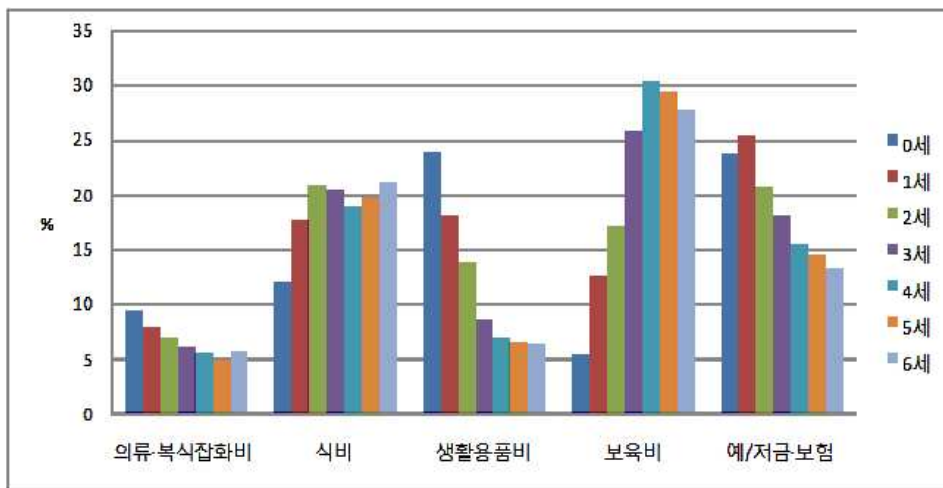
연령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의 지출이 늘어나고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률 또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발달시기별로 살펴보면, 영아기 양육비 부담률이 가구소득 대비 15.7%인데 반해 유아기는 20.5%로 증가하였다. 전체 아동기(0~18세)로 보아도 미취원 영아기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10〉 연령별 양육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부담률

단위: 엔, %, 명

구분	월평균 육아비용(A)	월평균 가구소득(B)	양육비부담률 (A/B)	구분	월평균 육아비용(C)	월평균 가구소득(C)	양육비부담률 (C/D)
0세	77,500	478,333	16.2	미취원아	70,000	446,667	15.7
1세	73,344	469,167	15.6	보육소· 유치원아	101,667	493,333	20.5
2세	78,334	452,500	17.4				
3세	86,667	468,333	18.5				
4세	100,000	475,833	21.0				
5세	96,667	483,333	20.0				
6세	101,667	485,000	20.9				



〔그림 II-2-8〕 연령별·품목별 소득대비 양육비 부담률

〔그림 II-2-8〕로 연령별 주요 품목의 소득대비 양육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의류·복식잡화비와 식비는 영아기 동안 그 비용이 완만히 감소하다가 2~3세 이후부터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보인다. 만0~1세에 높았던 생활용품 비중은 영아기 동안 큰 감소율을 보이다가 만3세 이후 크게 낮아져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 보육비는 영

아기 동안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유아기에는 절대 비용과 상대적 비율 면에서 양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보육비' 지출액은 보육소·유치원 등의 이용률이 절반 가까이 되는 3세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이용률이 9할을 넘는 4~6세에서는 연간 29만엔 (한화 4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표 II-2-11〉 학교외 활동 및 교육 월비용 추이

단위: 엔(명)

구분	전체	학교외 활동 (취미/교습 특별활동)	학교외 교육 (학원비, 사교육 등)	(수)
0세	225	160	65	(528)
1세	462	399	63	(827)
2세	1,088	896	193	(781)
3세	1,748	1,330	418	(744)
4세	3,336	2,655	680	(762)
5세	4,679	3,800	879	(739)
6세	5,620	4,274	1,346	(433)

한편, 학교외 활동 및 교육에 들어가는 양육비용은 자녀의 연령·학령에 따른 지출 변동이 큰 비목에 해당한다. 첫 자녀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의 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비용이 높아지는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인 경우 취학전 자녀는 학습위주의 학원교육비보다는 취미 위주의 특별활동비의 지출이 3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만5세의 경우 특별활동비 연 4만5천엔, 사교육비 연 1만엔, 만6세의 경우 이보다 조금 늘어나 특별활동비 연 5만1천엔, 사교육비 연 1만6천엔으로, 만5~6세가 되면 각각 연 5만6천엔(한화 월 약 64,000원), 연 6만7천엔(한화 월 약 78,000원)을 보육시설·유치원 외 교육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학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기타 교육비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긴 하나 5~6세 월평균 육아비용이 9만7천엔, 10만엔임을 감안하면 약 4천7백엔, 5천6백엔의 비중은 높지 않다. 학교 외 활동비는 4세경부터 '학원 외 취미교습의 수업료 등'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증가폭이 늘어났다.

다) 가구소득별 양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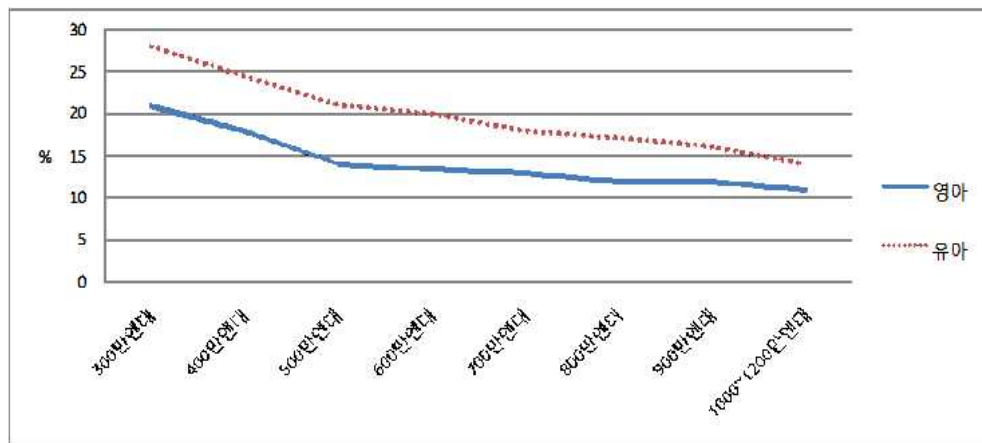
일본 가정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비용 총액이 많아졌으나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2-12〉 연 가구소득별 영유아 월 양육비용

단위: 엔, %(명)

구분	영아			유아		
	양육비	소득대비비율	(수)	양육비	소득대비비율	(수)
전체	70,269	15.7	(2,231)	101,379	20.5	(2,583)
300만엔 미만	54,691	25.1	(221)	80,544	36.9	(222)
300만엔대	59,219	20.4	(416)	81,233	27.7	(354)
400만엔대	68,402	18.1	(477)	91,549	24.2	(484)
500만엔대	70,559	15.2	(444)	97,652	20.9	(486)
600만엔대	74,920	13.8	(273)	107,424	19.7	(319)
700만엔대	82,960	13.3	(166)	115,625	18.5	(289)
800~1000엔 미만	87,568	11.4	(157)	122,612	15.9	(266)
1000만엔 이상	105,674	11.2	(77)	142,077	15.0	(163)

영유아기 통틀어 월 소득 약 300만엔 미만의 저소득층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률은 영아기 자녀의 경우 약 25%, 유아기 자녀의 경우 약 37%로 월 가구소득 대비 25%~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균 양육비용을 보이는 연 가구소득 500~600만엔대 소득층의 양육비 부담률은 영아기 약 15%, 유아기 약 20%로 월 가구소득 대비 20% 이하로 나타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양육비의 부담률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00만엔 미만의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2, 그림 II-2-9 참조).



[그림 II-2-9] 가구소득수준별 영유아기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표 II-2-13〉 소득수준별 영유아 양육비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

구분	영아				유아			
	식비	생활 용품비	보육비	예·적금· 보험	식비	생활 용품비	보육비	예·적금· 보험
전체	19.7	17.7	7.4	23.6	18.5	7.6	31.2	15.4
300만엔미만	24.3	21.6	6.9	19.5	21.5	7.9	29.0	16.7
300만엔대	22.0	18.2	6.4	24.4	20.6	7.9	32.2	15.2
400만엔대	20.4	17.1	8.1	24.1	19.6	7.3	33.0	14.9
500만엔대	19.0	17.4	7.6	25.4	19.6	7.3	31.0	15.2
600만엔대	17.9	16.8	8.7	23.4	17.8	7.6	31.6	14.9
700만엔대	17.0	18.0	7.0	23.0	17.5	7.2	28.8	16.0
800~1000엔 미만	18.8	16.2	6.3	24.6	15.9	8.0	32.0	15.1
1000만엔 이상	17.1	18.6	7.7	19.0	15.0	8.2	29.9	16.2

전반적으로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과 소득대비 비율이 영아기 자녀에 비해 크게 나타난 가운데, 양육비 총액이 전체가구 평균양육비를 넘는 가구의 소득수준은 영아기의 경우 연 가구소득 500만엔대 이상, 유아기의 경우 연 소득 600만엔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비’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출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연소득 300만엔 미만의 최저소득층의 식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저소득층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식비와 생활용품비의 양육비대비 비율은 가장 높았으며, 예·적금·보험비의 비율은 낮은 편에 속했다. 연소득 400만엔대 이상의 중산층 이상 영아기 자녀 가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예·적금·보험비 비율이 가장 컸다.

영유아기별로 살펴본 결과, 영아 가정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예·적금·보험비와 레저·여행비의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의류·복식잡화비의 지출액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유아의 경우 보육비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가구소득에 따른 비중에 큰 차이는 없었다. 유아기의 경우 자녀 예·적금/보험과 레저·여행비 역시 양육비 내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식비 지출이 소득에 따른 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되며,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상 가구의 품목별 지출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 가구소득 300만엔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는 중산층 이상 가구와 다른 품목별 양육비 비중을 보였다.

라) 맞벌이·외벌이 가구유형별 양육비용

미취학 아동 부모의 고용 형태는 첫째 자녀가 3~4세가 되면서 맞벌이 비율이 조

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중에서도 양친 모두 정규 고용인 비율은 낮아지지만, 부 정규-모 비정규 고용의 비율은 높아져 10%를 넘는다. 즉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나, 이는 주로 모의 비정규직 취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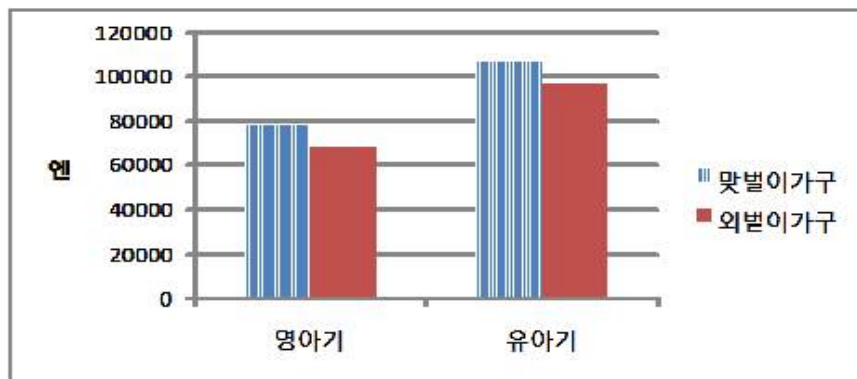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 그 차이가 약 1만엔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연 평균 660만엔)이 외벌이가정의 소득(연 평균 590만엔)에 비해 높은 편이나 소득수준의 차가 큰 편이 아니어서, 총 가구소득 수준이 맞벌이·외벌이 가정유형의 양육비 지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기 통틀어 미취학 아동의 비목별 양육비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자녀를 위한 예·적금·보험비와 교육비의 지출과 그 비중이 다소 컸다.

〈표 II-2-14〉 자녀연령별 맞벌이·외벌이 가구유형 분포

단위: 천원, %(명)

연령	맞벌이		외벌이	무직/기타	(수)
	부모 정규직	부 정규 - 모 비정규	부 정규 - 모 무직		
0세	23.6	2.9	55.6	12.6	(522)
1세	21.0	7.8	54.7	13.3	(819)
2세	15.1	10.6	57.4	12.4	(766)
3세	16.3	8.4	58.3	13.8	(736)
4세	15.7	12.3	53.2	15.2	(750)
5세	14.7	12.4	55.0	14.3	(720)
6세	11.7	15.6	55.5	13.9	(418)



[그림 II-2-10] 맞벌이·외벌이 가구유형별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맞벌이·외벌이 외에 부모의 정규·비정규 고용형태에 따른 양육비도 차이가 있다. 부모 모두 정규직인 가정은 부모 모두 비정규직인 가정에 비해 생활용품비와 예·적금/보험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식비, 보육비, 학교외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었다. 소득탄력성이 큰 식비의 경우 부모-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이 22.9%로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외벌이 19.4%, 모-비정규직 맞벌이 가정 19.0%의 순으로, 그리고 부모-정규직 맞벌이 가정은 16.3%로 식비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5 참조).

〈표 II-2-15〉 맞벌이·외벌이 및 고용형태별 월양육비 지출

단위: 엔, %(명)

구분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부모 정규직	부정규작모비정규직	부모 비정규직	부 정규직-모 무직
양육비	104,500	93,700	84,000	81,000
항목별 구성 비율				
의류·복식잡화비	6.9	5.3	6.3	6.3
식비	16.3	19.0	22.9	19.4
생활용품비	12.2	9.3	9.4	11.4
보육비	26.1	28.8	28.8	19.7
학교외교육비	3.8	5.3	4.9	5.4
예저금.보험	17.9	16.7	12.9	19.3
레저여행비	10.4	10.9	9.5	11.7
기타	6.1	4.3	5.1	6.5
계(수)	100.0(804)	100.0(468)	100.0(81)	100.0(2,634)

〈표 II-2-16〉 영유아 맞벌이·외벌이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전체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의류·복식잡화비	8.2	8.6	8.0	5.5	5.8	4.9
식비	19.7	17.9	20.2	18.5	17.7	19.1
생활용품비	17.7	19.2	17.3	7.6	8.9	6.4
보육비	7.4	8.5	7.1	31.2	31.7	31.1
행사관계비	7.1	7.9	6.9	3.4	3.2	3.6
예저금.보험	23.6	23.7	23.6	15.4	15.3	15.2
레저여행비	11.5	9.9	12.0	11.2	11.2	11.3
(수)	(2,231)	(441)	(1,677)	(2,583)	(1,144)	(1,298)

<표 II-2-16>에서 영·유아로 나누어 맞벌이·외벌이 가정유형에 따른 품목별 양육 비용 지출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생활용품비, 보육비, 행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식비와 레저여행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 부모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의 양상과 달랐다. 유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식비 비중이 낮고, 의류·복식잡화비, 생활용품비의 비율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다소 높았다. 보육비와 예·적금·보험, 여행비 등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등, 영아기 자녀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맞벌이·외벌이 여부와 정규·비정규의 부모 고용형태에 따라 양육비 지출패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벌이 가정 혹은 부모가 비정규 고용인 가정의 보육비 등의 가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양육비 추정 연구가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하기보다 주로 학문적인 차원에서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가 있다. 가계동향 조사는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 소비지출을 추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가계부 작성 방법으로 조사하며 가계의 전반적 소비 수준과 소득계층별 가계소비의 차이, 사교육비 등 항목별 소비지출을 추정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실태조사에서 조사 문항을 두고 연령별 양육비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 소비지출 추정 및 아동 연령별 1인당 지출비용을 산출하였다. 조사원에 의한 1회 방문조사로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공통항목비용은 가구원수로 균등 배분하고 개별항목비용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공통비용은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사무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이고 개별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로 분류하였다. 가계의 전반적 소비 수준 및 연령별 지출을 추정하고, 보육비, 교육비 등 항목별 소비지출 추정하였다. 2009년 조사 결과 양육비용은 영아 월 68만5천원, 유아 81만6천원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이는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100만9천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이다(김승권 외, 2010).

김성희(1996), 문숙재와 김성희(1995)는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추정하였다. 내구재 소비를 제외한 8대 비목의 지출액을 측정하였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계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99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 지출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양·교육·오락비에 53만 9천원(가계소득의 51%), 식비에 21만 5천원(가계소득의 20%), 의복비에 7만 3천원(가계소득의 7%), 자녀양육 대체비에 4만 3천원(가계소득의 4%)을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자녀양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조사결과 주부의 교육수준, 근로소득, 생활주기, 자녀수, 자녀의 신체적 건강으로 나타났다.

정순희(1996)와 윤희은(1996)은 Lazer와 Michael(1998)의 가족구성원간의 소득배분 구조 연구를 응용하여 성인대 자녀의 지출비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 항목을 식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등 9가지 소비지출항목으로 분류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는데 양육을 위한 한달 평균 총지출액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1인당 자녀 1인의 지출비율은 약 88%로 나타나 성인 한 명을 위해 지출되는 액수와 자녀 한 명을 위해 지출되는 액수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밝혔다. 항목별 자녀양육비용 측정에서는 교육비(31만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식비(18만원)가 그 다음, 그리고 가구·가사용품비(17만원)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성립(2007)은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출산 이전 가계 총지출 중 비목별 부모의 지출비중을 추정한 후 출산이후의 지출비중과 같아지기 위해 필요한 보상비용을 자녀양육비로 간주하는 방법인 Barten, Gorman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녀 1인 양육비는 한 달 평균 약 68만원, 2인 104만원, 3인의 경우 118만원으로 추정하였다. 1자녀에 비해 1인이 더 추가될 경우 한 자녀 양육비용의 53%가 추가되고, 3자녀일 경우 한 자녀 비용의 약 74%가 추가되어 자녀수가 증가될수록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보여주었다.

허경옥(1997)은 1995년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Espenshade(1984)의 식비지출비율모델에 따라 출생부터 만18세까지의 자녀 양육비 지출액수를 추계하였다.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양육비는 한 자녀 가계의 경우 1억 2천 3백만원, 두 자녀 가계의 경우 1억 8천 1백만원, 세 자녀 가계의 경우 2억 1천 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는 한 자녀 가계의 경우 53만원, 두 자녀 가계의 경우 75만원, 세 자녀 가계의 경우 93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가계소득 대비 각각 37%, 46%, 56%에 해당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어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옥(2007)은 또한 네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두당 개념, 즉 가계소비지출을 가족 수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법, 소비지출을 자녀만을 위한 항목과 공동사용 항목으로 구별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는 방법, 등가비율 개념, 즉 식비지출 비중을 경제적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과 소비지출을 통해 생산되는 자녀양육생산물의 개념을 활용한 측정방법이다. 자녀양육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당 개념의 자녀 양육비는 한 자녀 가계의 경우 한 달 평균 66만원, 두 자녀 가계 115만원(1인당 57만원), 세 자녀 가계 146만원(1인당 49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지출 중 자녀만을 위한 항목과 공동사용 항목으로 구별하여 자녀양육비를 산정한 결과는 첫 번째의 두당 자녀양육비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등가비율 개념, 즉 식비지출 비중을 경제적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한 결과는 앞서의 두 가지 방법에 비해 전체적으로 자녀양육비가 적은 수치로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 번째 방법은 최소 자녀양육비 개념으로, 법정이혼소송 시 자녀양육비 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가정생산의 위성계정표를 응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한 결과 자녀양육생산물은 총가정생산물의 27%, 우리나라 전체 GDP 의 1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녀양육비용이 자녀양육에의 시간비용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박세경(2006)은 2003년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를 고소득가계와 저소득가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집단 내에서 식료품비 비율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여 동일한 식료품비 비율 등급 내에서 무자녀 가계와 유자녀 가계 사이의 소비 지출 차이를 자녀 양육비 규모로 제시하였다. 양육비용 추정결과 자녀 1인 양육비는 저소득가계에서 약 30만원~63만원, 고소득가계에서 약 44만원~8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는 저소득가계에서 약 36만원~78만원, 고소득가계에서 약 59만원~135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경옥(2005)은 자녀 1인으로 출산을 완료한 가정을 저출산가계로 보고 저출산가계의 경제구조 및 행태가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출산 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 지출 수준이 높고 자녀 양육비와 자녀 교육비에 모두 유의하게 높은 소득 탄력성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 대해 높은 소비 욕구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2007)은 아동 양육 지출 추계 방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아동 양육 지출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목적 하에 무슨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아동 양육 지출비용 추계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양육비에 대한 법학계의 논의로 차선자(2006)는 판례 분석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 범위, 양육비의 지급액수를 분석하고,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통상의 양육비와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재산상태 및 수입 등을 주된 양육비 산정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며, 아동의 입장에서 양육수요를 파악하고, 사적 양육비 지원과 공적 부조를 분리하여 논의하며, 직접 양육자의 현실에 대하여 배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월 30만원으로 결정한 비율이 38.2%, 월 50만원이 35.2%, 월 40만원이 16.6%로 나타나 월 30만원~50만원으로 결정된 사례가 전체의 89.9%이다.

손승은(2005)은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혁을 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개정된 연방명령에 따라 주정부의 지침들은 반드시 부재중인 부모의 모든 수입을 고려하고, 특정의 기술적이고 숫자적인 표준에 기초하여 양육비의무는 산술적 수치로 산출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들의 건강보험 보상범위를 통해 아동의 건강관리 필요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각 주 정부는 자녀양육비 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지침을 법령으로 제정한 주는 25개주이며, 행정규칙으로 제정한 주는 8개주, 법원규칙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제정한 주는 18개 주이며, 각 주는 수입할당모델, 수입비율모델, Melson 공식 모델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다.

전경근·차선자(2005)와 박복순(2005) 역시 제 외국의 양육비 확보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개정아동부양법(Child Support Amendment 1984, P.L. No.98~378.), 영국의 자녀양육비·연금·사회보장법(The 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독일의 자녀양육비법(Knidesunterhaltgesetz), 일본의 동경·오사카 양육비 등 연구회에서 제안한 기준을 소개하였다.

이동국(2005)은 일본에서 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인 안분배분형 중 생활정도비율법의 공식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적용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4. 정책 시사점

양육비용 추계 방법과 국내외 자녀 양육비 추계 등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자녀 양육비 산출의 필요성이다.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미국의 USDA, 호주의 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자녀 양육비 산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도 2008년에 내각부가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아동수당 확대를 배경으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 추정치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가 낮다. 그러나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이 도입되었으며 향후 미혼부 양육비 청구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 추계 필요성이 있다. 실로 미국과 호주의 경우 아동 양육비에 대한 추계는 이혼한 부부 일방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가 산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다.

둘째, 양육비 추정 방법, 추정 기준의 다양성 등 양육비 산출에 많은 가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추정 방법에 따른 차이는 당연한 결과의 차이를 낳겠으나 동일한 방법으로도 특정 항목의 포함여부 및 작용 비율의 차이 등으로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주도 큰 영향을 준다. 외국 사례를 보아도 미국은 소비지출 중심으로 산출하지만, 일본의 양육비 조사는 주거비나 광열비 등을 제외하였고 비소비 지출인 예·적금과 보험료를 포함하였다. 호주의 경우도 Lee가 양육비에 의료비용과 교육비용을 포함시킨 반면에 Lovering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분석 대상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특정 요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양육비용 산출은 어려운 작업으로서 여러 가지 가정 하에 조건을 달아서 양육비 지출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추계 과정에 있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외국 자료들은 한

계 비용 추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인당 비용 추정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추정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1인당 비용 추계 방법도 강한 가정과 이로 인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Ⅲ.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200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양육비와 가구소득과 가계지출 대비 비율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동 자료가 가구단위 자료이므로 가구 단위로 영유아수별, 모의 취업여부별, 소득계층별로 산출하고, 한 자녀 가구만 선별하여 아동 연령별로 산출하고자 하였다.

1. 분석 방법

통계청의 2009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가구의 월 단위 항목별 지출비용이 수록된 자료로 총량은 85,197개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국 통계치를 추정한다. 조사 대상 가구는 10,881가구로 가구당 최소 1개월에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월 단위 지출을 수록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가구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방법상의 특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월 단위 자료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구 단위로 평균값을 환산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로는 가구마다 가계부를 작성한 월수가 다르고, 가중치 적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월 단위로 가구원 사항이나 취업 등 주요한 특성에도 변동이 있어서 분류 기준 적용에 애로 등이 있어서 월단위 분석을 선택하였다.

둘째, 분석 대상 가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설정시에 고려한 변수는 가구주 연령, 세대, 영유아수이다. 양육비 산출 기준 가구를 부부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로 제한하였다. 즉, 영유아가 1인인 3인 가구, 영유아가 2인인 4인 가구, 영유아가 3인인 5인가구가 기준이다. 이는 다자녀 가구 중에 영유아가 있다 하여도 다른 형제 자매의 연령대가 다양함에서 나타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비교 집단으로 1세대 2인 가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가구주 연령은 50세 미만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연령별 양육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유아 자녀가 1인인 3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양육비 산출방법은 부분적으로 1인당 비용추계방법(per Capita Method)을

적용하는 미국의 USAD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소비지출 항목을 영유아에게만 해당되는 고유 항목과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이들 대상에게만 소비된 것으로 보고 이외 지출항목은 가족 공동 항목 지출로 가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영유아 품목 지출은 영유아수로 나누고 가족 공동 지출비는 가구원 수로 나누어 합하는 방법이다. 해당 가구원의 비중이 동등하다는 가정이다. 성인용 지출 항목은 양육비 산출시에는 제외하였다. 이 경우 성인에게만 지출된 항목은 제외된다.

$$\text{영유아 1인당 양육비} = (\text{영유아 해당 품목 지출비} / \text{영유아수}) + (\text{가족 공동 해당 품목 소비지출비} / \text{가구원 수})$$

소비 지출 품목 중 영유아 고유 품목은 분유, 이유식, 아동내의, 아동외의, 아동화, 장난감, 유아용학습교재교구, 유치원 교육비,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 보육료로 추정하였다. 아동내의, 아동외의, 아동화, 장난감,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는 학동기 아동에게도 적용되지만 본 분석 대상 가구를 영유아 가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포함하였다. 한편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품목은 주류, 담배, 남성용외의, 여성용외의, 와이셔츠, 남성용내의, 여성용내의, 평생교육, 성인학습교육,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대학원, 주점·커피, 유흥비 이다.

영유아 양육비 추정은 아동 1인당 및 가구당으로 산출하고 가구 경상소득 대비 가계지출비율과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비율을 산정하였다.

〈표 III-1-1〉 영유아 및 성인 소비지출 항목

대분류	영유아	성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분유, 이유식	-
주류 및 담배	-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	아동내의, 아동외의, 아동화	남성·여성용외의, 와이셔츠, 남성·여성용내의
오락·문화	장난감, 유아용학습교재교구	-
교육	유치원 교육비,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	평생교육, 성인학습교육,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대학원
음식·숙박	-	주점·커피
기타 상품 및 가사서비스	보육료	유흥비

주: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소비지출은 공통비용으로 간주

2.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양육비 산출 이전에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 수준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가구원 및 영유아 수별로 살펴보고, 부모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만을 선별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을 알아보았다.

가. 가구원수별 소득 및 지출

먼저 가구원 및 영유아 수별로 나누어서 가구주 연령, 소득, 경상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수준을 제시하였다.

<표 Ⅲ-2-1>은 1세대 2인 가구와 2세대 3인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가 있는 2세대 3인 가구 가구주 연령은 평균 33세이다. 2세대 3인 가구 중 영유아가 없거나 1인 있는 경우의 소득 대비 가계 및 소비지출 비율은 각각 83%, 64%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세대 3인 가구 중 영유아가 2인인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 및 소비지출 비율은 각각 90.3%, 74.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가 2인인 2세대 3인 가구, 즉 영유아가 2명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소득 대비 가계 및 소비지출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지출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소득이 낮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1세대 2인 및 2세대 3인 가구

단위: 천원, %(가구)

구분	1세대 2인가구		2세대 3인 가구					
			영유아 없음		영유아 1인		영유아 2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주 연령			42.3	5.5	33.9	4.1	33.1	5.2
소득·지출								
소득	3,552	(3,267)	3,413	(2,242)	3,671	(3,328)	3,271	(2,724)
경상소득(A)	3,365	(2,063)	3,332	(2,100)	3,387	(1,923)	2,882	(2,251)
가계지출(B)	2,499	(2,078)	2,771	(1,980)	2,793	(2,052)	2,602	(1,922)
소비지출(C)	1,824	(1,770)	2,149	(1,579)	2,141	(1,771)	2,145	(1,742)
비율(B/A)	74.3		83.2		82.5		90.3	
비율(C/A)	54.2		64.5		63.2		74.4	
(수)	(644,068)		(4,308,709)		(2,834,033)		(66,503)	

<표 III-2-2>는 2세대 4인 가구 중 영유아수에 따른 소득과 지출을 나타낸다. 소득 대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은 영유아가 없는 4인 가구이고, 영유아가 2인 있는 2세대 4인 가구가 영유아가 1인 있는 가구보다 소득 대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출 수준은 비슷하나 소득이 낮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인 핵가족에서 영유아기 자녀가 없으면 자녀는 모두 학생이거나 그 이상 연령일 것이다.

<표 III-2-2>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2세대 4인 가구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없음		영유아 1인		영유아 2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주 연령	42.8	(4.1)	37.6	(3.30)	34.8	(3.7)
소득·지출						
소득	4,032	(2,497)	3,831	(2,175)	3,539	(2,048)
경상소득(A)	3,941	(2,284)	3,726	(2,007)	3,382	(1,801)
가계지출(B)	3,469	(2,399)	3,072	(1,624)	2,892	(1,899)
소비지출(C)	2,727	(2,040)	2,386	(1,351)	2,267	(1,699)
비율(B/A)	88.0		82.5		85.5	
비율(C/A)	69.2		64.0		67.0	
(수)	(8,949,019)		(2,095,209)		(2,052,095)	

<표 III-2-3>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2세대 5인 가구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없음		영유아 1인		영유아 2인		영유아 3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주 연령	43.4	(4.2)	39.7	(3.4)	35.7	(2.8)	36.8	(3.0)
소득·지출								
소득	3,914	(2,208)	4,146	(3,569)	3,945	(2,063)	3,166	(1,447)
경상소득(A)	3,794	(1,967)	3,951	(3,178)	3,832	(2,024)	3,021	(1,406)
가계지출(B)	3,553	(2,117)	3,483	(2,506)	3,122	(1,177)	2,813	(1,571)
소비지출(C)	2,859	(1,847)	2,805	(2,146)	2,481	(997)	2,298	(1,357)
비율(B/A)	93.6		88.1		81.5		93.1	
비율(C/A)	75.3		71.0		64.7		76.1	
(수)	(1,311,219)		(732,654)		(241,931)		(101,591)	

<표 III-2-3>은 2세대 5인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보여준다. 우선 소득 수치로만 파악해 보자면, 2세대 3인 가구 중 영유아를 2인 둔 가구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많이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가 2인 있는 5인 가구와 영유아가 3인 있는 5인 가구의 차이는 역시 지출의 차이이기보다는 소득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대비 지출 양상은 소득 대비 가계지출이 약 93%, 경상소득대비 소비지출이 70% 중반으로 영유아가 없는 2세대 5인 가구와 영유아가 3인 있는 가구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나. 부부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 소득과 지출

앞에서 살펴본 가구 중에서 1세대 2인 가구와 부부 및 영유아로만 구성된 가구를 선별하여 소득과 지출은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선별된 가구는 영유아가 1인인 3인 가구, 영유아가 2인인 4인 가구, 영유아가 3인인 5인가구이다.

1) 전체 가구

가) 영유아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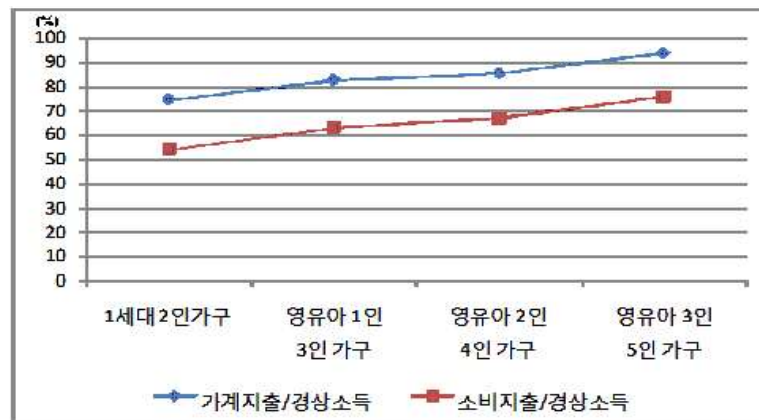
<표 III-2-4>에서 영유아 가구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낮아지고 지출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영유아가 1명인 3인 가구 경상소득은 338만7천원이고 소비지출은 214만1천원으로 비율은 63.2%이다. 영유아가 2명인 4인 가구 경상소득은 338만9천원이고 소비지출은 226만8천원으로 비율은 66.9%이다. 영유아가 3명인 5인 가구 경상소득은 310만5천원이고 소비지출은 236만원으로 지출 대비 비율은 76.0%이다. 소득만 보면 3자녀 가구의 경상소득이 비교하는 가구 중에서 가장 낮아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다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유아가 없는 성인 2인 가구와 비교하여 지출 금액이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지출 금액과 소득대비 지출은 영유아 수가 증가에 따라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특히 영유아 3인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이 93.7%에 이른다. 성인 2인과 영유아 1인으로 이루어진 3인 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은 성인 2명으로 구성된 1세대 2인 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보다 가계지출은 약 8%, 소비지출은 약 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1 참조).

〈표 III-2-4〉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단위: 천원, %(가구)

구분	1세대 2인가구		2세대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득	3,552	(3,267)	3,671	(3,328)	3,548	(2,067)	3,229	(1,504)
경상소득(A)	3,365	(2,063)	3,387	(1,923)	3,389	(1,815)	3,105	(1,487)
가계지출(B)	2,499	(2,078)	2,793	(2,052)	2,895	(1,914)	2,908	(1,657)
소비지출(C)	1,824	(1,770)	2,141	(1,771)	2,268	(1,712)	2,360	(1,431)
비율(B/A)	74.3		82.5		85.4		93.7	
비율(C/A)	54.2		63.2		66.9		76.0	
(수)	(644,068)		(2834,033)		(2,052,095)		(101,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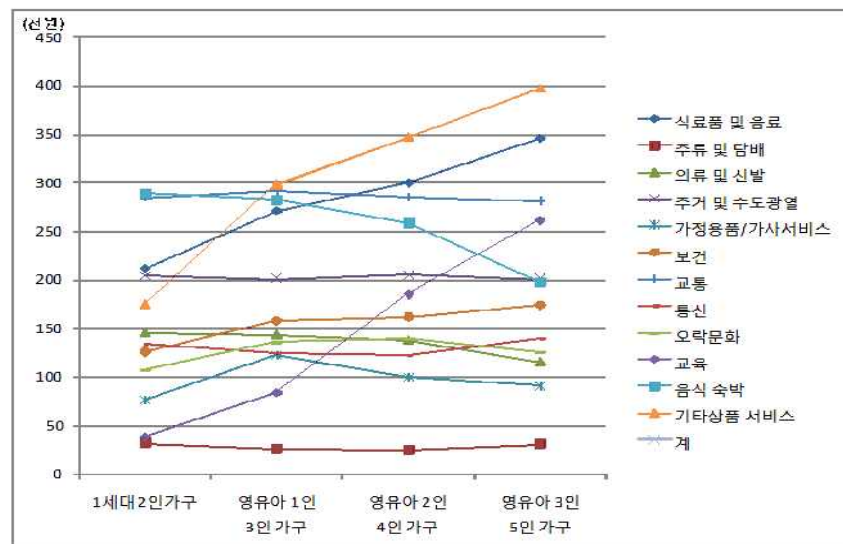
〔그림 III-2-1〕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다음은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과 총 지출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표 III-2-5>를 보면,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같은 관리비성 소비지출은 영유아수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으나, 교육비는 영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8만5천원 정도씩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료품 및 음료, 보건 비용도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보육료나 기저귀가 포함이 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영유아가 3인인 5인 가구의 경우 자녀 중에는 영영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상품서비스 비용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2-5〉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1세대 2인가구		2세대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식료품 및 음료	211	(131)	271	(139)	300	(135)	346	(153)
주류 및 담배	32	(44)	26	(37)	25	(35)	31	(30)
의류 및 신발	146	(199)	144	(179)	138	(164)	115	(159)
주거 및 수도광열	204	(246)	201	(209)	205	(173)	201	(16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76	(244)	123	(291)	100	(220)	91	(205)
보건	126	(339)	158	(292)	162	(283)	174	(284)
교통	284	(1,288)	292	(1,326)	285	(1,391)	281	(1,177)
통신	134	(74)	125	(61)	123	(53)	140	(55)
오락문화	108	(291)	136	(247)	140	(252)	126	(185)
교육	38	(314)	84	(243)	185	(336)	261	(288)
음식 숙박	290	(207)	283	(253)	259	(175)	198	(148)
기타상품 서비스	175	(388)	298	(501)	347	(427)	397	(282)
계	1,824	(1,770)	2,141	(1,771)	2,268	(1,712)	2,360	(1,431)
(수)	(644,068)		(2,834,033)		(2,052,095)		(101,591)	



[그림 III-2-2]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반면,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된 항목으로는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음식 및 숙박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증가하면서 지출의 증가가 필요한 항목이 생김에 따라 나타난 대체효과로, 의복류는 물려 입고 외식비는 줄이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의 항목별 백분율은 지출 금액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유사하다. 교육비는 영유아 1명 3.9%, 2명 8.2%, 3명 11.1%로 증가하였고, 보육료나 기저귀가 포함이 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도 영유아 1명 13.9%, 2명 15.3%, 3명 16.8%로 증가하였다. 식료품은 자녀에 많아짐에 따라 소비지출 비율면에 있어서도 다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식 숙박, 의류 신발은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였다. 오락 문화도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소비 지출 양상의 변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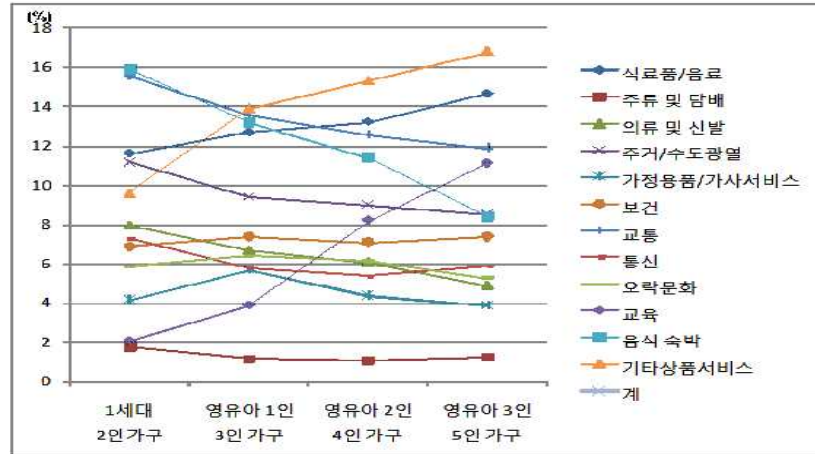
즉, 2세대 가구 내에서 영유아 자녀가 많아질수록 교육, 기타상품에 있어서는 소비지출 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비율에 있어서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의류 및 신발, 음식 숙박은 소비지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세대 2인 가구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 숙박으로 16.4%이고, 자녀가 있는 2세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상품 서비스이다.

〈표 III-2-6〉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단위: %(가구)

구분	1세대 2인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식료품·음료	11.6	12.7	13.2	14.7
주류 및 담배	1.8	1.2	1.1	1.3
의류 및 신발	8.0	6.7	6.1	4.9
주거·수도광열	11.2	9.4	9.0	8.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2	5.7	4.4	3.9
보건	6.9	7.4	7.1	7.4
교통	15.6	13.6	12.6	11.9
통신	7.3	5.8	5.4	5.9
오락문화	5.9	6.4	6.2	5.3
교육	2.1	3.9	8.2	11.1
음식 숙박	15.9	13.2	11.4	8.4
기타상품서비스	9.6	13.9	15.3	16.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644,068)	(2,834,033)	(2,052,095)	(101,591)



[그림 III-2-3]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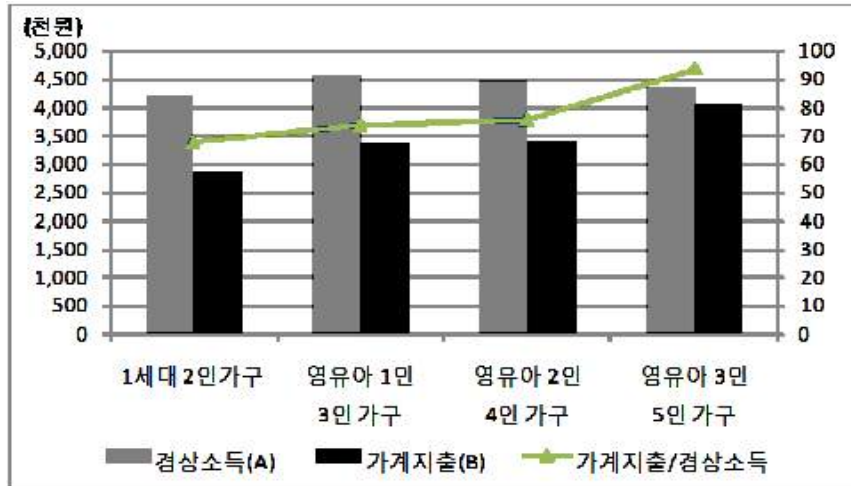
2) 맞벌이 가구

다음은 맞벌이 가구만을 선별하여 1세대 2인가구와 2세대 영유아 가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2-7>, [그림 III-2-7]과 같다.

<표 III-2-7>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단위: 천원, %(가구)

구분	1세대 2인가구		2세대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득	4,322	(2,243)	4,869	(3,776)	4,567	(2,188)	4,332	(603)
경상소득(A)	4,204	(2,040)	4,567	(2,167)	4,474	(2,103)	4,332	(603)
가계지출(B)	2,850	(2,117)	3,371	(2,312)	3,387	(1,979)	4,064	(748)
소비지출(C)	2,009	(1,847)	2,505	(2,012)	2,636	(1,768)	3,138	(610)
비율(B/A)	67.8		73.8		75.7		93.8	
비율(C/A)	47.8		54.8		58.9		72.4	
(수)	(644,068)		(912,622)		(485,634)		(5,851)	



[그림 III-2-4]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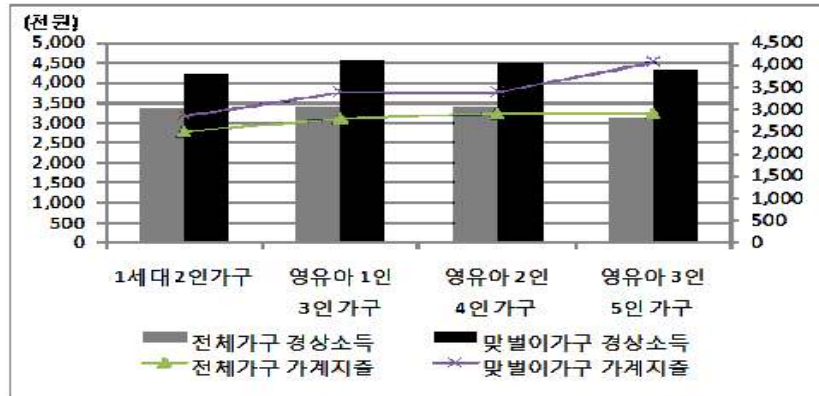
2세대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 역시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낮아지지만 한편 지출은 증가하여 소득 대비 대 지출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성인 2인과 영유아 3인의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가계지출의 비율이 93.8%에 이르러, 가계 수입을 거의 축적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세대 2인가구의 소득은 성인 2인과 영유아 3인의 가구와 비슷하나, 가계지출은 그에 비해 약 70%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1세대 2인 가구와 부부 및 영유아로만 구성된 전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표 III-2-8>과 같다.

<표 III-2-8> 일반 및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비교

단위: 천원, %(가구)

구분		1세대 2인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전체 가구	경상소득	3,365	3,387	3,389	3,105
	가계지출	2,499	2,793	2,895	2,908
	가계지출/경상소득 비율	74.3	82.5	85.4	93.7
맞벌이 가구	경상소득	4,204	4,567	4,474	4,332
	가계지출	2,850	3,371	3,387	4,064
	가계지출/경상소득 비율	67.8	73.8	75.7	93.8



[그림 III-2-5] 일반 및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비교

맞벌이 가구와 전체를 비교해 보면, 맞벌이 가구는 경상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1,000,000원 이상이 많으며, 가계지출 역시 많았고 특히 맞벌이 영유아 3인 가구는 전체 영유아 3인 가구에 비해 1,150,000원 이상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은 영유아가 3인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맞벌이 가정이 전체 가구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에서 맞벌이 2세대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을 보면, 전체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내 영유아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식료품·음료, 기타상품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전체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양상과 다르게 나타난 항목을 보면, 일반 2세대 가구에서는 의류 및 신발 항목 지출이 영유아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 감소한 반면 맞벌이 2세대 가구의 경우는 증가하였으며, 오락 문화의 경우도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 맞벌이 가구는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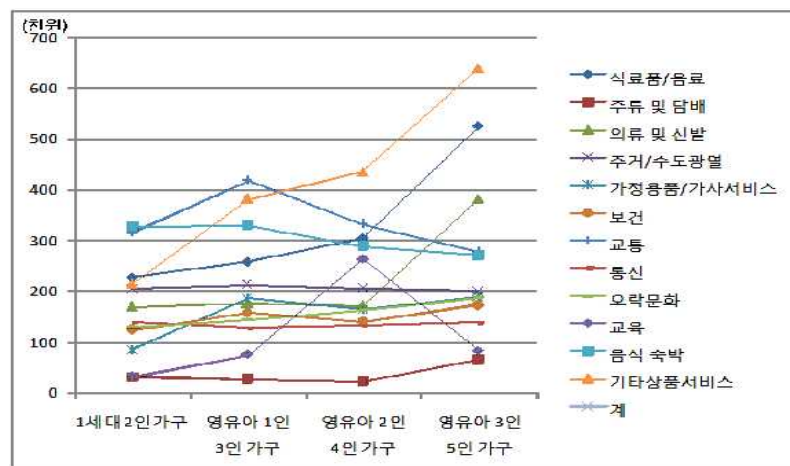
또한 전체에서는 교육 항목이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서는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영유아 1인을 둔 가구는 일반 가구와 교육에 대한 지출이 비슷하고, 영유아 2인을 둔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8만원정도 더 지출을 많이 하나(전체 가구의 1.4배 수준), 영유아 3인 가구에서는 전체 가구보다 18만원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전체 가구의 32% 수준). 이러한 결과를 앞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결과와 연결지어보면, 영유아가 1인 또는 2인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경상소득 대비 가계지출이 75% 전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나,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경상소득 대비 가계지출

이 90%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지출의 여유가 없어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II-2-9〉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1세대 2인가구		2세대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식료품·음료	228	(137)	259	(130)	306	(152)	525	(115)
주류 및 담배	32	(45)	28	(41)	24	(33)	67	(22)
의류 및 신발	170	(214)	176	(194)	172	(194)	382	(219)
주거·수도광열	206	(304)	214	(280)	207	(166)	201	(7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86	(277)	188	(341)	165	(302)	190	(165)
보건	126	(348)	159	(274)	142	(241)	174	(62)
교통	316	(1,308)	419	(1,735)	333	(1,498)	278	(61)
통신	140	(77)	129	(61)	134	(53)	139	(28)
오락문화	130	(352)	145	(268)	164	(308)	189	(113)
교육	33	(296)	76	(189)	265	(324)	84	(103)
음식 숙박	329	(221)	331	(259)	290	(165)	272	(85)
기타상품서비스	216	(420)	382	(403)	435	(328)	638	(352)
계	2,009	(1,847)	2,505	(2,012)	2,636	(1,768)	3,138	(6,102)
(수)	(644,068)		(912,622)		(485,634)		(5,851)	



〔그림 III-2-6〕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표 III-2-10〉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단위: %(가구)

구분	1세대 2인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식료품·음료	11.3	10.3	11.6	16.7
주류 및 담배	1.6	1.1	0.9	2.1
의류 및 신발	8.5	7.0	6.5	12.2
주거·수도광열	10.3	8.5	7.9	6.4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3	7.5	6.3	6.1
보건	6.3	6.3	5.4	5.5
교통	15.7	16.7	12.6	8.9
통신	7.0	5.1	5.1	4.4
오락문화	6.5	5.8	6.2	6.0
교육	1.6	3.0	10.1	2.7
음식 숙박	16.4	13.2	11.0	8.7
기타상품서비스	10.8	15.2	16.5	20.3
계	100.0	100.0	100.0	100.0
(수)	(644,068)	(912,622)	(485,634)	(5,851)

다. 부부와 한 자녀 영유아 가구

다음은 부부와 한 자녀 가구를 선별하여 자녀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근에 한 자녀를 출산하고 추가 출산을 꺼려하는 부모들이 상당수인데 그 이유가 대부분 양육비 부담이다. 앞의 분석에서 자녀수가 많아진다고 양육비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증가는 다른 항목의 지출 감소를 불러온다. 이에 한 자녀 가구를 선정하여 연령별 가구 지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가 1인인 3인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보면 0세는 65.4%, 1세는 62.3%, 2세는 58.9%, 3세는 65.2%, 4세는 66.3%, 5세는 64.9%로, 만 0세 때 지출 비율이 크고 1세와 2세로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지만, 3세 유아때 큰 폭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II-2-11 참조).

〈표 III-2-11〉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소득과 지출

단위: 천원, %(가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소득	4,147 (5,721)	3,406 (1,908)	3,595 (2,149)	3,809 (2,268)	3,572 (2,571)	3,140 (1,346)
경상소득(A)	3,379 (1,962)	3,282 (1,750)	3,469 (2,050)	3,719 (2,261)	3,268 (1,732)	3,056 (1,298)
가계지출(B)	2,899 (1,942)	2,669 (2,118)	2,683 (1,697)	3,142 (3,044)	2,807 (1,481)	2,546 (1,132)
소비지출(C)	2,210 (1,569)	2,045 (1,889)	2,044 (1,463)	2,426 (2,685)	2,166 (1,277)	1,982 (878)
비율(B/A)	85.8	81.3	77.3	84.5	85.9	83.3
비율(C/A)	65.4	62.3	58.9	65.2	66.3	64.9
(수)	(660,844)	(718,837)	(621,735)	(380,996)	(255,368)	(196,254)

주: ()는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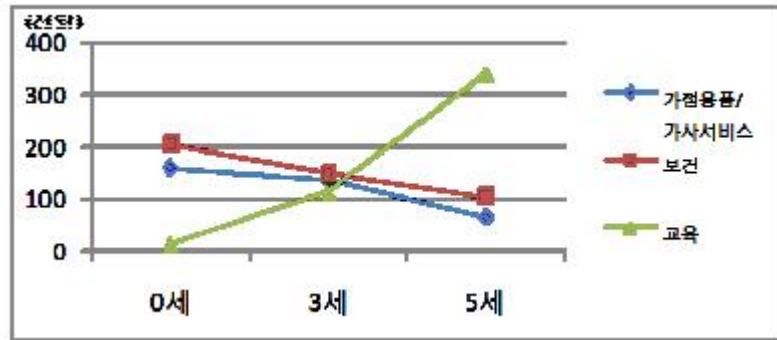
〈표 III-2-12〉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식료품 및 음료	286	276	266	266	262	240
주류 및 담배	26	27	24	28	27	28
의류 및 신발	153	141	127	155	164	132
주거 및 수도광열	206	197	183	223	191	22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59	109	127	138	82	66
보건	205	165	148	149	100	105
교통	279	287	294	406	234	197
통신	131	128	122	122	124	103
오락문화	138	144	138	135	126	108
교육	13	35	61	113	226	339
음식 숙박	289	278	258	336	293	253
기타상품 서비스	325	259	297	354	338	190
계	2,210	2,045	2,044	2,426	2,166	1,982
(수)	(660,844)	(718,837)	(621,735)	(380,996)	(255,368)	(196,254)

〈표 III-2-13〉은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을 통해 이러한 지출 추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난 0세와, 유아기에 접어든 3세, 취학전 5세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육의 항목에서 세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의 소비지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0세때는 보육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상품 서비스와 예방접종 등으로 보건 관련 지출이

크고 3세와 5세로 가면서 줄어들지만, 반면 교육에 대한 지출은 0세때는 1만3천원이었다가 3세때는 11만3천원, 5세때는 33만9천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 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교육비의 지출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7]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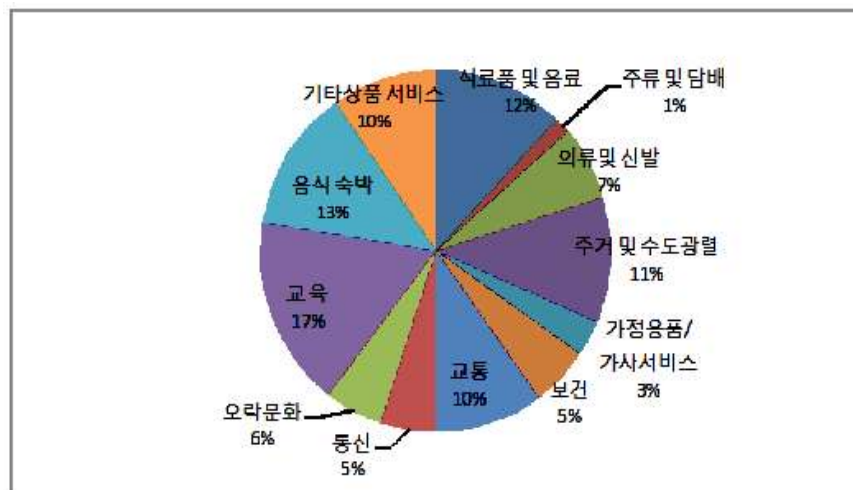
〈표 III-2-13〉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

단위: %(가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식료품 및 음료	12.9	13.5	13.0	11.0	12.1	12.1
주류 및 담배	1.2	1.3	1.2	1.2	1.2	1.4
의류 및 신발	6.9	6.9	6.2	6.4	7.6	6.7
주거 및 수도광열	9.3	9.6	9.0	9.2	8.8	11.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7.2	5.3	6.2	5.7	3.8	3.3
보건	9.3	8.1	7.2	6.1	4.6	5.3
교통	12.6	14.0	14.4	16.7	10.8	9.9
통신	5.9	6.3	6.0	5.0	5.7	5.2
오락문화	6.2	7.0	6.8	5.6	5.8	5.4
교육	0.6	1.7	3.0	4.7	10.4	17.1
음식 숙박	13.1	13.6	12.6	13.8	13.5	12.8
기타상품 서비스	14.7	12.7	14.5	14.6	15.6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60,844)	(718,837)	(621,735)	(380,996)	(255,368)	(196,254)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로 소비지출의 항목별 비율을 보면, 만 0세에서 4세까지는 필수재인 식비와 기저귀 비용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서비스 이외에 영유아 소

비지출 항목과 관련 없는 항목인 교통, 음식 숙박 등이 전체 소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많아져 만 5세 자녀 가구에서는 교육비가 17.1%로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 상품서비스, 보건 비용 지출은 감소한다.



[그림 III-2-8] 만 5세 가구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

외국 사례로 일본의 양육비 산출결과와는 항목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산출한 총 연령별 양육비 및 보육비 변동 사례도 유아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은 본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제2장 표 II-2-12 참조).

2) 맞벌이 가구

한자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연령에 따른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상소득 대비 가계지출도 늘어나지만, 갓 태어난 만0세와 유아기로 접어드는 만3세때는 다른 연령 때보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 경향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도 유사하다(표 III-2-14 참조).

<표 III-2-15>는 항목별 소비지출 금액으로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식료품·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에서 만0세 가구와 만3세 가구의 지출이 많았으며, 교육비의 경우 자녀가 유아기에 접어들어 따라 지출

액수가 30만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교통,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비용 등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만5세가 교육비 30만원 수준은 전체 평균 교육비 지출 34만원과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표 III-2-14〉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소득과 지출

단위: 천원, %(가구)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소득	5,530 (6,765)	4,820 (2,130)	4,830 (2,434)	4,948 (2,199)	4,351 (2,133)	3,874 (1,499)
경상소득(A)	4,678 (2,369)	4,695 (2,072)	4,685 (2,367)	4,883 (2,189)	4,090 (1,625)	3,760 (1,438)
가계지출(B)	3,634 (2,539)	3,222 (1,939)	3,278 (2,302)	4,042 (3,404)	3,031 (1,309)	2,786 (1,021)
소비지출(C)	2,696 (2,179)	2,401 (1,773)	2,411 (2,055)	2,976 (2,915)	2,274 (1,130)	2,148 (7,690)
비율(B/A)	77.7	68.6	70.0	82.8	74.1	74.1
비율(C/A)	57.6	51.1	51.5	60.9	55.6	57.1
(수)	(206,152)	(195,297)	(220,639)	(110,200)	(111,144)	(69,190)

주: ()는 표준편차임

〈표 III-2-15〉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식료품·음료	296	237	257	269	241	234
주류 및 담배	26	31	25	24	27	38
의류 및 신발	187	167	153	211	189	158
주거·수도광열	224	172	160	377	181	27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258	167	226	205	73	78
보건	223	180	129	145	109	100
교통	475	349	463	590	312	213
통신	124	133	131	131	133	111
오락문화	152	186	126	134	124	126
교육	16	23	29	107	203	304
음식 숙박	327	330	319	388	316	313
기타상품·서비스	389	427	393	394	367	203
계	2,696	2,401	2,411	2,976	2,274	2,148
(수)	(206,152)	(195,297)	(220,639)	(110,200)	(111,144)	(69,190)

〈표 III-2-16〉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식료품·음료	11.0	9.9	10.7	9.0	10.6	10.9
주류 및 담배	1.0	1.3	1.0	0.8	1.2	1.8
의류 및 신발	6.9	7.0	6.3	7.1	8.3	7.4
주거·수도광열	8.3	7.2	6.6	12.7	8.0	12.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9.6	7.0	9.4	6.9	3.2	3.6
보건	8.3	7.5	5.4	4.9	4.8	4.7
교통	17.6	14.5	19.2	19.8	13.7	9.9
통신	4.6	5.5	5.4	4.4	5.8	5.2
오락문화	5.6	7.7	5.2	4.5	5.5	5.9
교육	0.6	1.0	1.2	3.6	8.9	14.2
음식 숙박	12.1	13.7	13.2	13.0	13.9	14.6
기타상품·서비스	14.4	17.8	16.3	13.2	16.1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06,152)	(195,297)	(220,639)	(110,200)	(111,144)	(69,190)

양육비의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도 일반 가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영아기인 0세부터 만2세까지는 보육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상품서비스 항목의 비율이 가장 크고, 유아기인 만3세부터 만5세까지는 교육비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표 III-2-16 참조).

3. 영유아 양육비 추정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가구 구성원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부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수별 가구 양육비를 산출하고, 부부와 한 자녀 가구의 연령별 양육비를 추정하였다.

가. 전체 영유아 가구

1) 영유아수별 양육비 산출

가) 전체

영유아 자녀가 있는 2세대 가구의 양육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유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C)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계 소비지출(B)이 다소 늘어나는 기본적인 양상을 보인다.

가구당 자녀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1인인 경우 85만원, 2인인 경우 132만4천원, 3인인 경우 158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구는 한 자녀 가구에 비하여 총 양육비가 77.7%가 증가하고, 세 자녀가 되면 두 자녀에 비하여 19.9%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자녀수에 따른 증가 추세는 허경옥의 2007년 연구결과인 각각 66만원, 115만원, 146만원과 유사한 양상이다.

〈표 III-3-1〉 2세대 가구 영유아수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상소득(A)	3,387	(1,923)	3,389	(1,815)	3,105	(1,487)
소비지출(B)	2,141	(1,771)	2,268	(1,712)	2,360	(1,431)
1인양육비	852	(690)	662	(453)	529	(288)
자녀 고유	232	(251)	210	(173)	189	(127)
가족 공동	621	(575)	452	(408)	339	(259)
총양육비(C)	852		1,324		1,587	
비율(C/B)	39.8		55.5		69.0	
비율(C/A)	25.2		35.5		52.5	
(수)	(2,834,033)		(2,052,095)		(101,591)	

주: 영유아 자녀가 3인인 5인가족의 경우 경상소득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저소득층의 높은 다자녀가구 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자녀 양육비용은 자녀가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가 1인인 경우 85만원, 2인인 경우 66만원, 3인인 경우 53만원이 된다. 한 자녀 대비 두 자녀는 77.6%, 세 자녀는 62.4%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겠다.

가구 경상소득 대비 총 양육비 비율은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1명 25%, 2명 36%, 3명 52%로 증가한 가운데, 실제 소비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40%, 56%, 69%로 높게 나타났다.²⁸⁾ 특히 영유아 자녀 3인의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계소비지출의 70%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및 자녀공동 양육비와 가족

28) 미국 연구의 경우 지출대비 비율을 각각 27%, 40%, 47%로 산출하였는데, 지출항목이 다르고 조사 대상 자녀 연령대가 달라서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공동의 지출비용이 모두 일관되게 줄어 자녀수가 늘어남으로 인한 양육비의 증가가 정비례가 아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자녀 양육비로 인해 가족 공동의 지출비용을 줄이는, 즉 일정 부문 가족복지 수준의 저하를 감내한 비용지출 형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의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 양육비 산출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나) 맞벌이 여부별

영유아 자녀가 있는 2세대 가구 중 성인 2인이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영유아 자녀 가구에 비해 100만원 이상 많은 400만원대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총양육비와 자녀 1인당 양육비용도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양육비는 1인 102만1천원, 2인 143만4천원, 3인 221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으로 환산하면 양육비가 1인 100만원, 2인 80만원, 3인 74만원이다. 총 양육비의 소지지출 대비 비율은 1자녀 3인가구 40.8%, 두 자녀 4인가구 54.4%이고 3자녀 5인가구 70.4%이다(표 III-3-2 참조).

〈표 III-3-2〉 2세대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수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상소득(A)	4,567	(2,167)	4,449	(2,089)	4,332	(603)
소비지출(B)	2,505	(2,012)	2,635	(1,769)	3,138	(610)
1인양육비	1,021	(717)	795	(467)	737	(148)
자녀 고유	304	(274)	293	(186)	294	(124)
가족 공동	717	(662)	502	(430)	443	(111)
총양육비(C)	1021		1434		2210	
비율(C/B)	40.8		54.4		70.4	
비율(C/A)	22.4		32.2		51.0	
(수)	(912,622)		(485,634)		(5,851)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영유아 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총양육비는 양육비는 1인 77만2천원, 2인 124만원, 3인 154만8천원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양육비용 수준이 맞벌이 가구 대비 70~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1인당 양육비가 1인 77만원, 2인 62만원, 3인 52만원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맞벌이에 비하여 18~23만원이 낮다(표

III-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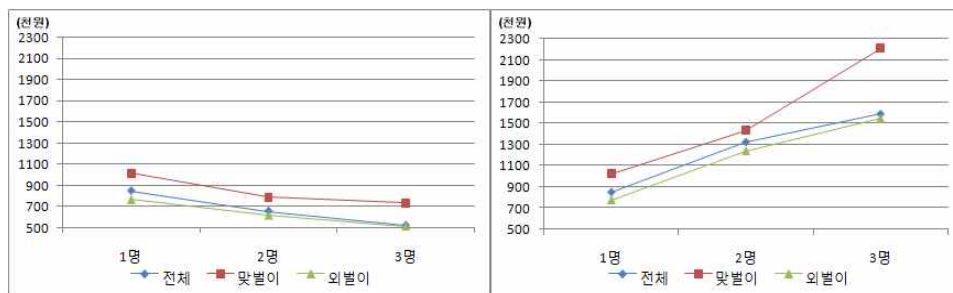
즉,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1자녀와 2자녀는 29.9%, 3인자녀 가구는 42.3%를 더 지출한다. 그러나 외벌이 가구의 총 양육비의 소지지출 대비 비율은 한 자녀 39.2%, 두 자녀 57.6%, 세 자녀 68.9%로 맞벌이 가구와 별 차이가 없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 자녀수 증가로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공동의 지출비용은 일관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자녀 고유 항목의 지출비용은 맞벌이 가구는 30만원 수준, 외벌이 가구는 18~19만원 수준에 머물러서 그 차이가 모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 고유의 양육비용의 지출이 고정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영유아 자녀 양육비가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및 외벌이 가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II-3-3〉 2세대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수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상소득(A)	2,827	(1,500)	3,050	(1,559)	2,941	(1,401)
소비지출(B)	1,968	(1,615)	2,153	(1,847)	2,247	(1,373)
1인양육비	772	(583)	620	(441)	516	(290)
자녀 고유	197	(232)	184	(160)	184	(124)
가족 공동	575	(522)	436	(399)	333	(264)
총양육비(C)	772		1240		1,548	
비율(C/B)	39.2		57.6		68.9	
비율(C/A)	27.3		40.7		52.6	
(수)	(1,921,411)		(1,566,461)		(95,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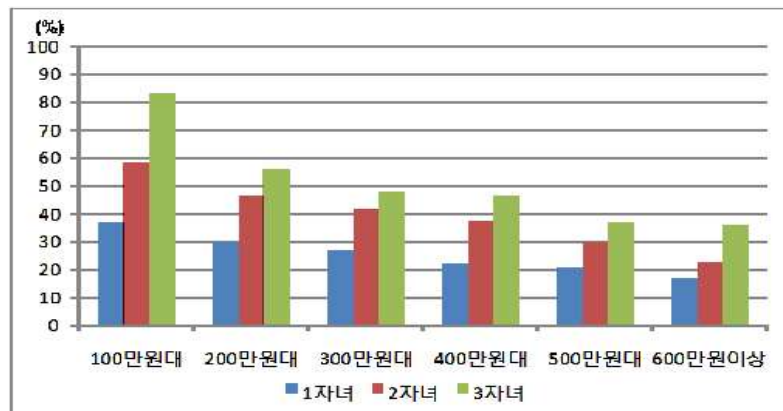


〔그림 III-3-1〕 가구유형별 자녀수별 자녀1인당 및 총 양육비

다) 소득계층별

소득계층별로 자녀수에 따른 영유아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한 자녀 가구의 경우 57만6천원에서 131만5천원, 두 자녀 가구는 48만원에서 90만6천원, 세 자녀 가구는 37만1천원에서 78만2천원으로 나타나, 자녀수 증가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줄어드는 가운데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양육비용의 증가가 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100~199만원의 저소득층에서도 총 양육비가 1인 약 58만원, 2인 약 97만원, 3인 111만원과 14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양육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2]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경상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표 III-3-4〉 소득계층별 영유아수별 양육비

단위: 천원(가구)

구분	1명	2명	3명
1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331	389	34.0
소비지출(B)	1,399	1,628	1,646
1인양육비	576	486	371
자녀 고유	175	171	105
가족 공동	401	315	265
총양육비(C)	576	973	1,112
소비지출대비 비율(C/B)	41.1	59.7	67.5
경상소득대비 비율(C/A)	173.8	250.3	3,265.4
(수)	(84,060)	(59,672)	(8,443)

구분	1명	2명	3명
100-2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1,591	1,658	1,686
소비지출(B)	1,491	1,681	1,992
1인양육비	585	480	466
자녀 고유	147	134	176
가족 공동	438	346	290
총양육비(C)	585	960	1,398
소비지출대비 비율(C/B)	39.3	57.1	70.2
경상소득대비 비율(C/A)	36.8	57.9	82.9
(수)	(402,231)	(268,840)	(11,610)
200-3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2,476	2,487	2,482
소비지출(B)	1,808	1,954	2,017
1인양육비	729	572	460
자녀 고유	208	183	158
가족 공동	521	389	302
총양육비(C)	729	1,145	1,381
소비지출대비 비율(C/B)	40.3	58.6	68.5
경상소득대비 비율(C/A)	29.4	46.0	55.6
(수)	(928,433)	(683,020)	(28,737)
300-4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3,443	3,443	3,429
소비지출(B)	2,316	2,479	2,408
1인양육비	919	717	541
자녀 고유	250	219	170
가족 공동	669	497	371
총양육비(C)	919	1,433	1,624
소비지출대비 비율(C/B)	39.7	57.8	67.4
경상소득대비 비율(C/A)	26.7	41.6	47.4
(수)	(691,637)	(468,552)	(24,935)
400-5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4,472	4,378	4,326
소비지출(B)	2,412	2,747	2,895
1인양육비	989	812	668
자녀 고유	302	273	243
가족 공동	687	538	425
총양육비(C)	989	1,624	2,004
소비지출대비 비율(C/B)	41.0	59.1	69.2
경상소득대비 비율(C/A)	22.1	37.1	46.3
(수)	(323,689)	(281,343)	(18,774)

구분	1명	2명	3명
500-6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5,393	5,388	5,090
소비지출(B)	2,917	2,724	2,437
1인양육비	1,118	793	619
자녀 고유	254	254	359
가족 공동	864	539	260
총양육비(C)	1,118	1,585	1,858
소비지출대비 비율(C/B)	38.3	58.2	76.2
경상소득대비 비율(C/A)	20.7	29.4	36.5
(수)	(159,913)	(142,902)	(7,253)
600만원 이상			
경상소득(A)	7,955	7,999	6,564
소비지출(B)	3,371	3,068	3,490
1인양육비	1,315	906	782
자녀 고유	322	299	219
가족 공동	993	607	562
총양육비(C)	1,315	1,811	2,345
소비지출대비 비율(C/B)	39.0	59.0	67.2
경상소득대비 비율(C/A)	16.5	22.6	35.7
(수)	(244,072)	(144,220)	(1,839)

400만원 이상의 소득 가정에서는 소득수준별로 한 자녀 1인 양육비가 400만원대 소득 99만원, 500만원대 소득 112만원, 600만원 이상 소득 132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한 자녀 1인 양육비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양육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가구경상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III-3-3]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비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인 40%, 2인 58%, 3인 약 7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나. 한 자녀 3인 가구 자녀연령별 양육비

1) 전체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 자녀 3인가구를 기준으로 자녀연령별 양육비를 살펴보았다. 부부와 한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양육비를 산출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료의 제약으로 전체 영유

아의 연령별 양육비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한 자녀 출산 이후 후속 출산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녀 가구가 느끼는 영유아 양육비 부담은 추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한 자녀 출산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자녀 가구의 양육비를 추정하였는데, 이들 가구는 소득수준이 평균 300만원대로 나타났으며, 만5세 자녀 표집가구에서 가구소득과 지출이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3인 가구 기준 영유아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0세 자녀 1인에게 81만2천원에서, 만3세 101만8천원, 만5세 9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 접어드는 만3세의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영유아기 전체에 걸쳐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0~만2세의 영아기 자녀보다 만3~5세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자녀 1인당 및 자녀공동 양육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에서도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양육비용은 만5세 취학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자녀 1인 양육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0세 24.0%에서 만5세 30%,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0세 36.7%에서 5세 47%로 증가하여, 만5세 자녀 1인 양육비에 가계소비지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한 자녀 3인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경상소득(A)	3,379	3,282	3,469	3,719	3,268	3,056
소비지출(B)	2,210	2,045	2,044	2,426	2,166	1,982
1인양육비(C)	812	774	822	1,018	951	924
자녀 고유	135	166	231	339	368	412
가족 공동	677	608	591	679	582	511
비율(C/B)	36.7	37.9	40.2	42.0	43.9	46.6
비율(C/A)	24.0	23.6	23.7	27.4	29.1	30.2
(수)	(660,844)	(718,837)	(621,735)	(380,996)	(255,368)	(196,254)

2) 맞벌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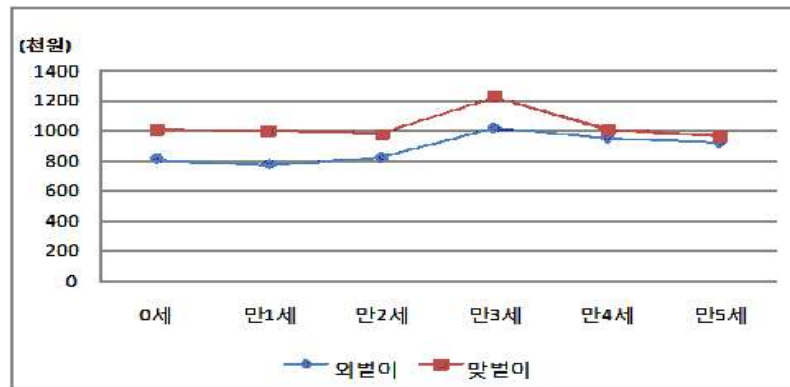
다음 <표 III-3-6>는 한 자녀 3인 가구 중 부모가 맞벌이인 가구의 자녀연령별 양육비를 나타낸다. 한 자녀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수준이 평균 400만원대인데, 만

4~5세 표집가구가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이 맞벌이 가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살펴보면, 맞벌이 한 자녀 3인 가구의 영유아 자녀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은 0세 100만9천원에서부터 만3세 122만6천원, 만5세 96만3천원으로 나타나 한 자녀 3인가구 전체 자녀 1인 양육비에 비해 10~20만원 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맞벌이 한 자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경상소득(A)	4,678	4,695	4,685	4,883	4,090	3,760
소비지출(B)	2,696	2,401	2,411	2,976	2,274	2,148
1인양육비(C)	1,009	996	977	1,226	1,008	963
자녀 고유	192	318	282	380	396	395
가족 공동	817	678	695	845	613	567
비율(C/B)	37.4	41.5	40.5	41.2	44.3	44.8
비율(C/A)	21.6	21.2	20.9	25.1	24.7	25.6
(수)	(206,152)	(195,297)	(220,639)	(110,200)	(111,144)	(69,190)



[그림 III-3-3] 한 자녀 가구 맞벌이·외벌이 연령별 양육비 추이

한 자녀 3인가구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도 만3세 가구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자녀공동 양육비용이 0~만2세의 영아기 자녀보다 만3~5세의 유아기 자녀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1인당 양육비에서는 영·유아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 및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은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만5세 취학 전에 이르면 가구소득대비 36%, 소비지출대비 45%의 비율로 양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수준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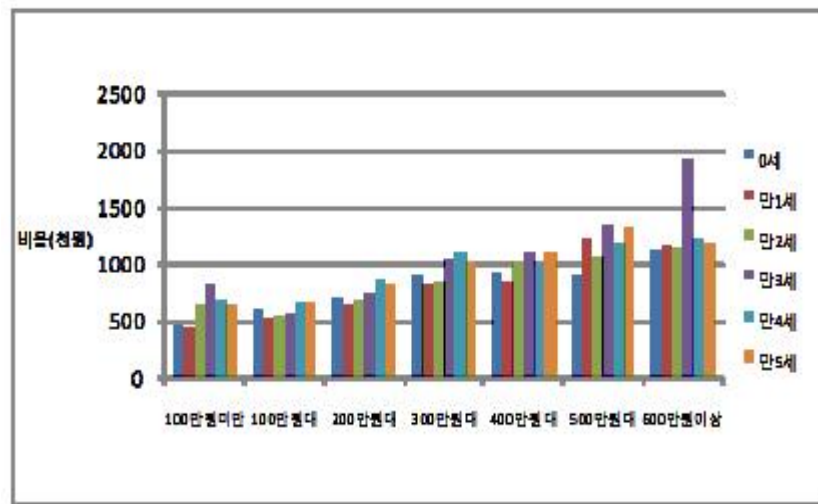
다음 <표 Ⅲ-3-7>, [그림 Ⅲ-3-4]는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 1인 양육비용을 나타낸다. 소득계층별로 한 자녀 3인 가구의 양육비용을 자녀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가족 공동 양육비용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대체로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영아기 자녀에 비해 다소 많게 나타난 가운데 월 평균소득 100~300만원대 가구의 경우 영아기 내에서 특히 0세의 양육비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 및 출산 이후 돌 이전에 드는 양육비용과 가족행사비, 그 외 돌봄의 비용이 영아기 돌 이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지출이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3-7〉 소득계층별 한 자녀 3인 가구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1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309	356	236	300	451	624
소비지출(B)	1,329	1,277	1,434	1,805	1,604	1,381
1인양육비(C)	481	460	658	834	688	662
자녀 고유	65	73	274	359	244	303
가족 공동	416	387	384	475	444	359
비율(C/B)	36.2	36.0	45.9	46.2	42.9	47.9
비율(C/A)	155.5	129.3	278.1	277.8	152.5	106.0
(수)	(19,890)	(23,641)	(23,506)	(6,357)	(4,858)	(5,808)
100-2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1,591	1,574	1,637	1,643	1,535	1,510
소비지출(B)	1,634	1,449	1,405	1,300	1,544	1,511
1인양육비(C)	613	533	554	578	670	679
자녀 고유	113	93	149	223	249	273
가족 공동	500	441	405	356	421	406
비율(C/B)	37.5	36.8	39.4	44.5	43.4	44.9
비율(C/A)	38.5	33.9	33.8	35.2	43.6	44.9
(수)	(113,164)	(110,234)	(80,385)	(37,610)	(36,909)	(23,930)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0-3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2,433	2,477	2,467	2,511	2,514	2,496
소비지출(B)	1,961	1,736	1,753	1,735	1,927	1,763
1인양육비(C)	716	655	695	750	867	836
자녀 교육	112	132	184	277	370	381
가족 공동	604	523	512	472	498	454
비율(C/B)	36.5	37.7	39.7	43.2	45.0	47.4
비율(C/A)	29.4	26.4	28.2	29.9	34.5	33.5
(수)	(190,662)	(210,700)	(203,864)	(149,904)	(95,459)	(77,843)
300-4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3,449	3,407	3,448	3,489	3,522	3,393
소비지출(B)	2,455	2,237	2,120	2,458	2,537	2,218
1인양육비(C)	909	838	852	1,055	1,108	1,025
자녀 교육	168	172	239	382	419	456
가족 공동	740	666	613	673	690	569
비율(C/A)	26.3	24.6	24.7	30.3	31.5	30.2
비율(C/B)	37.0	37.5	40.2	42.9	43.7	46.2
(수)	(156,971)	(213,761)	(131,338)	(78,263)	(64,805)	(46,498)
400-5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4,466	4,452	4,433	4,542	4,466	4,539
소비지출(B)	2,535	2,188	2,411	2,679	2,278	2,335
1인양육비(C)	926	860	1,034	1,112	993	1,114
자녀 교육	141	230	359	367	370	532
가족 공동	785	630	675	745	623	582
비율(C/B)	20.7	19.3	23.3	24.5	22.2	24.5
비율(C/A)	36.5	39.3	42.9	41.5	43.6	47.7
(수)	(72,803)	(67,271)	(88,023)	(43,034)	(20,364)	(32,194)
500-600만원 미만						
경상소득(A)	5,361	5,463	5,369	5,441	5,394	5,230
소비지출(B)	2,524	3,432	2,738	3,418	2,776	2,936
1인양육비(C)	916	1,236	1,079	1,358	1,194	1,327
자녀 교육	131	215	275	367	415	545
가족 공동	785	1,021	804	991	779	782
비율(C/B)	36.3	36.0	39.4	39.7	43.0	45.2
비율(C/A)	17.1	22.6	20.1	25.0	22.1	25.4
(수)	(36,830)	(159,913)	(37,194)	(16,426)	(17,422)	(5,659)
600만원 이상						
경상소득(A)	7,669	7,554	8,257	8,481	7,883	7,430
소비지출(B)	3,085	2,876	3,041	4,860	2,899	2,922
1인양육비(C)	1,122	1,175	1,158	1,937	1,223	1,184
자녀 교육	183	349	252	515	414	359
가족 공동	939	826	906	1,423	810	825
비율(C/B)	36.4	40.9	38.1	39.9	42.2	40.5
비율(C/A)	14.6	15.6	14.0	22.8	15.5	15.9
(수)	(60,973)	(56,399)	(57,426)	(49,401)	(15,551)	(4,323)



〔그림 III-3-4〕 소득수준별 자녀연령에 따른 양육비 추이

월평균가구소득 400만원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자녀 연령 및 영·유아기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3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이는 유아기 교육에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3세 시점의 비용지출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 대비 양육비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 비중의 증가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볼 수 있는데,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비율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100~400만원대 소득수준에서 30~46%이던 것이 500~600만원 소득수준에서는 14~23%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계층별로 0세 36.2~38.5%, 만5세아는 40.5~47.7%에 분포하여, 자녀 연령이 많아지면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영유아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지출과 자녀 양육비용 추정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가구소득 및 지출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수와 관련하여, 영유아 자녀가 많은 가정이 적은 가정에 비해 소득은 낮고 지출 수준은 높아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영유아가 3인 2세대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약 94%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층에서 다자녀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영유아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 기타상품 및 서비스 항목이 증가하는데, 특히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다.

둘째, 영유아 연령별 자료를 살펴보면, 자녀가 처음 출생한 만 0세와 유아기에 접어드는 만 3세때 지출 상승의 기점이 되는데, 만 0세때는 보육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상품서비스, 보건 관련 지출 많고, 이는 유아기에 들어 줄어든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출은 영아기 때는 적다가 유아기에 들어 급증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교육비의 지출이 확대됨을 알 수 있으며, 만5세 자녀 가구에서는 교육비가 1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셋째, 맞벌이 영유아 가구의 특성으로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영유아가 3인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맞벌이 가정이 전체 가정 평균보다 10%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가구와 이 중 맞벌이 가구를 비교해 보면, 교육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반 가구에서는 영유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1인당 8만5천원정도씩 교육비가 증가하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자녀가 1인일 때는 일반가구와 유사하지만 2인 일 때는 일반가구의 1.4배를 더 지출하는 양상을 보였고, 3인 일 때는 일반가구의 32%로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의 여유가 없어 교육비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부 가구가 자녀가 3인이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양육비 추정

영유아만을 둔 가구를 중심으로 추정한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영유아 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인 경우 66만원, 3

인인 경우 53만원으로 산출되어, 외국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총 양육비와 소득 및 지출대비 양육비 비중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났다. 소득대비 비율은 1인 25.2%, 2인 35.5%, 3인 52.5%이고, 지출대비 비율은 1인 39.8%, 2인 55.5%, 3인 69.0%이다. 이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투입되는 양육비용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줄어드나 자녀공동 비용과 가구공동 비용은 자녀수/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실제 투입비용과 양육비 비중면에서 늘어나므로, 다자녀가구 대상의 지원액에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맞벌이·외벌이 가구와 비교한 결과, 맞벌이가정의 경우 영유아 자녀수별 1인당 양육비가 1인 100만원, 2인 80만원, 3인 74만원이고, 외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양육비가 각각 77만원, 62만원, 52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양육비 대비 70~77%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가 별 차이가 없다. 즉, 소득 대비 일정 부분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맞벌이의 절대적 1인당 양육비가 18~23만원 높음을 나타낸다. 이는 맞벌이 자녀 비용지원의 배경을 제공한다.

셋째, 소득계층별로 영유아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총 양육비가 1인 약 58만원, 2인 약 97만원, 3인 111~14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잠정 최저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양육수당을 통한 양육지원의 적정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10만원이라는 지원액이 평균 2인 자녀 가구 1인 비용으로 환산하여도 저소득층에 요구되는 자녀 1인 최저양육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넷째,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지출 대비 양육비 비중은 일관되게 1인 약 40%, 2인 58% 내외, 3인 약 70%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여부별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양육비 추정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양육가구의 '평균' 양육비용과 저소득층이 지불하는 수준으로서의 '최저' 양육비용에 근거할 때, 영유아 자녀 양육비가 가계소득과 가구 소비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소득대비 비중이 줄어들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비의 부담이 유의미하게 큼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한 자녀 가정의 자녀 연령별 양육비 추이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유아기

비용이 영아기 양육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그리고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3세의 양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가정 월 자녀 양육비는 영아 약 90만원~106만원, 유아 약 127만원~134만 수준으로 유아교육이 본격화되는 4세 이상이 0세~3세보다 30만원 정도 상승한다. 지출대비 양육비 비용은 0세 36.7%, 5세 47% 수준으로 아동연령이 많아지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소득수준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 자녀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는 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의 경우 영아기에서 0세에 대한 양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반면에,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는 영유아기의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 지출의 차이가 없는 가운데 유아기 교육에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만3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이 증가를 보였다. 즉, 자녀가 만1세 미만의 영아기에 양육비용의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인 양육수당은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IV.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제4장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247가구가 1개월 동안 작성한 가계부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제3장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4장에서는 특정한 일부 가계부 조사의 응답자 대상 조사 결과로 총 양육비와 더불어 가계조사자료로 추정할 수 없는 항목별 양육비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공개 모집하여 응모한 가구 중에서 연구의 제한점 등을 반영하여 선별한 소수의 가구이므로 전국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사 방법과 응답자 특성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제시한 양육비용은 일정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한달 동안의 가계부 작성을 통한 응답 결과로서 사례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사 방법 및 대상

가. 조사 및 분석 방법

우리나라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등 지출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수의 표본 가구가 2010년 6월 1개월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가구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6월 한 달 동안 매일 작성한 지출 비목 자료를 가구 단위로 평균값을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특정 항목별로 비용을 지출한 가구와 지출하지 않는 가구가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상 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평균을 적용하였다. 평균 1년 중 특정 한 달 자료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소비지출 과소추정의 가능성은 있다.

둘째, 조사 및 분석 대상 가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자 선정시 고려한 변수는 영유아 유무와 모의 취업변수이었다. 그러나 분석 중 가구 단위분석에서는 가계조사 자료 분석에서와 같이 양육비 산출 기준 가구를 부부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로 제한하였다. 즉, 영유아가 1인인 3인 가구, 영유아가 2인인 4인 가구, 영유아가 3인인 5인가구가 기준이다. 이는 다자녀 가구 중에 영유아가 있다 하여도 다른 형제 자매의 연령대가 다양함에서 나타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아동연령별 양

육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동 전체 및 영유아 자녀가 1인인 3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제3장의 가계동향조사 분석과 동일한 모형이다.

셋째, 양육비 산출방법은 통계청 가계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1인당 비용추계방법(per Capita Method)을 적용하는 미국의 USAD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가계부 작성 시부터 소비지출 항목별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출인가를 기록하도록 하여 기록된 대상자에게는 성인과 자녀 구분 없이 지출액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영유아에게만 해당되는 고유 항목은 별도로 분리하여 이들 대상에게만 소비된 것으로 별도로 추정하였다. 소비 지출 품목 중 영유아에 해당되는 품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분유, 당류 및 과자류, 이유식, 의류 및 신발류,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대분류는 젖병 및 이유식기, 보건의료비는 예방접종비, 오락·문화비는 유아용 학습교재교구, 교육비는 유치원 교육비,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 기타 상품 및 가사서비스비는 아기기저귀, 물티슈, 목욕위생용품, 산모용품, 승용용품 및 외출용품, 보행완구, 돌·백일 위탁비용, 장난감, 산후조리원, 보육비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별도로 분석하였다(표 IV-1-1 참조).

〈표 IV-1-1〉 영유아 고유 지출 항목

대분류	항목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분유, 당류 및 과자류, 이유식
의류 및 신발	의류, 신발류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젖병 및 이유식기
보건의료	영유아 예방접종
오락·문화	유아용 학습교재교구
교육	유치원 교육비, 음악학원, 외국어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
기타 상품 및 가사서비스	아기기저귀, 물티슈, 목욕위생용품, 산모용품, 승용용품 및 외출용품, 보행완구, 돌, 백일 위탁비용, 장난감,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 보육비

12개 분류 중 주류와 담배는 성인용으로 한정하고,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소비지출은 모두 성인과 자녀 공통비용으로 간주하여 해당된다고 조사된 가구원에게 균등 배분하였다.

영유아 양육비 추정은 아동 1인당 및 가구당으로 산출하고 가구 경상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과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산정하였다.

나. 조사 대상 특성

본 가계부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영유아를 둔 20대~40대 부모로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주택, 학력, 직업 등 인구사회적 특성도 차이가 난다. 계층적으로는 저소득층도 소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이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구 특성

조사 대상자의 가구원 수는 2명이 3가구, 3명 118가구, 4명 106가구 5명 이상 20가구이다. 아동은 영아가 있는 가구가 177 가구이고, 유아가 있다는 가구가 121가구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39가구이다(표 IV-1-2, 표 IV-1-3 참조).

〈표 IV-1-2〉 현재 살고 있는 가구원 수

단위: 가구, %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계	평균
사례수	3	118	106	17	3	247	3.59
비율	1.2	47.8	42.9	6.9	1.2	100	

〈표 IV-1-3〉 자녀 가구원 수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영아			유아			초등학생			계
	없음	1명	2명	없음	1명	2명	없음	1명	2명	
사례수	70	160	17	126	107	14	208	31	8	247
비율	28.3	64.8	6.9	51.0	43.3	5.7	84.2	12.6	3.2	100

〈표 IV-1-4〉 가족유형

단위: 가구, %

구분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3세대 이상 가족	부모+자녀+친족	계
사례수	224	4	14	5	247
비율	90.7	1.6	5.7	2.0	100

가족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다수인 224가구이고 한부모 가구가 4가구이며, 3세대 이상이 14가구, 부모와 자녀 이외 친족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가 5가구이었다(표 IV-1-4 참조).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43.3%, 전세 38.9%, 월세가 11.2%이다. 한편 주택이 자가 아닌 경우 22가구 15.7%는 소유하는 집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가구는 자가 44.2%로 본 조사 대상의 자가 비율은 전국 수치와 유사하나 2009년 조사시 타 주택소유 비율은 8.9%이어서 결과적으로 주택 소유 비율도 본 조사 대상자가 높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7.3%로 다수이고 다세대 주택이 11.3%이다. 2009년 전국조사 아파트 거주 비율은 52.4%로 본 조사 대상 아파트 거주 비율은 매우 높다. 주택의 크기는 20평형대가 54.7%로 다수이고 26.7%는 30평형대이며 10평형대도 16.2%이다(표 IV-1-5 참조).

〈표 IV-1-5〉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단위: 가구,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주택 소유 형태			주택 규모		
자가	107	43.3	10평형대(10-19평)	40	16.2
전세	96	38.9	20평형대(20-29평)	135	54.7
전·월세(보증부 월세)	27	10.9	30평형대(30-39평)	66	26.7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1	0.4	40평형대(40-49평)	5	2.0
기타	16	6.5	50평 이상	1	0.4
주택 유형					
단독주택	11	4.5			
아파트	191	77.3			
연립주택	12	4.9			
다세대 주택	28	11.3			
영업용 건물 내 주택	5	2.0			

본 조사 대상의 가구소득은 평균 378만원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유사한 수준이지만,²⁹⁾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과 비교하면 본 조사 대상의 소득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동 조사 영유아 가구 가구소득은 평균 297만 2천원이고 도시 거주가 321만원이며, 초등학교 이하 아동가구 전체로는 314만 1천원이었다.

29) 2009년 4.4분기 근로자가구의 총 소득은 388만 6천원, 경상소득은 374만원, 근로소득은 339만54천원, 가계지출 310만원, 소비지출 235만8천원으로 제시됨(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근로소득은 월평균 312만원이고, 지출은 268만원³⁰⁾이며, 자산은 동산 평균 6,000만원, 부동산 1억2천만원으로 조사되었고, 부채는 평균 3,25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은 9가구 3.6%이었다(표 IV-1-6 참조).

〈표 IV-1-6〉 월 평균 가구 소득액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소득					
근로소득	312.55	203.647	0	1,990	247
사업소득	32.26	167.094	0	1,800	247
재산소득	24.70	267.146	0	3,800	247
공적 이전소득	8.08	25.784	0	150	247
사적 이전소득	0.97	9.974	0	150	247
총계	378.55	353.620	100	4,220	247
재산					
동산	6,648.54	7,846.210	0	58,000	246
부동산	12,063.78	21,176.874	0	250,000	246
부채	3,258.86	4,881.396	0	32,000	246
지출	268.32	157.566	30	1,300	247

〈표 IV-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단위: 가구, %

구분	해당	비해당	계
사례	9	238	247
비율	3.6	96.4	100.0

2) 부모의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 34.9세 어머니 32.4세이다. 아버지는 최소 27세에서 최고 48세, 어머니는 최소 22세에서 최고 42세 사이에 분포한다(표 IV-1-8 참조).

부모의 교육정도는 2009년 전국 영유아 가구 비율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이 54.4%로 다수이고, 그 이외 고등학교, 3년제 이하 대학

30) 가계부 조사 자료에 비하여 낮게 응답되었음. 이는 행사 등 일상적인 지출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및 대학원이 14~16% 정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어머니도 이와 유사하여 4년제 대학 이상이 46.7%로 다수이고, 그 이외 3년제 대학이 25.6%이고 고등학교가 16.7%이며 대학원이 11%이다(표 IV-1-9 참조).

〈표 IV-1-8〉 부모의 평균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부 연령	34.9	3.6	27	48	239
모 연령	32.4	3.4	22	42	246

〈표 IV-1-9〉 부모의 교육정도

단위: 명, %

구분	본 조사				2009 전국	
	부		모		부	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고등학교 이하	38	15.9	41	16.7	42.2	47.1
대학 (3년제 이하)	37	15.5	63	25.6	15.1	19.7
대학교 (4년제 이상)	130	54.4	115	46.7	36.6	29.8
대학원 이상	34	14.2	27	11.0	6.1	3.4
계	239	100.0	246	100.0	246	63

나) 근로 특성

조사 대상 가구 부모의 근로 특성은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는 사무종사자가 42.3%로 가장 많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6.7%, 서비스 종사자가 12.1%이다. 종사상의 위치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82.4%로 대다수이고 자영업자가 7.9%이다. 2009년 전국조사자료에서 부의직종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 2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3%,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대 순서이다(표 IV-1-10 참조).

어머니는 59.8%가 전업주부이고 일을 한다는 비율은 40%가 채 안 되었는데, 사무종사자가 22.4%로 다수이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8.9%이다. 서비스 종사자는 5.3%에 불과하였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영아인 경우 모는 28.8% 유아의 모 39.1%로 영유아 전체 모의 취업은 33.7%로 조사되었고, 초등학교 모의 취업률은 48.3%로 전체 여성취업률³¹⁾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 비교하면 본 조사 대상 어머니의 취업은 다소 높다. 본 조사는 모의 취업여부별로 할당 표본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으나 사무종사자 11.2%, 기술공 및 준전문가 6.1%, 서비스 종사자 5.3%, 전문가 4.8%, 판매종사자 3.8%이다.

〈표 IV-1-10〉 부모의 직업 및 종사상 위치

단위: 명, %

구분	부		모		구분	부		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직업					종사상 위치				
관리자	15	6.3	-	-	상용직 근로자	197	82.4	59	24.0
전문가·종사자	40	16.7	22	8.9	임시직 근로자	8	3.3	18	7.3
사무 종사자	101	42.3	55	22.4	일용직 근로자	5	2.1	6	2.4
서비스 종사자	29	12.1	13	5.3	자영업자	19	7.9	4	1.6
판매종사자	11	4.6	1	0.4	고용주	8	3.3	-	-
기능원·기능종사자	19	7.9	1	0.4	무급가족종사자	-	-	1	0.4
장치조작·조립종사자	14	5.9	-	-	육아휴직 중	-	-	8	3.3
단순노무 종사자	4	1.7	4	1.6	비해당	2	0.8	150	61.0
직업 군인	4	1.7	-	-	계	239	100.0	246	100.0
전업 학생	1	0.4	3	1.2					
전업주부 및 무직	1	0.4	147	59.8					
계	239	100.0	246	100.0					

<표 IV-1-11>은 근로특성 등을 나타낸다. 취업을 한 경우에 근로시간 등을 보면, 먼저 부의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9.9시간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53.8시간이다. 취업모의 하루 근로시간은 7.2시간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38.1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0시간보다 적다.

취업한 부모의 근로소득수준은 부의 경우 평균 289만 9천원으로 조사되고, 취업한 모의 경우 근로소득은 월 평균 156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사 노동 시간은 평일 아버지 1.8시간, 어머니 9.1시간이다. 주간 가사노동 시간은 아버지 17.3시간, 어머니 67.6시간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일 아버지 1.4시간, 어머니 5.9시간이고, 주간으로는 아버지 13.4시간, 어머니 45.0시간이다.

31) 2009년 4월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4임(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표 IV-1-11〉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단위: 시,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평균 근로시간	평일	부	9.8	1.8	4	16	236
		모	7.2	2.5	1	11	87
	1주일당	부	53.8	12.6	15	87	237
		모	38.1	14.3	6	70	87
평균 가사노동 시간(양육시간 포함)	평일	부	1.8	1.2	0	6	237
		모	9.1	4.2	2	20	246
	1주일당	부	17.3	9.9	0	49	237
		모	67.6	26.3	14	140	246
평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평일	부	1.4	1.0	0	6	237
		모	5.9	3.4	1	20	246
	1주일당	부	13.4	8.4	0	45	237
		모	45.0	22.4	7	140	246
월평균 근로 소득 (지난 3개월 평균)	부		289.9	172.5	80	1,800	237
	모		156.4	87.8	13	400	89

3) 자녀 육아서비스 이용 및 지원

조사 대상 가구 영유아는 첫째아 247명, 둘째아 118명, 셋째아 14명으로 모두 378명인데,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아동은 1.7%이고 대체로 건강하다(표 IV-1-12 참조).

영유아 자녀가 다니는 기관은 보육시설 43.5%, 유치원 12.8%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IV-1-13 참조).

〈표 IV-1-12〉 미취학 자녀의 건강

단위: 명, %

	첫째		둘째		셋째		전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건강함	242	98.0	117	47.4	14	100.0	373	98.7
질병 있음	3	1.2	1	0.8	-	-	4	1.1
장애 있음	1	0.4	-	-	-	-	1	0.3
장애와 질병 있음	1	0.4	-	-	-	-	1	0.3
계	247	100.0	118	100.0	14	100.0	378	100.0

〈표 IV-1-13〉 미취학 자녀가 다니는 기관

단위: 명, %

	첫째		둘째		셋째		전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육시설	90	43.5	45	41.7	8	57.1	143	43.5
유치원	28	13.5	12	11.1	2	14.3	42	12.8
반일제 이상 학원 등	7	3.4	3	2.7	1	7.1	11	3.3
기타	24	11.6	-	-	-	-	24	7.3
안 다님	58	28.0	48	44.4	3	21.4	109	33.1
계	207	100.0	108	100.0	14	100.0	329	100.0

〈표 IV-1-14〉 미취학 자녀가 양육자

단위: 명, %

	첫째		둘째		셋째		전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부모	176	85.0	93	86.1	13	92.9	282	85.7
조부모	22	10.6	13	12.0	1	7.1	36	10.9
친인척	4	1.9	1	0.9	-	-	5	1.5
육아전문인력	5	2.4	-	-	-	-	5	1.5
없음	-	-	1	0.9	-	-	1	0.3
계	207	100.0	108	100.0	14	100.0	329	100.0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아주는 사람은 대다수가 부모이고 조부모가 10% 정도 되었으며, 이외 친인척 및 전문인력이 합하여 3% 정도 되었다(표 IV-1-14 참조).

〈표 IV-1-15〉 정부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 여부

단위: 명, %

구분	받음		안받음		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96	38.9	151	61.1	247	100.0
양육수당	12	4.9	235	95.1	247	100.0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	1	0.4	246	99.6	247	100.0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8	7.3	229	92.7	247	100.0
기타	1	0.4	246	99.6	247	100.0

한편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가를 알아보았다.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은 38.9%가 받으며, 양육수당은 4.9%,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7.3%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이돌보미가 한 사례이었다. 지원을 받는 경우에 월평균 금액은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은 256,780원, 양육수당은 107,500원,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53,500원이며 아이돌보미는 160,000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6〉 정부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월)

단위: 천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256.8	147.7	32	703	96
양육수당	107.5	38.9	50	220	12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	160.0	-	160	160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54.5	66.8	20	200	18
기타	100.0	-	100	100	1

라. 기타 주요 지출

다음은 조사 대상가구의 기타 주요 지출을 알아보았다. 조사 시점인 2010년 6월 중 큰 행사가 있었다는 사례수가 42.5%였는데, 생일, 경조사비, 가족행사가 많았다.

〈표 IV-1-17〉 가족 내 경조사 등의 큰 행사 여부(2010년 6월)

단위: 회,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자녀 백일/돌잔치	8	2.9	병원비	2	0.7
가족/부모님 생신	40	14.9	대출금상환	1	0.4
부모님 용돈	1	0.4	가족 여행	8	3.0
가족행사	21	7.8	집들이	2	0.7
경조사비	38	13.0	집수리비/이사비	7	2.6
자동차세, 보험료	2	0.8	없다	142	52.8
계				269	100.0

비소비 지출로는 연금보험료, 사회보험료가 월 1회씩, 이자비용은 월평균 0.8회, 교제비 및 경조비는 연 평균 23회,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연 평균 11회, 자산축적 및 변동지출은 월 평균 3.8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 지출 항목의 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연금보험료는 월 150,813원, 사회보험료는 월 109,265원, 이자는 월 274,488원, 교제비 및 경조비는 연 172,619원,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은 연 146,134원, 자산축적 및 변동지출은 월 490,83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에 의한 1회성 조사이기 때문에 과소 추정되었을 여지가 있다.

〈표 IV-1-18〉 비소비 지출 횟수

단위: 회,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연금보험료	(월)	1	-	-	-	-
사회보험료	(월)	1	-	-	-	-
이자비용	(월)	0.77	1.071	0	12	247
교제비 및 경조비	(연)	22.96	26.451	1	240	247
비영리단체로 이전	(연)	10.11	21.159	0	208	247
자산축적 및 변동지출	(월)	3.81	3.638	0	18	247

주: 연금보험료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월 1회 지출함.

〈표 IV-1-19〉 비소비 지출액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연금보험료	(월)	150,813	117,974	14,400	1,200,000	220
사회보험료	(월)	109,264	73,619	10,500	500,000	245
이자비용	(월)	274,488	346,090	10,000	3,000,000	140
교제비 및 경조비	(연)	172,619	479,683	400	6,000,000	247
비영리단체로 이전	(연)	146,133	271,706	1,000	2,000,000	108
자산축적 및 변동지출	(월)	490,838	510,455	20,000	2,500,000	231

주: 각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가구 평균임.

2.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가.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1) 전체

영유아 가계부 조사 참여자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2-1>과 같다.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은 양부모 가정 중에서도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 한 자녀 가정의 경우 가계소득은 392만9천원이고 소비지출은 260만4천원으로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81.7%이며, 양부모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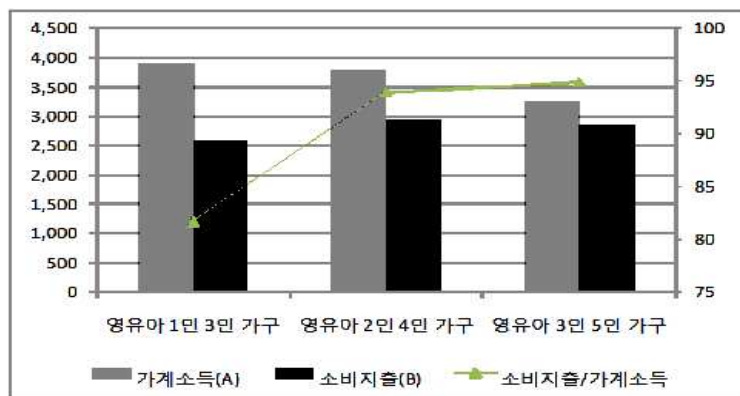
자녀 가정은 가계소득이 377만6천원, 소비지출이 295만5천원으로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93.9%로 한 자녀일 때보다 10%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자녀를 둔 가정과는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평균은 327만3천원, 지출은 평균은 287만6천원으로 소득 대비 비율은 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증가할 경우 소비 비율은 늘어나지만,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증가할 경우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은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양부모 가정의 소득이나 지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도 가계동향조사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인 가구를 비교하면, 소득은 38만원 지출은 66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5인 가족의 차이는 이처럼 크지 않다(제2장 표 II-2-4 참조).

〈표 IV-2-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계소득(A)	3,929	(3,263)	3,776	(4,230)	3,273	(1,082)
소비지출(B)	2,604	(1,225)	2,955	(1,322)	2,876	(586)
비율(B/A)	81.7	(40.8)	93.9	(38.8)	94.9	(30.3)
(수)	(112)		(97)		(12)	



[그림 IV-2-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표 IV-2-2>는 지출 항목별 지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수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육아관련 용품 외에도 보육시설 이용료나 보육 도우미, 개인보험 등과 관련된 지출이 들어있는 기타상품 서비스이다. 한 자녀 가정의 경우 71만6천원, 두 자녀 가정은 78만7천원, 세 자녀 가정은 61만4천원이다.

<표 IV-2-2>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금액 및 구성비율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 편차)	구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구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구성 비율
식료품 및 음료	331	(122)	12.7	412	(213)	13.9	330	(122)	11.5
주류 및 담배	25	(30)	1.0	28	(34)	0.9	43	(61)	1.5
의류 및 신발	182	(195)	7.0	203	(199)	6.9	166	(148)	5.8
주거 및 수도광열	126	(218)	4.8	151	(153)	5.1	194	(148)	6.7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62	(508)	6.2	112	(214)	3.8	94	(154)	3.3
보건	146	(178)	5.6	173	(188)	5.9	50	(48)	1.7
교통	247	(244)	9.5	215	(201)	7.3	297	(194)	10.3
통신	105	(68)	4.0	125	(105)	4.2	102	(73)	3.5
오락문화	189	(319)	7.3	187	(279)	6.3	138	(207)	4.8
교육	139	(328)	5.3	335	(391)	11.3	639	(481)	22.2
음식 숙박	237	(163)	9.1	226	(153)	7.6	209	(102)	7.3
기타상품 서비스	716	(577)	27.5	787	(709)	26.6	614	(341)	21.3
계	2,604	(1,225)	100.0	2,955	(1,323)	100.0	2,876	(586)	100.0
(수)	(112)			(97)			(12)		

전체 항목 중에서 기타상품 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지출을 보인 항목은 식료품 및 음료이다. 또한 교육비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교육비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33만5천원, 세 자녀 가정의 경우는 63만9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2>는 이러한 항목별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나타낸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 주거 및 수도광열비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보건, 기타 상품서비스, 음식 숙박, 오락 문화 비율은 감소한다.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교육비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출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출 구성비를 보면 기타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최대 4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 맞벌이와 외벌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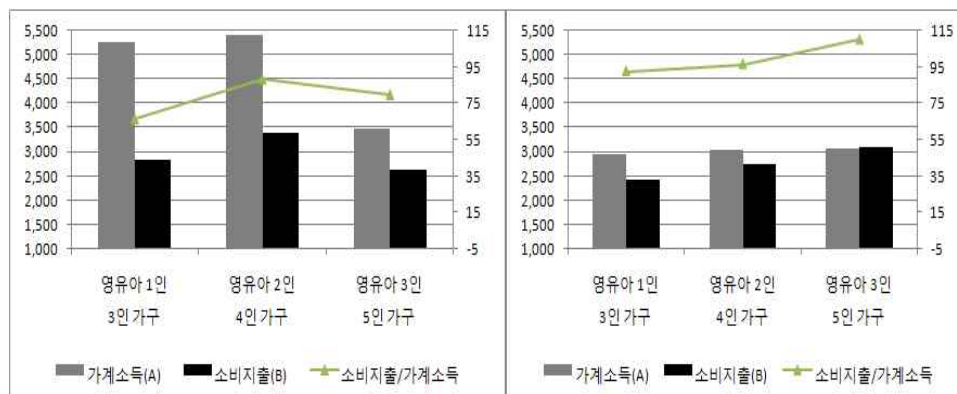
영유아 가계부 조사 참여자를 맞벌이와 외벌이로 나누어서 영유아 수에 따른 양육비 지출을 산출해 보고자 하였다.

<표 IV-2-3>을 보면 소득은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한 자녀와 두 자녀 가정은 230만원 정도 더 소득이 높고, 세 자녀 가정의 경우는 40만원 정도밖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가구						
가계소득(A)	5,255	(3,878)	5,401	(7,143)	3,473	(1,086)
소비지출(B)	2,827	(1,119)	3,396	(1,586)	2,646	(608)
비율(B/A)	66.7	(32.5)	88.1	(42.8)	79.8	(17.7)
(수)	(47)		(30)		(6)	
외벌이 가구						
가계소득(A)	2,970	(2,329)	3,049	(1,368)	3,073	(1,142)
소비지출(B)	2,442	(1,280)	2,757	(1,144)	3,106	(508)
비율(B/A)	92.6	(42.9)	96.5	(37.0)	110.1	(34.0)
(수)	(65)		(67)		(6)	



[그림 IV-2-2]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해 볼 때,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세 자녀를 둔 가정이 자녀를 적게 둔 가정보다 소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 영유아 가계부 조사에서는 특히나 세 자녀 가정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세 자녀 가정은 자녀를 하나 혹은 둘 둔 가정보다 소득이 매우 낮았지만, 외벌이 가구는 영유아수별로 소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수별 지출의 소득 대비 비율은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한 자녀 가정은 25.9%p, 두 자녀 가정은 8.4%p, 세 자녀 가정은 30.3%p가 높다.

<표 IV-2-4>, <표 IV-2-5>는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지출을 구체적 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맞벌이 가구 역시 기타상품 서비스의 소비지출이 가장 높다. 특히 양부모 한 자녀 가정은 92만2천원, 두 자녀 가정은 109만8천원으로 외벌이 가구 56만7천원, 65만2천원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그러나 맞벌이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지출을 보인 것과 연동하여, 다른 가정에 비해 기타상품 서비스의 지출이 57만1천원으로 크지 않다. 외벌이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경향 역시 전체가구 및 맞벌이 가구와 비슷하나,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교육비의 지출이 88만1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4〉 맞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식료품 및 음료	338	(109)	418	(288)	309	(97)
주류 및 담배	22	(25)	25	(32)	69	(77)
의류 및 신발	214	(237)	229	(270)	196	(201)
주거 및 수도광열	98	(85)	183	(169)	207	(183)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153	(333)	135	(255)	128	(203)
보건	169	(181)	208	(217)	37	(30)
교통	257	(267)	212	(182)	285	(187)
통신	93	(62)	114	(86)	109	(88)
오락문화	151	(261)	170	(242)	76	(50)
교육	146	(397)	354	(428)	397	(367)
음식 숙박	265	(186)	260	(213)	261	(95)
기타상품 서비스	922	(638)	1,098	(8,542)	571	(337)
계	2,827	(1,119)	3,397	(1,589)	2,646	(608)
(수)	(47)		(30)		(6)	

〈표 IV-2-5〉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식료품 및 음료	326	(131)	409	(171)	352	(149)
주류 및 담배	27	(33)	30	(35)	17	(26)
의류 및 신발	158	(155)	192	(158)	137	(79)
주거 및 수도광열	146	(276)	137	(144)	180	(12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68	(607)	101	(195)	59	(89)
보건	129	(175)	157	(172)	63	(62)
교통	241	(228)	217	(210)	309	(218)
통신	114	(71)	130	(113)	95	(61)
오락문화	217	(354)	195	(295)	199	(287)
교육	133	(270)	327	(376)	881	(483)
음식 숙박	218	(141)	211	(115)	157	(85)
기타상품 서비스	567	(481)	652	(592)	657	(372)
계	2,443	(1,280)	2,757	(1,144)	3,106	(508)
(수)	(65)		(67)		(6)	

〈표 IV-2-6〉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맞벌이			외벌이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식료품 및 음료	12.0	12.3	11.7	13.3	14.8	11.3
주류 및 담배	0.8	0.7	2.6	1.1	1.1	0.5
의류 및 신발	7.6	6.7	7.4	6.5	7.0	4.4
주거 및 수도광열	3.5	5.4	7.8	6.0	5.0	5.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5.4	4.0	4.8	6.9	3.7	1.9
보건	6.0	6.1	1.4	5.3	5.7	2.0
교통	9.1	6.2	10.8	9.9	7.9	9.9
통신	3.3	3.4	4.1	4.7	4.7	3.1
오락문화	5.3	5.0	2.9	8.9	7.1	6.4
교육	5.2	10.4	15.0	5.4	11.9	28.4
음식 숙박	9.4	7.7	9.9	8.9	7.7	5.1
기타상품 서비스	32.6	32.3	21.6	23.2	23.6	2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			(6)		

<표 IV-2-6>는 항목별 소비지출을 구성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비율의 분포 경향은 유사하다. 다만 앞에서 금액이 높았던 항목은 지출 구성비도 높아서 외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교육비가 전체 지출의 28.4%를 차지하고, 맞벌이 한 자녀의 경우는 기타 상품 서비스 비용이 총 소비지출의 32.6%를 차지한다.

나. 한부모 가구 사례

영유아 가계부 조사 대상자 중 한부모 가정은 사례수가 4개에 불과하였으나 저소득층의 사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가구의 가계소득은 154만3천원으로 소비지출 163만1천원보다 적어 가계소득 대비 소비지출은 105.1%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한부모 가정의 항목별 소비지출은 기타상품 서비스의 지출이 평균 51만9천원으로 전체 지출의 31.8%를 차지하고 다음이 식료품 및 음료로 소비의 17.2%를 차지하여 앞에서 분석한 그 어느 가정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7만6천원으로 10.8%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아동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본 조사에서는 5.9%로 낮게 산출되어 아동 연령이 어림을 유추하게 한다.

〈표 IV-2-7〉 영유아수별 지출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소득과 지출		구분	항목별 소비지출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구성비
가계소득(A)	1,543	(531)	식료품 및 음료	280	(111)	17.2
소비지출(B)	1,631	(778)	주류 및 담배	3	(4)	0.2
비율(B/A)	105.1	(33.6)	의류 및 신발	42	(43)	2.6
(수)	(4)		주거 및 수도광열	92	(91)	5.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76	(274)	10.8
			보건	132	(111)	8.1
			교통	50	(36)	3.1
			통신	51	(69)	3.1
			오락문화	35	(47)	2.1
			교육	97	(193)	5.9
			음식 숙박	153	(72)	9.4
			기타상품 서비스	519	(482)	31.8
			계	1,631	(778)	100.0
			(수)	(4)		

3. 영유아 양육비 추정

가. 양부모가구 가구단위 자녀 양육비

1) 가구규모별 자녀양육비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양부모 2세대 가구의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양육비용은 자녀가 1인인 경우 한 자녀 양부모가정 103만9천원, 자녀 2인 가구 148만 6천원, 3인인 경우 165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9.5%, 50.0%, 57.5%이다.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양육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이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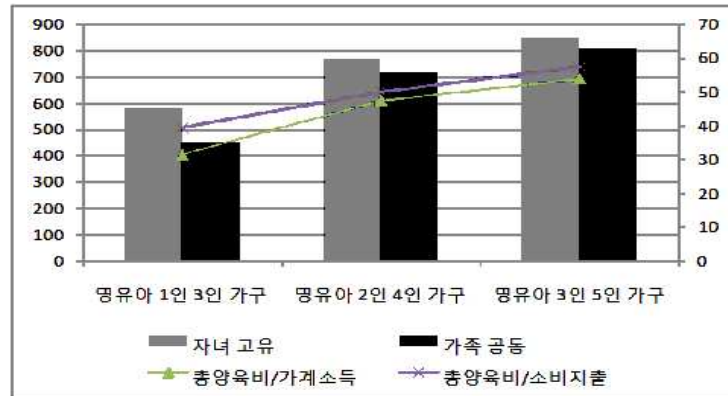
가계동향조사에서는 한 자녀 양부모가정 85만2천원, 자녀 2인 가구 132만4천원, 3인인 경우 158만7천원으로 각각 18만7천원, 16만2천원, 7만2천원 차이를 보였고,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9.8%, 55.5%, 69.0%로 한 자녀 3인가구는 차이가 없고 두 자녀 4인가구는 가계동향조사가 5.5%p 높고, 3자녀 5인가구는 11.5%p가 높았다.

가계부조사 자녀 양육비 소비지출을 순수하게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과 가구원 공동을 위한 소비지출로 나누어 보았는데, 자녀를 위한 고유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인 양부모가정 58만4천원, 자녀 2인 가구 768만 7천원, 3인인 경우 8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V-3-1〉 가구규모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계소득(A)	3,929	(3,263)	3,776	(4,230)	3,273	(1,082)
소비지출(B)	2,604	(1,225)	2,955	(1,323)	2,876	(586)
총양육비(C)	1,039	(656)	1,486	(796)	1,659	(455)
자녀 고유	584	(526)	767	(640)	852	(420)
가족 공동	455	(355)	719	(357)	807	(249)
비율(C/A)	31.7	(19.7)	47.5	(24.7)	54.0	(19.7)
비율(C/B)	39.5	(12.8)	50.0	(10.7)	57.5	(9.5)
(수)	(112)		(97)		(12)	



[그림 IV-3-1] 가구규모별 양육비

<표 IV-3-2>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2세대 가구의 양육비를 12개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표 IV-3-2> 항목별 가구규모별 양육비 지출 평균

단위: 천원(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식료품 및 음료	129	(69)	212	(93)	207	(76)
주류 및 담배	-	(-)	-	(-)	-	(-)
의류 및 신발	54	(56)	81	(81)	70	(53)
주거 및 수도광열	42	(73)	76	(76)	116	(89)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0	(211)	55	(157)	42	(90)
보건	77	(119)	110	(156)	31	(25)
교통	34	(62)	52	(66)	93	(113)
통신	6	(8)	15	(19)	27	(20)
오락문화	115	(284)	121	(215)	90	(127)
교육	135	(327)	316	(387)	573	(448)
음식 숙박	41	(39)	63	(45)	87	(41)
기타상품 서비스	346	(357)	384	(480)	324	(281)
계	1,039	(1,605)	1,486	(1,776)	1,659	(1,363)
(수)	(112)		(97)		(12)	

항목별 양육비 역시 식료품 및 음료, 교육, 기타상품 서비스 항목에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부모 한 자녀 가정의 경우는 총 양육비 103만9천원

중 34만6천원을 기타상품 서비스에 지출함으로써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반면,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은 교육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정은 총 양육비 148만6천원 중 21.3%인 31만6천원을, 세 자녀 가정은 165만9천원 중 34.5%인 57만3천원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

<표 IV-3-3>은 이들 항목별 지출의 총 지출 대비 비율 및 총 양육비의 항목별 구성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소비지출 중 자녀 양육비 지출 비율은 식료품 및 음료 비용 지출은 자녀수에 따라 38.9%에서 66.1%에 분포한다. 의류 및 신발은 20.5%에서 41.9%에 분포하며, 주거 및 수도광열비 지출은 33.3%에서 59.9%에 분포하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17.2%에서 49.4%에 분포한다. 보건은 52.4%에서 88.6%가 자녀를 위한 지출이다. 통신비는 19.0%에서 31.2%가 자녀용 지출이며, 오락문화 비용은 42.4%에서 65.4% 사이에 분포한다. 교육은 90% 이상이며, 음식 숙박은 17.4%에서 43.6%이고, 기타 상품 서비스는 33.7%에서 52.8%까지가 자녀를 위한 지출이다.³²⁾

<표 IV-3-3> 항목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과 항목별 양육비 구성 비율

단위: %(가구)

구분	총 지출 대비 비율			총 양육비 구성 비율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식료품 및 음료	38.9	51.5	62.7	12.4	14.3	12.5
주류 및 담배	-	-	-	-	-	-
의류 및 신발	29.9	40.0	41.9	5.2	5.5	4.2
주거 및 수도광열	33.3	50.0	59.9	4.0	5.1	7.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6.8	49.4	44.2	5.7	3.7	2.5
보건	52.4	63.7	61.6	7.4	7.4	1.9
교통	13.8	24.3	31.2	3.3	3.5	5.6
통신	5.7	12.1	26.4	0.6	1.0	1.6
오락문화	61.1	64.7	65.4	11.1	8.1	5.4
교육	96.8	94.3	89.7	13.0	21.3	34.6
음식 숙박	17.4	27.7	41.6	4.0	4.2	5.2
기타상품 서비스	48.3	48.8	52.8	33.3	25.9	19.5
계				100.0	100.0	100.9
(수)	(112)	(97)	(12)	(112)	(97)	(12)

총 아동 지출 액수의 항목별 백분율 분포는 양부모 가정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32)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여 기타 상품서비스 비용이 많은 차이를 보임.

교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녀수별로 총 지출의 13.0%에서 34.6%가 교육비이다.

2) 맞벌이와 외벌이 비교

영유아 자녀가 있는 2세대 가구의 양육비를 맞벌이 여부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가) 총 양육비 비교

먼저 외벌이 가구 양육비용은 자녀가 1인인 경우 95만원, 자녀 2인 가구 139만 6천원, 3인인 경우 173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8.5%, 49.9%, 54.8%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양육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증가한다. 자녀 양육비 소비 지출을 순수하게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과 가구원 공동을 위한 소비지출로 나누어 보면,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인 경우 47만9천원, 자녀 2인 가구 69만6천원, 3인인 경우 98만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자녀 양육비용은 자녀가 1인인 경우 116만2천원, 자녀 2인 가구 168만7천원, 3인인 경우 158만8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41.0%, 50.3%, 60.2%이다. 자녀 양육비 소비 지출을 자녀 고유 소비지출과 가구원 공동을 위한 소비지출로 나누어 보면,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인 경우 72만8천원, 자녀 2인 가구 92만6천원, 3인인 경우 7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자녀가 3명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한 자녀나 두 자녀 가구보다 낮다는 것이다. 자녀가 1명인 가구, 2명인 가구가 모두 500만원이 넘는데 비하여 3명인 맞벌이 가구는 350만원 수준이다. 그러므로 지출하는 비용이나 자녀 양육비 지출의 절대 액수 역시 두 자녀 가구보다 낮아서 전체나 외벌이 가구처럼 자녀수에 따라 일관된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은 60% 이상으로 그 어느 집단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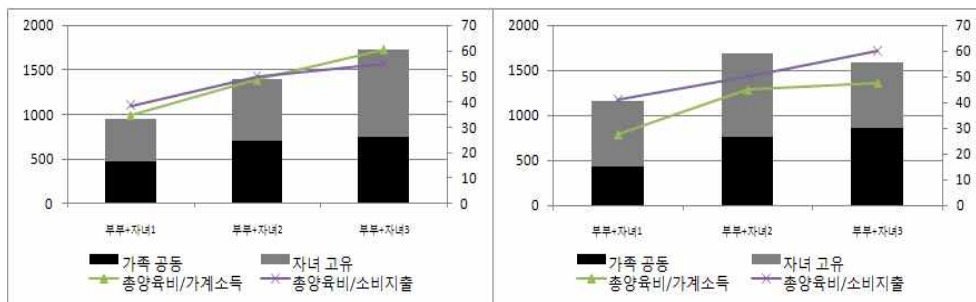
외벌이 가구와 비교하여도 한 자녀와 두 자녀 가정은 맞벌이 양육비가 많으나 세 자녀 2세대 가족은 외벌이의 양육비가 더 많다. 양육비의 지출대비 비율도 한 자녀와 두 자녀 가정은 큰 차이 없으나 3자녀 2세대 가족은 외벌이에 비하여 6.2%p가 높아서 상대적 부담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조사 대상자 특성으로 다자녀 가구의 소득수준이 다소 낮았고, 게다가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어머니들이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임시 또는 시간제 서비스업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IV-3-4〉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가구규모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벌이						
가계소득(A)	2,970	(2,329)	3,049	(1,368)	3,073	(1,142)
소비지출(B)	2,443	(1,280)	2,757	(1,144)	3,106	(508)
총양육비(C)	950	(661)	1,396	(746)	1,730	(573)
자녀 고유	479	(454)	696	(577)	980	(422)
가족 공동	471	(397)	699	(356)	750	(298)
비율(C/A)	34.7	(20.2)	48.6	(25.0)	60.4	(26.2)
비율(C/B)	38.5	(12.4)	49.9	(10.8)	54.8	(12.6)
(수)	(65)		(67)		(6)	
맞벌이						
가계소득(A)	5,255	(3,878)	5,401	(7,143)	3,473	(1,086)
소비지출(B)	2,827	(1,119)	3,397	(1,589)	2,646	(608)
총양육비(C)	1,162	(636)	1,687	(879)	1,588	(338)
자녀 고유	728	(587)	926	(750)	725	(414)
가족 공동	434	(290)	761	(359)	864	(198)
비율(C/A)	27.7	(18.3)	44.9	(24.4)	47.6	(8.6)
비율(C/B)	41.0	(13.2)	50.3	(10.7)	60.2	(4.6)
(수)	(47)		(30)		(6)	



〔그림 IV-3-2〕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가구규모별 양육비

나) 항목별 양육비 비교

<표 IV-3-5>은 외벌이 2세대 가구의 양육비를 12개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외별이 가구의 항목별 자녀 양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외별이 가구 역시 기타상품 서비스의 지출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외별이 한 자녀 가구는 총 양육비 95만원 중 23만3천원을, 두 자녀 가정은 총 양육비 139만6천원 중 32만2천원을, 세 자녀 가정은 173만원 중 22만7천원을 기타상품 서비스 항목에 지출하고 있다. 또한 교육비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꾸준히 지출이 늘어 두 자녀 가정은 30만5천원, 세 자녀 가정은 75만9천원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표 IV-3-5〉 외별이 가구 항목별 가구규모별 양육비 지출 평균

단위: 천원(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식료품 및 음료	129	(74)	219	(100)	204	(94)
주류 및 담배	-	(-)	-	(-)	-	(-)
의류 및 신발	54	(53)	79	(63)	74	(70)
주거 및 수도광열	49	(92)	68	(72)	108	(7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2	(261)	43	(114)	10	(14)
보건	71	(121)	100	(143)	38	(31)
교통	32	(53)	56	(62)	95	(153)
통신	6	(8)	15	(20)	24	(14)
오락문화	140	(320)	126	(210)	133	(174)
교육	132	(268)	305	(369)	759	(471)
음식 숙박	41	(34)	61	(41)	59	(26)
기타상품 서비스	233	(211)	322	(477)	227	(193)
계	950	(661)	1,396	(746)	1,730	(573)
(수)	(65)		(67)		(6)	

<표 IV-3-6>은 외별이 가구 자녀 양육비 지출의 항목별 총 지출 대비 비율과 구성비를 나타낸다. 먼저 항목별 총 지출 대비 비율은 식료품 및 음료 비용 지출은 38.8%에서 58.1%에 분포한다. 의류 및 신발은 44.0%에서 51.2%에 분포하고, 주거 및 수도광열비 지출은 33.3%에서 60.0%에 분포하며,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31.4%에서 42.6%에 분포한다. 보건은 62.3%에서 80.7%, 교통비는 14.8%에서 28.4%가 자녀를 위한 지출이다. 통신비는 7.5%에서 34.5%가 자녀용 지출이며, 오락문화 비용은 56.9%에서 68.3% 사이에 분포한다. 교육은 88.7%에서 97.5%에 분포하며, 음식 숙박은 22.4%에서 43.4%이고, 기타 상품 서비스는 34.7%에서 47.4%까지가 자녀를 위한 지출이다.

외별이 가구의 양육비의 항목별 백분율 분포는 2인 자녀 가구까지는 기타상품 서

비스가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3인 자녀 가구에서는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와는 달리 교육비는 자녀 1인인 경우에는 13.9%에서 3인 자녀 가구에서는 43.9%로 증가하여 총 양육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외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 및 구성 비율
단위: %(가구)

구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			구성비율		
	영유아1인 3인 가구	영유아2인 4인 가구	영유아3인 5인 가구	영유아1인 3인 가구	영유아2인 4인 가구	영유아3인 5인 가구
식료품 및 음료	38.8	53.7	58.1	13.6	15.7	11.8
주류 및 담배	-	-	-	-	-	-
의류 및 신발	44.0	44.4	51.2	5.7	5.7	4.3
주거 및 수도광열	33.3	50.0	60.0	5.1	4.9	6.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1.4	42.6	32.6	6.5	3.1	0.6
보건	62.3	67.8	80.7	7.5	7.2	2.2
교통	14.8	28.4	23.5	3.4	4.0	5.5
통신	7.5	13.0	34.5	0.7	1.1	1.4
오락문화	56.9	61.1	68.3	14.8	9.0	7.7
교육	97.5	94.5	88.7	13.9	21.9	43.9
음식 숙박	22.4	32.7	43.4	4.3	4.4	3.4
기타상품 서비스	47.3	47.4	34.7	24.6	23.1	13.1
계				100.0	100.0	100.0
(수)	(65)	(67)	(6)	(65)	(67)	(6)

다음 <표 IV-3-7>은 맞벌이 가구 항목별 양육비이다. 이 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기타상품 서비스로서, 자녀 1명인 경우 50만2천원, 자녀 2명인 경우 52만5천원, 자녀 3명인 경우 42만2천원을 지출하고 있고, 또한 교육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자녀 2명인 경우 33만9천원, 자녀가 3명인 경우 38만8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 IV-3-8>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비 항목별 총 지출 대비 비율과 구성비이다. 지출 대비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 비율을 보면, 식료품 및 음료 비용 지출은 38.2%에서 68.0%에 분포한다. 의류 및 신발은 31.3%에서 50.7%에 분포하며, 주거 및 수도광열비 지출은 33.3%에서 60.0%에 분포하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40.7%에서 47.3%에 분포한다.

보건은 61.7%에서 66.0%가 자녀를 위한 지출이다. 통신비는 7.7%에서 30.9%가 자녀용 지출이며, 오락문화 비용은 40.7%에서 68.4% 사이에 분포한다.

〈표 IV-3-7〉 맞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양육비 지출 평균

단위: 천원(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식료품 및 음료	129	(64)	196	(75)	209	(62)
주류 및 담배	-	(-)	-	(-)	-	(-)
의류 및 신발	55	(60)	85	(114)	65	(36)
주거 및 수도광열	33	(28)	91	(84)	124	(11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57	(112)	83	(226)	73	(123)
보건	84	(118)	133	(183)	24	(18)
교통	37	(73)	45	(76)	90	(68)
통신	5	(8)	14	(16)	30	(26)
오락문화	81	(221)	110	(228)	48	(27)
교육	138	(398)	339	(429)	388	(369)
음식 숙박	41	(46)	66	(53)	115	(35)
기타상품 서비스	502	(451)	525	(464)	422	(337)
계(A)	1,162	(636)	1,687	(879)	1,588	(338)
(수)	(47)		(30)		(6)	

〈표 IV-3-8〉 맞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

단위: %(가구)

구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			구성비율		
	영유아1인 3인 가구	영유아2인 4인 가구	영유아3인 5인 가구	영유아1인 3인 가구	영유아2인 4인 가구	영유아3인 5인 가구
식료품 및 음료	38.2	50.9	68.0	11.1	11.6	13.2
주류 및 담배	-	-	-	-	-	-
의류 및 신발	31.3	38.6	50.7	4.7	5.0	4.1
주거 및 수도광열	33.3	50.0	60.0	2.8	5.4	7.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0.7	47.3	42.8	4.9	4.9	4.6
보건	61.7	66.0	65.6	7.3	7.9	1.5
교통	13.1	19.7	31.5	3.2	2.7	5.7
통신	7.7	15.6	30.9	0.5	0.9	1.9
오락문화	40.7	48.3	68.4	7.0	6.5	3.0
교육	87.0	92.3	96.6	11.9	20.1	24.4
음식 숙박	16.6	28.6	49.8	3.5	3.9	7.2
기타상품 서비스	52.6	50.8	71.5	43.2	31.1	26.5
계(A)				100.0	100.0	100.0
(수)	(47)	(30)	(6)	(47)	(30)	(6)

교육은 87.0%에서 96.6%에 분포하며, 음식 숙박은 16.6%에서 49.8%이고, 기타 상품 서비스는 50.8%에서 71.5%까지가 자녀를 위한 지출이다. 외벌이에 비하여 기타 상품 서비스 비중은 다소 높다.

총 아동 지출 액수의 항목별 백분을 분포는 외벌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많아 질수록 교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보육료 등이 포함된 기타상품서비스 비용 비율은 자녀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높아서 외벌이 경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교육비와 기타상품서비스 비용이 총 양육비의 50%를 차지한다.

3) 소득계층별 자녀양육비

다음은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자녀수별 자녀 양육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의 경우 자녀가 1인인 양부모가정 71만6천원, 자녀 2인 가구 99만4천원, 3인인 경우 15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48.9%, 37.0%, 49.2%, 53.5%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양육비용이 높으며,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이 증가한다.

자녀 양육비 소비 지출을 순수하게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과 가구원 공동을 위한 소비지출로 나누어 보았는데,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인 경우 32만7천원, 자녀 2인 가구 42만 7천원, 3인인 경우 8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251~350만원 이하의 경우 자녀가 1인 양부모가정 113만5천원, 자녀 2인 가구 146만4천원, 3인인 경우 148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40.7%, 49.8%, 59.8%이다.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양육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이 증가한다. 순수한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 양부모 가정 61만2천원, 자녀 2인 가구 75만1천원, 3인인 경우 55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351~450만원 이하의 경우 자녀가 1인 양부모가정 117만6천원, 자녀 2인 가구 198만7천원, 3인인 경우 216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9.7%, 51.1%, 57.9%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양육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이 증가한다. 순수한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 양부모 가정 71만3천원, 자녀 2인 가구 106만8천원, 3인인 경우 105만8천원이다.

가구소득 451만원 이상은 자녀가 1인 양부모가정 127만6천원, 자녀 2인 가구 186만1천원, 3인인 경우 180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9.7%, 51.1%, 57.9%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양육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이 증가한다.

〈표 IV-3-9〉 소득계층별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단위: 천원(가구)

구분	영유아 1인 3인 가구		영유아 2인 4인 가구		영유아 3인 5인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50만원 이하						
가계소득(A)	1,971	(412)	1,998	(465)	2,115	(268)
소비지출(B)	2,008	(759)	2,046	(624)	2,794	(721)
총양육비(C)	716	(329)	994	(374)	1,515	(689)
자녀 고유	327	(267)	427	(275)	873	(600)
가족 공동	388	(197)	567	(207)	642	(126)
비율(C/A)	36.3	(15.3)	52.9	(27.5)	70.4	(27.0)
비율(C/B)	37.0	(13.5)	49.2	(11.5)	53.5	(15.8)
(수)	(35)		(32)		(4)	
251-350만원 이하						
가계소득(A)	3,065	(263)	2,996	(278)	3,228	(215)
소비지출(B)	2,669	(1,517)	2,877	(1,007)	2,472	(55)
총양육비(C)	1,135	(876)	1,464	(692)	1,480	(74)
자녀 고유	612	(651)	761	(518)	558	(228)
가족 공동	523	(516)	702	(331)	922	(201)
비율(C/A)	36.8	(27.1)	48.9	(22.8)	46.0	(3.1)
비율(C/B)	40.7	(13.2)	49.8	(8.5)	59.8	(2.5)
(수)	(34)		(26)		(4)	
351~450만원 이하						
가계소득(A)	4,082	(275)	4,000	(266)	3,900	(141)
소비지출(B)	3,021	(1,154)	3,799	(1,626)	3,732	(13)
총양육비(C)	1,176	(522)	1,937	(915)	2,161	(200)
자녀 고유	743	(508)	1,068	(827)	1,058	(111)
가족 공동	433	(291)	869	(441)	1,103	(311)
비율(C/A)	28.8	(12.8)	48.5	(22.8)	55.6	(7.1)
비율(C/B)	39.7	(11.3)	51.1	(11.1)	57.9	(5.2)
(수)	(22)		(22)		(2)	
451만원 이상						
가계소득(A)	8,431	(5,413)	8,028	(8,952)	5,055	(78)
소비지출(B)	3,056	(1,055)	3,694	(1,212)	2,994	(171)
총양육비(C)	1,276	(613)	1,861	(878)	1,805	(186)
자녀 고유	797	(501)	1,028	(754)	1,194	(165)
가족 공동	479	(298)	833	(402)	611	(22)
비율(C/A)	18.9	(10.3)	33.6	(21.2)	35.7	(3.1)
비율(C/B)	41.6	(12.3)	50.4	(12.4)	60.6	(9.7)
(수)	(21)		(17)		(2)	

순수한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 양부모가정 71만3천원, 자녀 2인 가구 106만8천원, 3인인 경우 105만8천원이다.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소득 351~450만원 이하의 경우에 비하여 오히려 다소 낮았다.

4) 한부모 한 자녀 가구 사례

영유아 자녀가 1명 있는 한부모 2세대 가구의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77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 소비 지출을 순수하게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과 가구원 공동을 위한 소비지출로 나누어 보았는데, 가족 공동 지출이 36만7천원이고 자녀 고유 항목 지출이 40만7천원이다. 총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51.1%이다.

〈표 IV-3-10〉 가구규모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구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양육비 지출	
						구성 비율	소비 지출 대비비율
가계소득(A)	1,543	(531)	식료품 및 음료	185	(51)	23.9	66.1
소비지출(B)	1,631	(778)	주류 및 담배	-	(-)	-	-
총양육비(C)	775	(314)	의류 및 신발	9	(7)	1.1	20.5
자녀 고유	367	(375)	주거 및 수도광열	50	(46)	6.4	54.0
가족 공동	407	(16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0	(28)	3.9	17.2
비율(C/A)	51.1	(16.3)	보건	117	(114)	15.1	88.6
비율(C/B)	48.9	(4.3)	교통	10	(10)	1.2	19.0
(수)	(4)		통신	21	(42)	2.7	41.6
			오락문화	15	(27)	1.9	42.4
			교육	97	(193)	12.5	100.0
			음식 숙박	67	(23)	8.6	43.6
			기타상품 서비스	175	(115)	22.6	33.7
			계(A)	775	(656)	100.0	-
			(수)	(4)			(4)

항목별 양육비로는 식료품 및 음료, 기타상품 서비스, 보건, 교육 항목에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총양육비 77만5천원 중 23.9%인 18만5천원을 식료품 및 음료에 지출하고 있고, 22.6%에 해당하는 17만5천원을 기타상품 서비스에 지출한다. 특히 한부모 가구 자녀 양육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되는 비율이 23.9%로 높다. 다음은 보건 비용 지출로 양육비의 15.1%인 11만7천원을 지출하며, 교육에 12.5%인 9만7천원을 지출한다. 한부모와 한 자녀 가정은 사례수가 적어

서 일반화에 한계는 있으나 자녀 양육비는 식료품 및 음료, 기타상품 서비스, 보건, 교육비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사용된다.

이러한 항목별 양육비를 총 항목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교육비를 제외하면 보건비가 88.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식료품 및 음료로 66.1%이며 가장 낮은 것이 가정용품·가사서비스로 17.2%이다.

조사된 저소득가구의 특성은 가구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조사된 한달 동안의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개인 단위 양육비

다음은 영유아 개인별로 양육비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1) 연령별 총액 및 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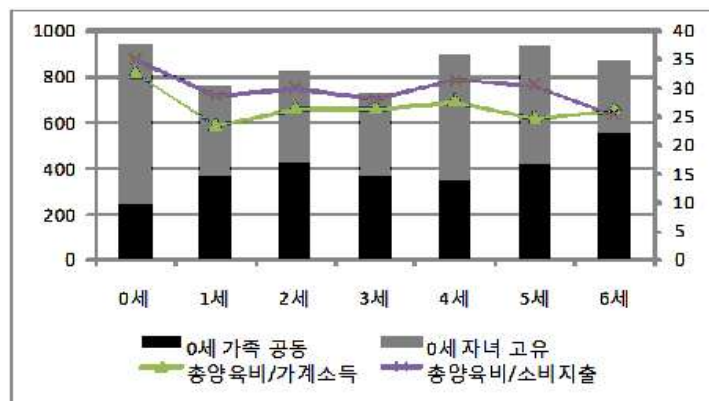
본 조사 대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78만원이었다. 각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 연령별 양육비를 보면 0세아 가구소득 약 330만원 중 94만 2천원으로 소득대비 32.7%, 소비지출 대비 35.2%이다. 1세아는 가구소득이 417만원으로 양육비는 76만8천원으로 소득대비 23.5%, 소비지출 대비 28.7%이다.

〈표 IV-3-11〉 연령별 양육비: 0-6세

단위: 천원,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가구소득(B)	3,298 (2,919)	4,178 (5,029)	3,686 (2,806)	3,140 (1,413)	3,351 (1,196)	5,358 (7,569)	3,546 (1,250)
소비지출(C)	2,598 (1,430)	2,643 (1,124)	2,844 (1,479)	2,592 (943)	2,933 (1,170)	3,079 (1,227)	3,464 (1,280)
총양육비(A)	942 (768)	768 (558)	824 (568)	736 (448)	893 (586)	936 (544)	872 (621)
자녀 고유	693 (728)	404 (499)	399 (306)	375 (402)	552 (495)	523 (418)	322 (242)
가족 공동	249 (333)	364 (348)	425 (304)	361 (423)	341 (298)	413 (320)	550 (367)
비율(A/B)	32.7	23.5	26.4	26.4	27.8	24.8	26.2
비율(A/C)	35.2	28.7	30.1	28.1	31.5	30.6	25.3
(수)	(42)	(81)	(67)	(56)	(40)	(27)	(17)

2세아는 가구소득 368만원 수준으로 양육비는 82만4천원이며, 이는 소득 대비 26.4%, 소비지출 대비 30.1%이다. 3세아는 가구소득 314만원 수준으로 양육비는 73만6천원이며 이는 소득 대비 26.4%, 소비지출 대비 28.1%이다. 4세아는 양육비가 89만3천원인데, 이는 소득 대비 27.8%, 지출 대비 31.5%이다. 만5세아는 양육비 93만6천원, 6세아 87만2천원으로 산출되었다. 6세아의 경우 소득대비 26.2%, 25.3%이다(표 IV-3-11 참조).



[그림 IV-3-3] 연령별 양육비: 0-6세

〈표 IV-3-12〉 연령별 양육비 항목별 지출액: 0-6세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식료품 및 음료	108	122	124	105	109	96	97
의류 및 신발	40	42	47	38	40	46	63
주거수도광열	36	29	39	48	40	34	53
가정용품서비스	38	30	56	35	20	76	16
보건	115	75	57	50	44	25	21
교통	22	38	27	24	31	23	22
통신	2	4	6	8	7	8	9
오락문화	29	62	84	75	107	106	85
교육	15	57	105	138	257	304	329
음식 숙박	9	33	43	36	33	35	41
기타상품 서비스	527	277	234	180	206	184	134
계	942	768	824	736	893	936	872

<표 IV-3-12>는 0-6세아 양육비가 12개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나타낸다.

식료품 및 음료는 10~12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의류 및 신발이 약 4만원이 다수이고, 만6세아만 6만원이 넘었다. 주거수도광열비는 가구원 공동 비용으로 29~53만원으로 추정되었고, 가정용품서비스는 6세 1만6천원에서 5세 7만6천원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보건의료비는 0세아가 11만5천원으로 가장 많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통비는 2만2천원에서 3만8천원, 통신비는 2천~9천원, 오락 문화비는 0세아가 2만9천원으로 가장 적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교육비는 0세아가 1만5천원으로 가장 적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만6세는 32만원이 넘는다. 음식 숙박비는 0세아만 9,000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고 이후 3만3천~4만3천원 수준을 유지한다. 기타 상품 서비스는 0세아가 52만 7천원으로 가장 많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 비용은 점차 줄어들어 6세아는 13만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3>은 앞의 <표 IV-3-12> 내용 중 성인 지출인 주류 및 담배와 가구원 공동 소비지출 항목인 주거 및 수도광열비, 교통비, 통신비를 제외하고 자녀 단독 지출 항목 및 공동 지출항목으로 나누어 12개 항목별로 지출액을 산출한 것이다. 의류 및 신발은 공동 지출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 단독 지출 항목에만 포함되었다.

<표 IV-3-13> 연령별 자녀고유 및 가족공동 양육비 항목별 지출액: 0-6세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자녀 고유							
식료품 및 음료	68	22	18	16	18	17	17
의류 및 신발	41	42	49	37	40	44	63
가정용품서비스	13	4	3	1	1	1	-
보건	53	27	3	-	2	-	-
오락문화	25	44	65	56	79	95	18
교육	13	56	105	149	266	281	197
기타상품서비스	483	210	158	117	146	86	27
가족 공동							
식료품 및 음료	36	100	106	90	94	79	81
가정용품서비스	24	26	54	36	21	73	16
보건	59	49	54	50	43	30	21
오락문화	6	18	20	33	47	20	67
교육	3	-	5	5	14	21	131
기타상품서비스	49	66	81	63	60	93	107
(수)	(52)	(76)	(93)	(67)	(45)	(120)	(121)

<표 IV-3-13>을 보면 자녀 고유 지출로 식료품 및 음료는 0세에 6만8천원이 들어가고 이후부터는 2만원 정도로 감소하고 그 대신 공동 비용이 증가한다. 의류 및 신발은 평균 4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가정용품 서비스 비용은 0세에 1만3천원이 지출되며 그 이후는 크게 감소한다. 보건비용도 0세에 5만3천원이 들어가고, 1세에 2만7천원이 들어가며 이후 크게 감소한다. 오락 문화비는 6세를 제외하고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한다. 교육비도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하고 6세가 되면 오히려 낮아진다. 기타 상품 서비스비는 0세가 48만3천원 수준이고 연령이 낮아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 <표 IV-3-14>는 전체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고유 항목 평균 지출액을 세부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 항목을 보면 0세 분유값은 평균 57,000원이고, 이외 이유식 등으로 7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의류비로는 의류 및 신발이 약 4만원이 다수이고 만6세아만 6만원이 넘었다. 젖병 및 이유식기 소비지출이 0세아에 평균 1만3천원으로 산출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은 0세아 5만1천원, 1세아 2만7천원이다.

교육비는 영유아 서적과 교구교재에 지출되는 비용은 만6세 이전까지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육비 역시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만6세 이전까지 계속 높아진다.

기타 상품서비스는 자녀 연령이 어릴 때 많이 들어간다. 0세아를 보면 기타 상품 서비스 중 육아용품지출은 35만7천원으로 집계되었고, 복지서비스는 12만2천원으로 총 평균 47만9천원이 소요된다. 육아용품지출 중 아이 기저귀 비용이 7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백일, 돌이 평균 17만2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외 복지비용은 평균 12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이고 표준편차가 매우 크므로 개개인들의 체감도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음 <표 IV-3-15>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자녀 고유 항목 평균 지출액을 세부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 항목을 보면 0세 분유값은 평균 12만원 정도이고, 이외 이유식 등으로 4만3천원이 소요된다. 외·내의 및 관련서비스 비용은 갓 태어난 0세와 초등학교 입학하는 6세의 지출이 각각 5만원, 6만9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연령은 4만원 정도로 비슷하다. 신발 관련 비용은 신체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어린 연령대인 0세~3세가 4~6세보다 지출이 많다. 젖병 및 이유식기 소비지출이 0세아에 평균 2만8천원으로 산출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은 0세아 16만6천원, 1세아 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4〉 연령별 자녀고유 항목별 지출: 0-6세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분유	57	12	4	-	-	-	-
당류 및 과자류	5	9	15	15	18	17	17
이유식	9	-	1	-	-	-	-
식품 소계	71	22	17	16	18	17	17
외·내의및관련서비스	33	28	38	29	28	32	53
기타의복	4	5	4	1	4	4	3
신발, 신발서비스	4	9	11	7	8	8	8
의류 신발 소계	40	42	49	37	40	44	63
가정용품: 젖병 및 이유식기	13	4	4	1	-	-	-
보건: 예방접종비	51	27	3	-	2	-	-
문화: 영유아서적, 교구교재	24	44	62	56	79	95	18
유치원 순수교육비	-	6	42	86	178	151	55
유치원 특기활동 등	-	1	13	27	25	33	19
영유아 전문 학원	10	29	19	9	8	7	-
음악학원	-	-	-	-	10	9	33
외국어학원	-	2	-	-	3	16	39
미술학원	-	-	7	7	2	11	11
운동학원	2	-	-	1	6	16	7
방문학습지	1	19	20	19	34	37	33
교육 소계	12	56	101	149	266	281	197
아기 기저귀	72	40	28	2	1	-	-
아기 물티슈	7	7	4	2	2	1	-
아동 목욕위생용품	10	6	7	4	4	4	1
산모용품(렌탈포함)	2	-	-	-	-	-	-
승용및 외출용품(렌탈포함)	61	11	14	-	1	-	-
보행완구(렌탈포함)	10	-	-	-	1	-	-
돌/백일 위탁비용	173	4	-	4	-	-	-
장난감(렌탈포함)	20	25	24	12	10	14	2
기타상품 소계	357	93	56	24	19	20	3
산후조리원	-	-	-	-	-	-	-
보육시설 순 이용료	33	27	79	51	89	43	13
보육시설 추가비용	2	2	13	24	33	17	9
보육도우미	9	51	-	-	-	-	-
혈연에 의한 보육료	79	36	19	17	6	5	3
사회복지 소계	122	117	101	93	127	66	25
(수)	(42)	(81)	(71)	(57)	(41)	(28)	(17)

〈표 IV-3-15〉 지출 아동 연령별 자녀고유 항목별 지출 0-6세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분유	121	75	16	-	-	-	-
당류 및 과자류	9	10	15	15	17	18	17
이유식	43	8	17	10	-	-	-
식품 소계	88	24	17	16	17	18	17
(수)	(34)	(73)	(66)	(55)	(40)	(27)	(17)
외·내의및관련서비스	50	42	45	39	38	40	69
기타의복	14	15	14	3	9	9	9
신발, 신발서비스	38	22	25	23	19	19	18
의류 신발 소계	56	50	52	46	50	56	76
(수)	(30)	(68)	(60)	(46)	(32)	(22)	(14)
가정용품: 젖병 및 이유식기	28	14	8	4	8	6	-
(수)	(19)	(21)	(12)	(10)	(2)	(2)	(-)
보건: 예방접종비	166	90	38	-	48	-	2
(수)	(13)	(24)	(5)	(-)	(2)	(-)	(1)
문화: 영유아서적, 교구교재	68	114	110	123	147	168	50
(수)	(14)	(31)	(39)	(26)	(22)	(14)	(6)
유치원 순수교육비	-	245	363	239	462	289	232
유치원 특기활동 등	-	15	85	102	56	67	64
영유아 전문 학원	104	264	106	69	70	52	-
음악학원	-	-	-	-	95	88	113
외국어학원	-	130	-	-	136	450	329
미술학원	-	-	103	200	41	107	64
운동학원	70	-	-	33	77	73	60
방문학습지	33	251	81	71	80	64	52
교육 소계	104	253	197	227	306	318	224
(수)	(5)	(18)	(34)	(33)	(32)	(24)	(15)
아기 기저귀	90	56	46	36	22	47	-
아기 물티슈	16	14	10	5	6	5	1
아동 목욕위생용품	26	17	19	11	12	13	13
산모용품(렌탈포함)	15	6	-	-	-	-	-
승용및 외출용품(렌탈포함)	212	55	88	18	27	-	-
보행완구(렌탈포함)	70	10	-	14	30	-	-
돌/백일 위탁비용	606	350	-	200	-	-	-
장난감(렌탈포함)	39	53	38	25	18	24	6
기타상품 소계	394	101	65	30	23	32	6
(수)	(38)	(75)	(60)	(46)	(32)	(19)	(8)
산후조리원	-	-	-	-	-	-	-
보육시설 순 이용료	345	222	264	183	243	199	74
보육시설 추가비용	40	28	49	73	71	57	50
보육도우미	194	690	32	28	-	-	-
혈연에 의한 보육료	471	492	265	188	40	150	23
사회복지 소계	393	395	232	181	228	164	60
(수)	(13)	(24)	(29)	(28)	(22)	(11)	(7)

주: ()는 소계에 해당되는 사례수임.

영유아 서적과 교구교재에 지출되는 비용은 만6세 이전까지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육비 역시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만6세 이전까지 계속 높아진다.

기타 상품서비스는 자녀 연령이 어릴 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0세아를 보면 기저귀는 9만원, 승용 및 외출용품이 21만원 수준, 보행완구가 7만원, 돌/백일 위탁 비용으로 6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 복지비용의 경우 보육시설 순 이용료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료 부담도 적어지고 유치원 및 학원 등으로의 이동도 많아지는 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반면 보육도우미와 혈연에 의한 보육료는 그 반대 현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이용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세 가구 특성별

다음은 각 연령별로 가구 및 모 특성별 양육비용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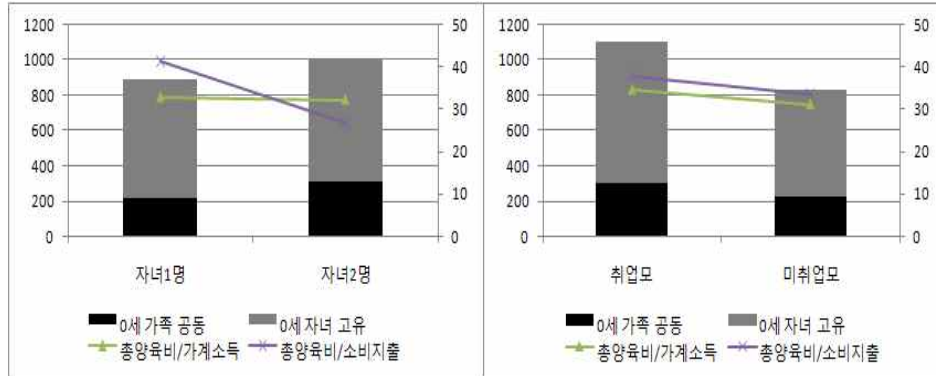
가) 0세아

위 표에서 먼저 0세아 양육비를 자녀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는 아동 단독 양육비가 67만7천원, 69만9천원으로 총액은 각각 89만5천원과 100만4천원이다.

〈표 IV-3-16〉 자녀수 및 모 취업여부별 0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자녀수				모취업			
	자녀1명		자녀2명		취업		미취업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3,532	(3,679)	2,986	(1,433)	3,509	(1,407)	3,154	(3,631)
소비지출(B)	2,169	(851)	3,170	(1,829)	3,018	(1,800)	2,312	(1,060)
총양육비(C)	895	(451)	1,004	(1,068)	1,105	(833)	830	(717)
자녀 고유	677	(475)	699	(972)	808	(753)	604	(701)
가족 공동	218	(117)	305	(243)	297	(267)	227	(91)
비율(C/A)	32.9	(19.3)	32.3	(25.3)	34.8	(22.3)	31.2	(21.8)
비율(C/B)	41.5	(15.3)	26.8	(12.9)	37.8	(15.8)	33.4	(16.1)
(수)	(24)		(18)		(17)		(25)	



[그림 IV-3-4]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0세아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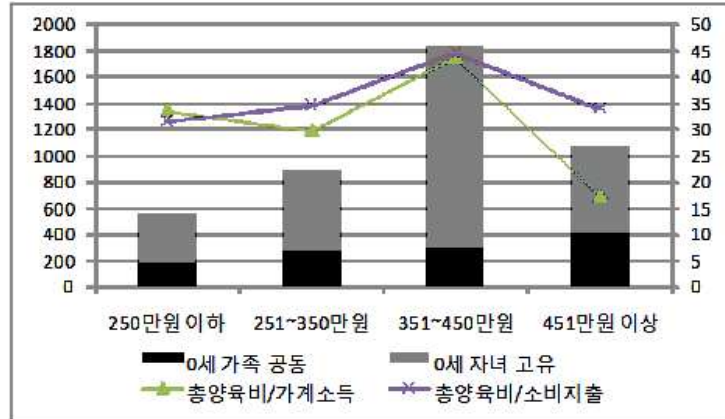
그러나 소득 대비 비율은 32.9%, 32.3%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41.5%, 26.8%이다. 즉, 다자녀 가구에서 0세아에 들어가는 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이 한 자녀 가정과는 차이를 보인다.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양육비가 취업모는 110만5천원, 미취업은 83만원이며 자녀 단독 비용은 각각 80만8천원, 60만4천원이다. 총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34.8%, 31.2%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37.8%, 33.4%이다.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표 IV-3-17〉 소득수준별 0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 이하		351~450만원 이하		451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1,777	(460)	2,996	(333)	4,219	(280)	8,210	(6,551)
소비지출(B)	1,824	(513)	2,548	(1,090)	3,990	(2,110)	3,412	(1,323)
총양육비(C)	556	(288)	894	(650)	1,835	(1,106)	1,071	(504)
자녀 고유	369	(296)	615	(695)	1,543	(1,002)	663	(346)
가족 공동	187	(94)	278	(133)	292	(193)	408	(385)
비율(C/A)	33.6	(20.6)	29.8	(21.5)	43.7	(26.2)	17.3	(12.1)
비율(C/B)	31.6	(16.1)	34.8	(17.3)	44.8	(10.1)	34.1	(18.2)
(수)	(19)		(10)		(8)		(5)	



[그림 IV-3-5] 소득수준별 0세아 양육비

가구소득별 차이를 살펴보면, 양육비와 자녀 단독 비용이 250만원 이하는 55만6천원, 36만9천원, 251~350만원 이하가 89만4천원, 61만5천원, 351~450만원 이하가 183만5천원, 154만3천원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와 자녀 단독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소득이 가장 높은 451만원 이상은 251~350만원 이하 가구보다 더 낮은 수준인 107만1천원, 66만3천의 수준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소득 대비 양육비와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351~450만원 이하 가구로, 각각 43.7%, 44.8%로 나타났다.

나) 1세아

다음 만1세아 양육비를 자녀가 1명인 가구, 2명인 가구, 3명인 가구는 아동 단독 양육비가 56만9천원, 22만원, 15만8천원으로 총액은 각각 108만8천원과 51만2천원, 40만3천원이다. 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28.9%, 18.8%, 12.4%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8.2%, 20.0%, 13.6%로 다자녀 가구에서 1세아 한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은 자녀수와 반비례 한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의 만1세 양육비가 97만2천원, 자녀 단독비가 55만5천원으로 미취업모 양육비의 63만4천원, 자녀 단독비의 28만2천원보다 1.5배~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은 취업모가 20.9%, 미취업모가 25.3%로 미취업모의 비율이 높고,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은 취업모가 32.9%, 미취업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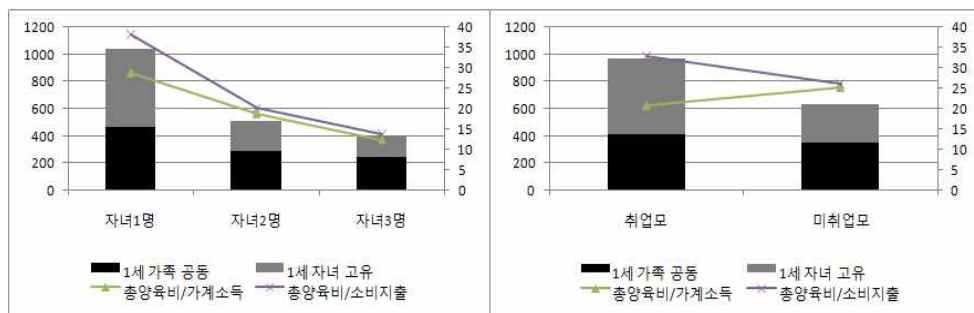
33) 이는 출산선물 등 주변 자원의 풍부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26.1%로 취업모가 높다.

〈표 IV-3-18〉 자녀수별 1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자녀수						모 취업			
	자녀1명		자녀2명		자녀3명		자녀1명		자녀2명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4,382	(3,412)	4,050	(6,495)	3,083	(1,010)	6,529	(7,405)	2,643	(799)
소비지출(B)	2,705	(1,291)	2,559	(964)	2,870	(739)	2,837	(1,204)	2,516	(1,062)
총양육비(C)	1,038	(621)	512	(326)	403	(227)	972	(715)	634	(377)
자녀 고유	569	(544)	220	(258)	158	(151)	555	(585)	282	(308)
가족 공동	469	(238)	293	(159)	246	(112)	417	(269)	353	(178)
비율(C/A)	28.9	(15.0)	18.8	(12.6)	12.4	(3.3)	20.9	(14.7)	25.3	(14.5)
비율(C/B)	38.2	(11.1)	20.0	(8.2)	13.6	(5.2)	32.9	(14.9)	26.1	(11.9)
(수)	(40)		(38)		(3)		(32)		(49)	



[그림 IV-3-6]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1세아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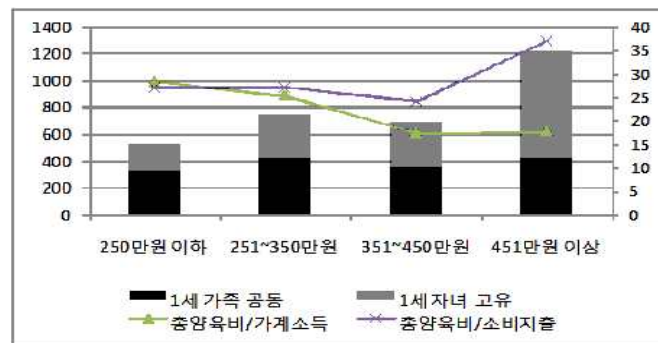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1세아 양육비는 0세와 양육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0세아에서는 가장 높은 소득계층에서 양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1세아의 가장 높은 소득계층에서는 양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와 자녀 고유 비용을 소득계층별에 따라 살펴보면, 250만원 이하는 53만6천원, 20만6천원, 251~350만원 이하 가구는 75만5천원, 34만원, 351~450만원 이하 가구는 69만3천원, 32만9천원, 451만원 이상 가구는 122만5천원, 80만6천원을 지출한다. 350만원 이하 가구들에서는 소득 대비 양육비와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이 25~27% 정도이며, 그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는 소득 대비 18%정도로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표 IV-3-19〉 가구소득수준별 1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이하		351~450만원이하		451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1,957	(432)	3,010	(257)	3,938	(266)	9,599	(9,171)
소비지출(B)	2,044	(650)	2,744	(937)	3,092	(1,470)	3,147	(1,303)
총양육비(C)	536	(244)	755	(519)	693	(380)	1,225	(809)
자녀 고유	206	(129)	340	(402)	329	(278)	806	(692)
가족 공동	330	(168)	415	(299)	363	(178)	419	(194)
비율(C/A)	28.3	(13.3)	25.4	(17.9)	17.6	(10)	17.8	(12.2)
비율(C/B)	27.1	(11.1)	27.1	(13.3)	24.2	(11)	37.1	(16.4)
(수)	(28)		(23)		(13)		(17)	



〔그림 IV-3-7〕 가구소득수준별 1세아 양육비

다) 2세아

2세아 역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양육비 총액과 자녀 단독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1명일 때는 양육비가 94만6천원, 자녀 단독비가 43만9천원이지만, 자녀가 3명일 때는 양육비가 40만2천원, 자녀 단독비가 18만9천원으로 42~43% 수준으로 떨어진다. 소득대비 양육비 비율이나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 역시 자녀가 1명일 때는 31.7%, 37.4%에서 자녀가 3명일 때는 15.8%, 13.0%로 15.9%, 24.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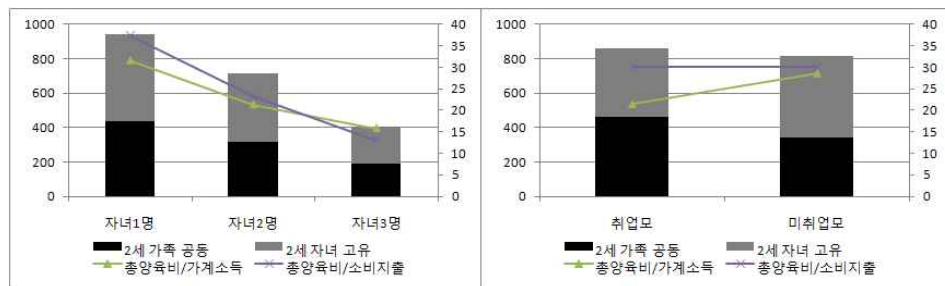
모취업별 2세아 양육비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양육비가 86만1천원, 자녀 단독비가 46만3천원, 미취업모의 양육비가 81만4천원, 자녀 단독비가 34만9천원으로 0세나 1세

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출대비 양육비는 차이가 없으며, 소득 대비 양육비는 취업모가 21.5%, 미취업모가 28.6%로 나타났다.

〈표 IV-3-20〉 자녀수별 2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자녀수						모 취업			
	자녀1명		자녀2명		자녀3명		자녀1명		자녀2명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3,706	(3,502)	3,727	(1,938)	2,690	(410)	5,110	(4,176)	3,069	(1,555)
소비지출(B)	2,534	(1,475)	3,176	(1,478)	2,967	(619)	3,161	(1,481)	2,726	(1,477)
총양육비(C)	946	(714)	718	(324)	402	(247)	861	(329)	814	(657)
자녀 고유	507	(489)	399	(210)	213	(44)	398	(190)	474	(445)
가족 공동	439	(336)	319	(261)	189	(203)	463	(261)	340	(319)
비율(C/A)	31.7	(22.7)	21.4	(9.1)	15.8	(11.6)	21.5	(11.6)	28.6	(20.3)
비율(C/B)	37.4	(10.4)	23.2	(6.7)	13.0	(5.6)	30.1	(11.3)	30	(11.9)
(수)	(34)		(31)		(2)		(21)		(45)	



[그림 IV-3-8]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2세아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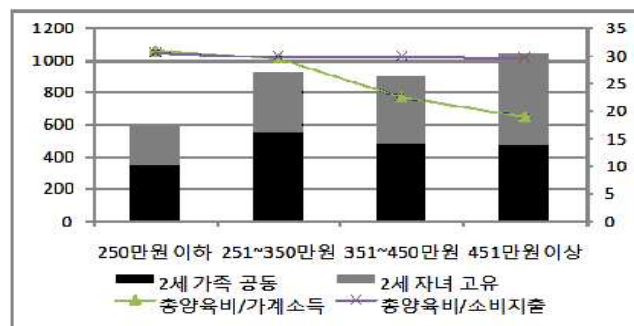
2세아도 가구 소득이 많아질수록 양육비와 자녀 단독비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비와 자녀 단독비가 250만원 이하는 59만원, 23만7천원, 251~350만원 이하는 92만6천원, 37만4천원, 351~450만원 이하는 90만6천원, 42만1천원, 451만원 이상은 194만8천원, 57만5천원이다.

그러나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양육비도 동반하여 많아지기는 하나, 소득 대비 비율은 낮은 소득계층부터 31%, 29.6%, 22.5%, 18.9%로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30% 전후로 비슷하다.

〈표 IV-3-21〉 가구소득 수준별 2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250만원이하		251~350만원이하		351~450만원이하		451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1,990	(462)	3,077	(258)	4,041	(294)	6,837	(4,510)
소비지출(B)	1,989	(710)	3,044	(1,995)	3,315	(1,542)	3,691	(1,139)
총양육비(C)	590	(300)	926	(989)	906	(345)	1,048	(354)
자녀 고유	237	(256)	374	(328)	421	(280)	575	(278)
가족 공동	354	(122)	552	(690)	485	(292)	473	(285)
비율(C/A)	31	(15.2)	29.6	(29.7)	22.5	(8.5)	18.9	(8.9)
비율(C/B)	30.6	(12.8)	29.8	(12.4)	29.9	(10.7)	29.6	(10.3)
(수)	(25)		(15)		(12)		(15)	



〔그림 IV-3-9〕 가구소득 수준별 2세아 양육비

라) 3세아

한 자녀 가구의 3세아 양육비는 96만7천원, 두 자녀 가구는 68만원, 세 자녀 가구는 39만5천원으로 자녀가 1명씩 많아질 때마다 30~40%씩 감소한다.

자녀 고유 지출도 자녀가 1명일 때는 43만6천원이나, 자녀가 3명일 때는 15만9천원으로, 36%의 수준으로 낮았다.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지출 대비 양육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 자녀 가구는 32.1%, 35.9%, 두 자녀 가구는 25.5%, 26.2%, 세 자녀 가구는 14%, 15.9%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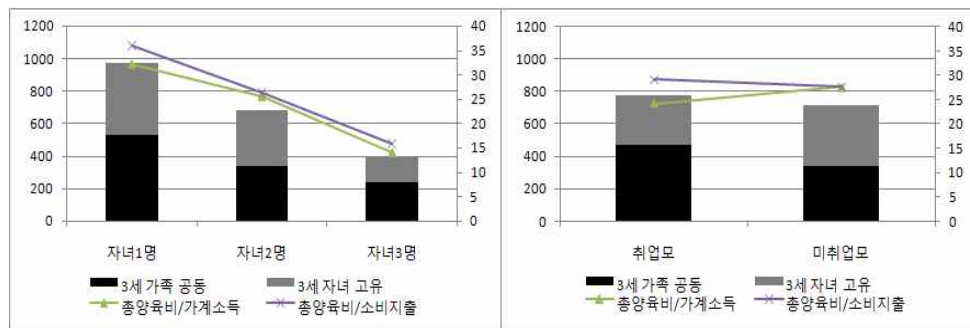
2세아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3세 역시 모취업여부에 따른 양육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비교해 보면 취업모가 77만5천원, 미취업모가 71만7

천원, 자녀 단독비의 경우 취업모가 30만5천원, 미취업모가 37만9천원이다.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을 보면, 취업모는 24.2%, 미취업모는 27.6%로 미취업모가 높으며,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의 경우, 취업모는 29.1%, 미취업모는 27.6%이다.

〈표 IV-3-22〉 자녀수별 3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자녀수						모 취업			
	자녀1명		자녀2명		자녀3명		자녀1명		자녀2명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3,243	(1,259)	3,105	(1,498)	3,075	(1,491)	3,761	(1,879)	2,822	(990)
소비지출(B)	2,554	(1,127)	2,616	(917)	2,506	(487)	2,668	(845)	2,553	(998)
총양육비(C)	967	(666)	680	(308)	395	(105)	775	(376)	717	(485)
자녀 고유	436	(613)	341	(263)	159	(59)	305	(225)	379	(442)
가족 공동	531	(315)	338	(131)	236	(90)	470	(272)	338	(164)
비율(C/A)	32.1	(22.8)	25.5	(16.9)	14	(3.5)	24.2	(13.1)	27.6	(20.7)
비율(C/B)	35.9	(10.7)	26.2	(8.2)	15.9	(3.5)	29.1	(9.8)	27.6	(10.4)
(수)	(15)		(37)		(4)		(19)		(37)	



〔그림 IV-3-10〕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3세아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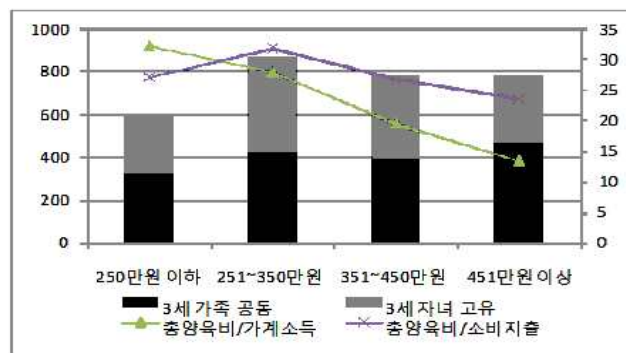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는 0, 1, 2세와는 다르게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와 자녀 단독비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250만원 이하의 양육비는 59만7천원, 자녀 단독비는 27만2천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 다른 소득계층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계층은 양육비가 78만원~87만원, 자녀 단독비가 32만원~45만원으로 비슷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250만원 이하 가구는 32.2%, 251~350만원 이하는

27.9%, 351~450만원 이하는 19.6%, 451만원 이상 가구는 13.5%를 나타냈다.

〈표 IV-3-23〉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 이하		351~450만원 이하		451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1,933	(428)	3,066	(232)	4,009	(259)	6,183	(1,300)
소비지출(B)	2,153	(752)	2,584	(872)	3,148	(1,107)	3,203	(731)
총양육비(C)	597	(339)	868	(625)	784	(231)	785	(470)
자녀 고유	272	(233)	445	(592)	394	(260)	320	(236)
가족 공동	325	(201)	423	(226)	390	(128)	465	(329)
비율(C/A)	32.2	(21.6)	27.9	(19.1)	19.6	(5.9)	13.5	(9.8)
비율(C/B)	27.1	(9.6)	31.8	(11.9)	26.7	(7.5)	23.5	(10.1)
(수)	(22)		(17)		(11)		(6)	



〔그림 IV-3-11〕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

마) 4세아

4세아의 자녀수별 양육비는, 자녀가 한 명인 가구의 양육비는 131만6천원, 자녀 단독비는 83만2천원,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각각 76만6천원, 39만4천원, 자녀가 세 명인 가구는 각각 78만8천원, 51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 단독비와 양육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경향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세 자녀 가구의 사례수도 적을 뿐 더러 통상적이지 않은 사례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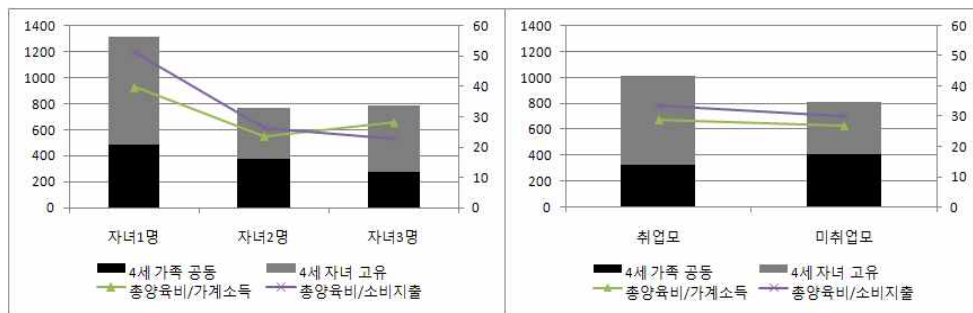
또한 자녀 1명인 가구의 양육비를 주목해 보면, 131만6천원으로 3세아까지의 연령들보다 현저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39.8%, 23.4%, 28.1%이며, 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51.3%, 26.5%, 22.9%이다.

4세아의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비를 살펴보면, 0세와 1세와 마찬가지로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양육비는 101만7천원, 자녀 단독비는 68만5천원 지출하고 있었고, 미취업모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81만1천원, 39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양육비로 볼 때 취업모가 1.7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이 취업모가 29%, 미취업모가 27%,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이 취업모가 33.8%, 미취업모가 30%로 취업모가 오히려 미취업모보다 비율이 높았다.

〈표 IV-3-24〉 자녀수별 4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자녀수						모 취업			
	자녀1명		자녀2명		자녀3명		자녀1명		자녀2명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3,633	(1,632)	3,350	(1,089)	2,930	(921)	3,880	(1,392)	2,998	(916)
소비지출(B)	2,622	(1,418)	2,943	(1,192)	3,362	(482)	3,085	(1,290)	2,832	(1,099)
총양육비(C)	1,316	(887)	766	(432)	788	(335)	1,017	(738)	811	(458)
자녀 고유	832	(761)	394	(345)	518	(329)	685	(671)	395	(275)
가족 공동	484	(384)	372	(162)	270	(92)	331	(128)	416	(272)
비율(C/A)	39.8	(27.9)	23.4	(10.3)	28.1	(11.6)	29	(23.2)	27	(11.7)
비율(C/B)	51.3	(16.2)	26.5	(8.6)	22.9	(7.9)	33.8	(17.2)	30	(13.5)
(수)	(9)		(25)		(6)		(1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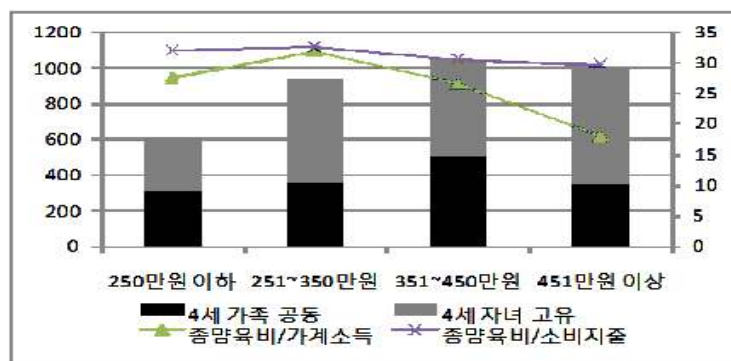
〔그림 IV-3-12〕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4세아 양육비

가구 소득수준별에 따른 4세아 양육비를 살펴보면, 25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는 60만6천원, 자녀 단독비는 30만5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51만원 이상 가구의 양육비와 자녀 단독비는 94만원~104만원, 55만원~66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450만원 이하의 가구까지는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이 27%~32%로 비슷하였으며, 451만원 이상 가구만이 18%로 낮았고,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30%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V-3-25〉 가구소득수준별 4세아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이하		351~450만원이하		451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2,166	(428)	2,937	(275)	3,948	(178)	5,970	(1,250)
소비지출(B)	2,154	(1,037)	2,873	(927)	3,428	(1,057)	3,609	(1,763)
총양육비(C)	606	(326)	939	(732)	1,043	(490)	1,001	(744)
자녀 고유	305	(231)	586	(701)	546	(264)	658	(596)
가족 공동	301	(132)	353	(130)	497	(348)	343	(155)
비율(C/A)	27.5	(11.7)	31.8	(22.9)	26.6	(12.8)	18	(16.1)
비율(C/B)	32.0	(16.2)	32.5	(18.0)	30.6	(11.3)	29.6	(15.8)
(수)	(10)		(14)		(12)		(4)	



[그림 IV-3-13] 가구소득수준별 4세아 양육비

바) 5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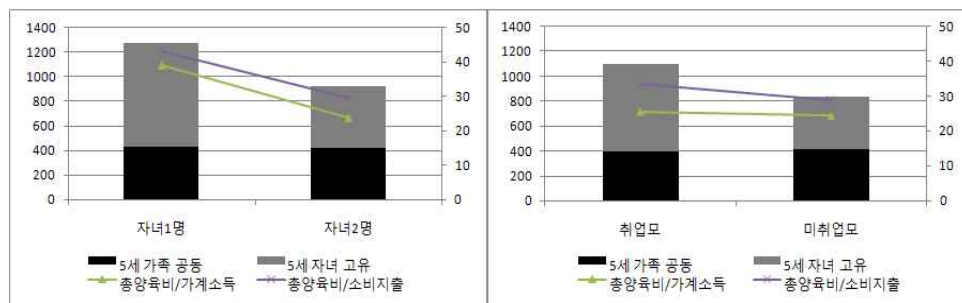
5세아 한 자녀 가구의 양육비는 126만8천원, 자녀 단독비는 84만5천원이고, 두 자

녀 있는 가구의 양육비는 91만2천원, 자녀 단독비는 50만1천원으로, 두 자녀 가구가 한 자녀 가구보다 양육비는 72%, 자녀 단독비는 59% 수준이다. 5세아도 4세아에서 나타난 경향처럼, 자녀 1명 가구의 양육비 총액이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과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자녀가 1명일 때 각각 39.1%, 43%, 자녀가 2명일 때 23.6%, 29.5%로 나타났다.

〈표 IV-3-26〉 자녀수 및 모 취업여부별 5세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자녀1명		자녀2명		취업		미취업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3,200	(1,082)	5,650	(8,178)	8,091	(12,025)	3,750	(2,085)
소비지출(B)	2,764	(1,280)	3,129	(1,270)	3,326	(1,267)	2,933	(1,218)
총양육비(C)	1,268	(882)	912	(505)	1,099	(660)	840	(458)
자녀 고유	845	(876)	501	(401)	703	(594)	431	(336)
가족 공동	423	(141)	412	(233)	396	(183)	409	(249)
비율(C/A)	39.1	(18.3)	23.6	(14)	25.6	(20.1)	24.3	(11.7)
비율(C/B)	43.0	(9.8)	29.5	(11.5)	33.4	(14.7)	28.9	(10.3)
(수)	(3)		(23)		(10)		(17)	



[그림 IV-3-14]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5세아 양육비

가구 소득수준별 5세의 양육비는 다른 일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와 자녀 단독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고소득 계층인 451만원 이상은 예외를 보였다. 250만원 이하의 가구는 양육비가 57만4천원, 자녀 단독비는 23만원, 251~350만원 이하 가구는 각각 75만5천원, 47만8천원, 351~450만원 이하의 각각 146만7천원, 자녀 단독비는 92만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451만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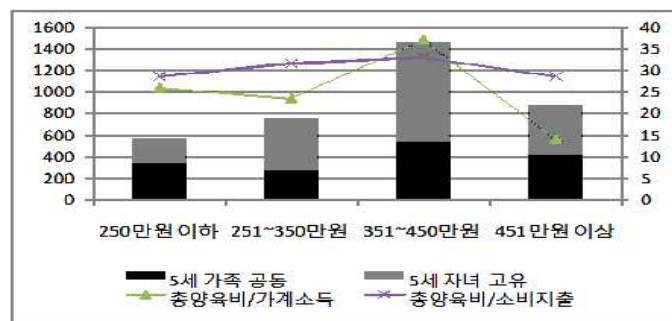
상 가구는 각각 87만9천원, 45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과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350만원 이하 가구는 비슷하여 각각 24%~26%, 29%~32%의 수준을 보였고, 가장 양육비의 지출이 많은 351~450만원 이하 가구는 각각 37.1%, 33.2%, 451만원 이상은 각각 14.2%, 28.7%를 나타냈다.

〈표 IV-3-27〉 가구 소득수준별 5세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 이하		351~450만원 이하		451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2,272	(226)	3,250	(302)	3,931	(264)	10,501	(12,977)
소비지출(B)	2,112	(533)	2,265	(657)	4,439	(1,187)	3,224	(794)
총양육비(C)	574	(183)	755	(532)	1,467	(606)	879	(365)
자녀 고유	230	(141)	478	(492)	925	(572)	455	(261)
가족 공동	344	(133)	278	(67)	543	(294)	423	(241)
비율(C/A)	26.0	(10.6)	23.5	(16.8)	37.1	(14.5)	14.2	(9.7)
비율(C/B)	28.8	(12.9)	31.8	(12.9)	33.2	(12.4)	28.7	(12.4)
(수)	(6)		(6)		(7)		(8)	



〔그림 IV-3-15〕 가구 소득수준별 5세 양육비

사) 6세아

6세아 역시 자녀 1인 가구의 양육비가 133만5천원으로서 0~3세에 비해 높은 편으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양육비와 자녀 단독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 1인 가구의 자녀 단독비는 80만4천원이고, 자녀 2인 가구의 양육비는 97만6천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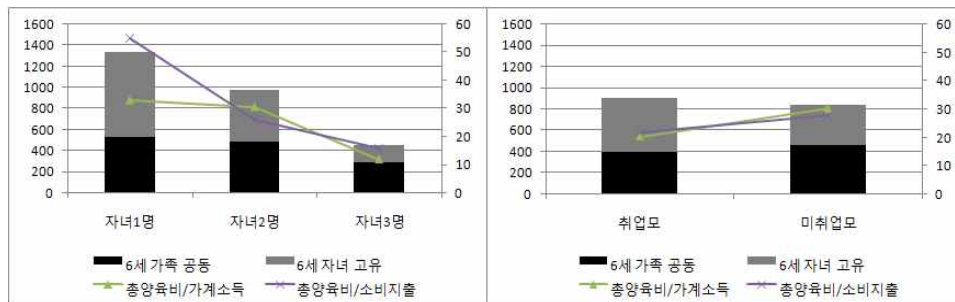
녀 단독비는 49만4천원, 자녀 3인 가구는 각각 44만4천원, 16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 가구와 자녀 3인 가구의 양육비와 자녀 단독비를 비교해 보면 자녀 1인 가구가 자녀 3인 가구보다 각각 4.9배, 3배를 지출한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과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낮아져 각각 자녀 1명인 경우 32.9%, 54.9%, 자녀 2명인 경우 30.5%, 26.0%, 자녀 3명인 경우 11.8%, 15.7%를 나타냈다.

〈표 IV-3-28〉 자녀수별 6세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자녀수						모 취업			
	자녀1명		자녀2명		자녀3명		자녀1명		자녀2명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A)	4,060	(-)	3,400	(1,412)	3,858	(847)	4,390	(1,083)	2,956	(1,027)
소비지출(B)	2,434	(-)	3,731	(1,412)	2,922	(625)	3,854	(1,371)	3,192	(1,207)
총양육비(C)	1,335	(-)	976	(680)	444	(54)	912	(921)	843	(344)
자녀 고유	804	(-)	494	(671)	163	(135)	511	(897)	381	(256)
가족 공동	531	(-)	481	(248)	281	(89)	401	(217)	462	(243)
비율(C/A)	32.9	(-)	30.5	(14.8)	11.8	(2.3)	20.3	(17.7)	30.4	(11.6)
비율(C/B)	54.9	(-)	26.0	(9.7)	15.7	(3.7)	21.8	(13.6)	27.7	(10.9)
(수)	(1)		(12)		(4)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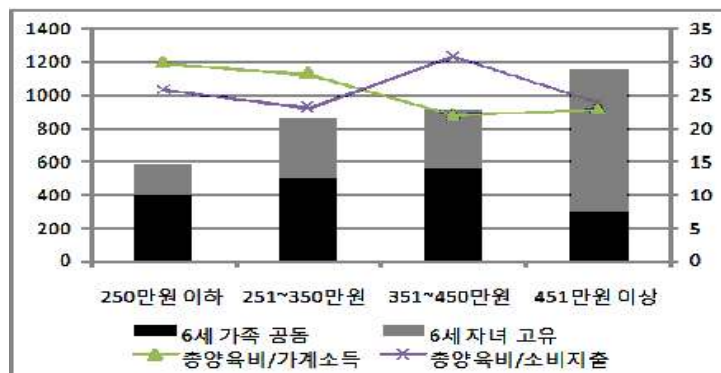
〔그림 IV-3-16〕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6세아 양육비

6세아 모 취업여부별 양육비는 취업모의 자녀 단독비는 51만1천원, 양육비는 91만 2천원이고, 미취업모의 자녀 단독비는 38만1천원, 양육비는 84만 3천원이다.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과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취업모의 경우 20.3%, 21.8%이며, 미취업모는 30.4%, 27.7%이다.

〈표 IV-3-29〉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 이하		351~450만원 이하		451만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A)	2,088	(497)	3,097	(263)	4,120	(159)	5,250	(714)
소비지출(B)	2,303	(471)	3,668	(1,306)	3,301	(751)	4,443	(1,452)
총양육비(C)	581	(74)	857	(386)	912	(482)	1,153	(1,195)
자녀 고유	183	(86)	357	(280)	359	(387)	859	(1,117)
가족 공동	398	(157)	500	(275)	553	(271)	295	(163)
비율(C/A)	29.8	(11.6)	28.2	(13.6)	22.0	(11.7)	22.9	(24.2)
비율(C/B)	25.8	(4.7)	23.1	(6.0)	30.8	(22.5)	23.9	(17.6)
(수)	(4)		(6)		(3)		(4)	



〔그림 IV-3-17〕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높아짐에 따라 양육비 수준이 높아진다. 250만원 이하 가구의 양육비는 58만1천원, 자녀 고유 지출은 18만3천원이지만, 251~350만원은 각각 85만7천원, 35만7천원, 351~450만원 이하 가구는 91만2천원, 35만9천원, 451만원 이상은 115만3천원, 85만9천원으로 가장 저소득층 가구와 비교해 볼 때, 각각 약 2배, 5배로 격차가 크게 났다.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은 35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28%~30%, 351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22%~23%로 나타났고,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2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 자녀 가구

자녀가 한 명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벌이여부별 양육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첫 번째 자녀 양육비 부담 인식이 두 번째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육비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한 자녀 연령별

한 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양육비를 살펴보면, 양육비의 경우 0세는 89만9천원, 1세는 106만5천원, 2세는 102만2천원, 3세는 96만8천원으로 약 90만원~106만원 수준이지만, 4세아는 131만6천원, 5세는 126만8천원, 6세는 133만5천원으로 약 127만원~134만 수준으로 0세~3세보다 30만원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3-30〉 한 자녀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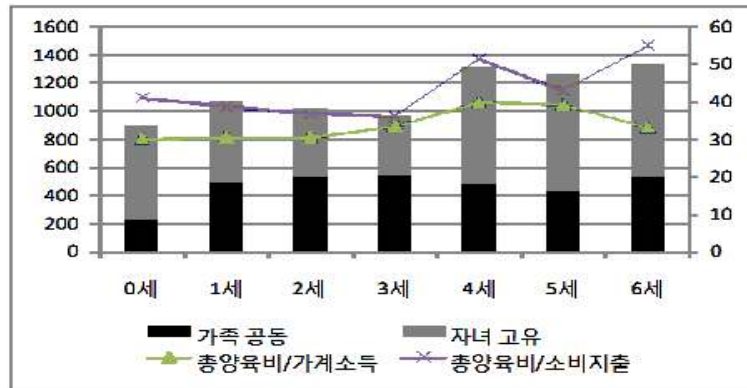
단위: 천원, %(가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가계소득(A)	3,770 (3,881)	4,399 (3,631)	4,087 (3,659)	3,004 (882)	3,633 (1,632)	3,200 (1,082)	4,060 (-)
소비지출(B)	2,208 (901)	2,735 (1,168)	2,750 (1,489)	2,536 (1,167)	2,622 (1,418)	2,764 (1,280)	2,434 (-)
총양육비(C)	899 (467)	1,065 (601)	1,022 (748)	968 (691)	1,316 (887)	1,268 (882)	1,335 (-)
자녀 고유	671 (497)	576 (535)	493 (334)	428 (635)	832 (761)	845 (876)	804 (-)
가족 공동	229 (120)	489 (241)	528 (526)	540 (324)	484 (384)	423 (141)	531 (-)
비율(C/A)	30.1	30.4	30.4	33.3	39.8	39.1	32.9
비율(C/B)	41.1	38.7	36.6	36.0	51.3	43.0	54.9
(수)	(21)	(35)	(29)	(14)	(9)	(3)	(1)

자녀 고유 지출의 경우에도, 0세는 67만1천원, 1세는 57만6천원, 2세는 49만3천원, 3세는 42만8천원으로 43만원~67만원 수준이지만, 4세는 83만2천원, 5세는 84만5천원, 6세는 80만4천원으로 약 80만원~85만원 수준으로 4세를 기점으로 지출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이와 연동하여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과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이 높은 연령은 4, 5세로 4세는 각각 39.8%, 51.3%이며 5세는 39.1%, 43.0%이다. 6세의 지출 대

비 양육비 비율 역시 54.9%로 높은 편이다.



[그림 IV-3-18] 한 자녀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한 자녀 가구의 연령별 양육비 세부 항목별 지출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3-31>과 같다.

분유와 이유식은 0세의 지출이 각각 6만6천원 1만5천원으로 가장 많고, 당류 및 과자류는 2세~5세의 지출이 약 1만5천원~2만원 수준이다.

외·내의 및 관련 서비스는 모든 연령대가 약 3만원~5만원 수준이나 6세때 14만4천원으로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 및 이유식기는 발달시기상 0세와 1세의 지출이 많아 월 평균 만원대의 지출을 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 역시 발달시기상 영아의 접종이 많아, 0세는 월 5만9천원, 1세는 3만4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서적이나 교구교재비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0세는 3만1천원, 1세는 7만3천원, 2세는 8만5천원의 수준으로 10만원 이내였지만, 3세에는 17만2천원, 4세에는 16만원, 5세에는 44만6천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치원 순수교육비는 4세가 40만6천원으로 가장 지출이 많았으며, 영유아 전문학원은 0세부터 5세까지 고루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세가 6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3-31〉 한 자녀 가구 연령별 양육비 세부 항목별 지출

단위: 천원(가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분유	66	9	-	-	-	-	-
당류 및 과자류	5	11	16	18	19	15	10
이유식	15	1	1	-	-	-	-
계	86	20	17	18	19	15	10
외·내의및관련서비스	33	45	40	35	34	27	144
기타의복	6	8	6	-	9	8	-
신발, 신발서비스	6	10	12	8	2	11	-
계	45	63	57	43	45	46	144
젖병 및 이유식기	13	6	2	1	1	-	-
계	13	6	2	1	1	-	-
영유아 예방접종비	59	34	2	-	-	-	-
계	59	34	2	-	-	-	-
영유아 서적, 교구교재	31	73	85	172	160	446	3
계	31	73	85	172	160	446	3
유치원 순수교육비	-	14	64	63	406	100	320
유치원 특기활동 등	-	2	8	8	31	21	20
영유아 전문 학원	20	61	35	14	16	20	-
음악학원	-	-	-	-	11	-	140
외국어학원	-	-	-	-	-	-	168
미술학원	-	-	-	21	-	-	-
운동학원	-	-	-	-	7	45	-
방문학습지	-	5	30	11	40	24	107
계	20	82	137	117	511	210	755
아기 기저귀	49	50	14	2	-	-	-
아기 물티슈	7	9	6	1	-	2	-
아동 목욕위생용품	15	8	9	5	6	18	-
산모용품(렌탈포함)	3	-	-	-	-	-	-
승용용품 및 외출용품 (렌탈포함)	71	23	18	-	4	-	-
보행완구(렌탈포함)	16	-	-	-	3	-	-
돌/백일 위탁비용	107	10	-	-	-	-	-
장난감(렌탈포함)	26	48	34	17	17	24	4
소계	294	149	81	25	31	45	4
산후조리원	-	-	-	-	-	-	-
보육시설 순 이용료	9	38	70	55	125	47	-
보육시설 추가비용	-	-	7	20	24	28	-
보육도우미	8	118	1	-	-	-	-
혈연에 의한 보육료	138	34	38	-	-	-	-
소계	155	191	116	75	150	76	-
(수)	(21)	(35)	(29)	(14)	(9)	(3)	(1)

아기 기저귀는 0세와 1세가 5만원 정도 수준의 지출을 나타냈다. 승용용품과 외출용품, 돌/백일 위탁비용 역시 영아기의 지출이 많아 0세가 각각 7만원 정도, 10만7천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은 만5세까지 모든 연령이 약 2만원~5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세의 지출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보육과 관련된 항목의 지출을 살펴보면, 혈연에 의한 보육료는 0세가 제일 많아 13만8천원, 보육도우미는 1세가 제일 많아 11만8천원, 보육시설 이용료는 2세와 5세 때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맞벌이여부 및 연령별

맞벌이 가구의 자녀 연령별 양육비를 살펴보면, 영아기 초반 0, 1세와 유아기 후반 4, 5세때의 양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0세는 총 양육비와 자녀 고유 지출이 각각 107만3천원, 86만1천원이고, 1세는 128만9천원, 74만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4세는 이보다 높은 134만5천원, 96만3천원, 5세는 148만원, 112만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도 0세와 1세, 4세와 5세가 높아서 각각 45.3%, 41.2%, 47.3%, 46.2%로 가구 지출의 절반을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른다.

〈표 IV-3-32〉 한 자녀 맞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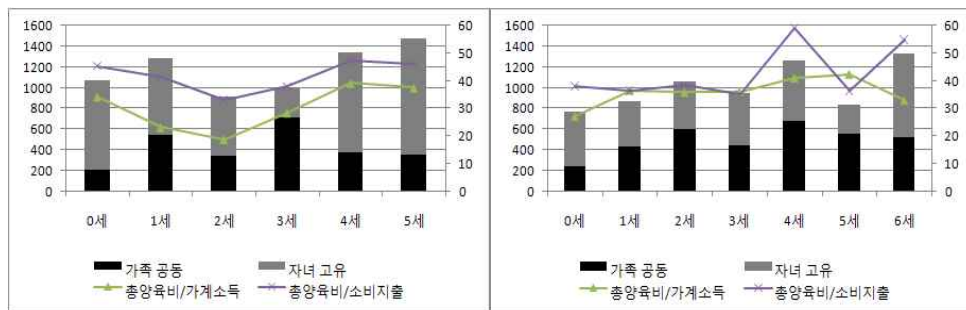
단위: 천원, %(가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가계소득(A)	3,409 (1,015)	6,778 (4,263)	6,463 (5,948)	3,560 (971)	4,050 (1,781)	3,800 (424)
소비지출(B)	2,507 (1,155)	3,024 (1,207)	2,834 (625)	2,694 (1,302)	2,827 (1,452)	2,989 (1,723)
총양육비(C)	1,073 (479)	1,289 (725)	919 (308)	1,003 (467)	1,345 (959)	1,480 (1,134)
자녀 고유	861 (567)	742 (617)	569 (192)	288 (172)	963 (904)	1,126 (1,029)
가족 공동	212 (162)	547 (316)	350 (189)	715 (399)	382 (129)	353 (105)
비율(C/A)	34.2	23.2	18.8	28.5	39.2	37.5
비율(C/B)	45.3	41.2	32.9	37.8	47.3	46.2
(수)	(9)	(16)	(9)	(5)	(6)	(2)

〈표 IV-3-33〉 한 자녀 외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단위: 천원, %(가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가계소득(A)	4,041 (5,143)	2,396 (704)	3,017 (975)	2,694 (700)	2,800 (1,082)	2,000 (-)	4,060 (-)
소비지출(B)	1,983 (614)	2,491 (1,107)	2,713 (1,761)	2,448 (1,158)	2,212 (1,548)	2,312 (-)	2,434 (-)
총양육비(C)	769 (431)	876 (403)	1,068 (882)	949 (816)	1,258 (917)	844 (-)	1,335 (-)
자녀 고유	528 (404)	435 (421)	459 (380)	506 (788)	571 (349)	282 (-)	804 (-)
가족 공동	241 (82)	441 (145)	609 (609)	443 (247)	688 (674)	562 (-)	531 (-)
비율(C/A)	27.1	36.5	35.7	36.0	40.9	42.2	32.9
비율(C/B)	38.0	36.5	38.3	35.1	59.1	36.5	54.9
(수)	(12)	(19)	(20)	(9)	(3)	(1)	(1)



[그림 IV-3-19] 한 자녀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서는 양육비의 지출이 적은 편인데, 0세부터 각 연령별로 양육비는 76만9천원, 106만8천원, 94만9천원, 125만8천원, 84만4천원, 133만5천원, 자녀 고유 비용은 52만8천원, 43만5천원, 45만9천원, 50만6천원, 57만1천원, 28만2천원, 80만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은 0세~3세의 경우 35%~38%이나, 4세와 6세의 경우 약 55%~59%로서 가구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세의 경우, 정황상 양육비의 지출이 4세와 6세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되나, 본 조사 결과표의 5세의 가구는 저소득층 사례 1가구이기 때문에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4. 요약 및 시사점

표본으로 선정된 247가구가 1개월 동안 작성한 가계부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본 조사 응답자의 특성이 소득수준이나 학력, 직업 등 사회경제적 위상이 일반 영유아 부모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대상자와 비교해 모두 높고,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도 가계동향조사 결과보다 다소 높아서, 4인 가구를 비교하면, 소득은 38만원, 지출은 66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5인 가족의 차이는 이처럼 크지 않다. 가계부조사 결과는 표본 규모나 응답자 특성으로 보나 대표성은 약하지만, 도시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서 특히 자녀수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육아 관련 용품 외에도 보육시설 이용료나 보육 도우미, 개인보험 등과 관련된 지출이 들어있는 기타상품 서비스이다. 한 자녀 가정의 경우 34만6천원, 두 자녀 가정은 38만4천원, 세 자녀 가정은 32만4천원이다. 기타상품 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지출을 보인 항목은 식료품 및 음료이다. 또한 교육비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교육비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31만6천원, 세 자녀 가정의 경우는 57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항목별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음료로 양육비의 23.9%를 차지하여 앞에서 분석한 그 어느 가정보다도 높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정의 양육비 산출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한 자녀의 양육비는 가구지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36~51%, 금액으로는 90만원~13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 비중은 부모의 취업이나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동일한 경향이다.

둘째, 그러나 양육비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 양육비 절대 액수로는 본 조사 결과, 자녀가 1인인 경우 한 자녀 양부모가정 103만9천원, 자녀 2인 가구 148만6천원, 3인인 경우 165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9.5%, 50.0%, 57.5%이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한 자녀 양부모가정 85만2천원, 자녀 2인 가구 132만4천원, 3인인 경우 158만7천원으로 각각 18만7천원, 16만2천원, 7만2천원 차이를 보였고,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9.8%, 55.5%, 69.0%로 한 자녀 3인가구는 차이가 없고 두 자녀 4인가구는 가계동향조사가 5.5% 높고, 3자녀 5인가구는 11.5%

가 높았다. 첫째 자녀는 양육비가 많이 들지만, 그러나 영유아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는 지출의 약 50%, 자녀가 3명인 5인 가구는 지출의 약 60% 정도를 지출한다. 이러한 비중은 부모의 취업이나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연령별로는 유아기, 특히 만4세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0세~3세보다 4세~6세에서 30만원 정도 더 양육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세를 기점으로 양육비 지출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지출 대비 비율도 연령별 영유아수별 1인당 양육비를 보면 0세~3세는 영유아수 증가와 함께 30%대에서 20%대, 10%대로 비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4세는 영유아수별로 각각 1인 양육비가 131만6천원, 76만6천원, 78만8천원으로 지출 대비 51.3%, 26.4%, 22.9%이며, 5세는 2자녀 4인 가구도 91만2천원으로 지출대비 30%를 차지한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선택에 따라 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넷째, 모의 취업상태별로 취업모가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만,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지출 대비 비중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비교해 보면, 두 자녀 가정까지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21~29만원 정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는 한 자녀 가구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은 관계로,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인 경우 47만9천원, 자녀 2인 가구 69만6천원, 3인인 경우 98만원이고, 맞벌이 가구 자녀 고유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인 경우 72만8천원, 자녀 2인 가구 92만6천원, 3인인 경우 7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도 양육비는 자녀가 1인인 양부모가정 71만6천원, 자녀 2인 가구 99만4천원, 3인인 경우 15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고유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인 경우 32만7천원, 자녀 2인 가구 42만7천원, 3인인 경우 87만3천원이며, 영유아가 1명 있는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도 77만5천원이고 고유 항목 지출이 40만7천원이다. 총 양육비는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총 양육비가 1인 약 58만원, 2인 약 97만원, 3인 111~140만원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거나 근접한다.

여섯째, 자녀 양육비 소비 지출을 순수하게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과 가구원 공동 생활을 위한 소비지출로 나누어 보았는데,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인 양부모가정 58만4천원, 자녀 2인 가구 76만7천원, 3인인 경우 8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식료품 및 음료는 0세에 6만8천원이 들어가고 이후부터는 2만원 정도로 감소하고 그 대신 공동 비용이 증가한다. 의류 및 신발은 평균 4만원 이상이 들어가

고, 가정용품 서비스 비용은 0세에 1만3천원이 지출되며 그 이후는 크게 감소한다. 보건비용도 0세에 5만3천원이 들어가고, 이후 크게 감소한다. 오락 문화비는 6세를 제외하고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한다. 교육비도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한다. 기타 상품 서비스비는 0세가 48만3천원 수준이고 연령이 낮아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곱째, 항목별 양육비는 가구원 수나 아동 연령에 따라 탄력성을 보인다. 12% 내외의 비율을 보이는 식료품 등 필수재를 제외하면 양부모 한 자녀 가정의 경우는 총 양육비 103만9천원 중 34만6천원을 기타상품 서비스에 지출함으로써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반면,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은 교육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정은 총 양육비 148만6천원 중 31만6천원을, 세 자녀 가정은 165만9천원 중 57만3천원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0세에는 교육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기타 상품 서비스는 0세아가 가장 많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젖병 및 이유식기, 예방접종, 아기기저귀는 0~1세때의 지출이 가장 많고, 영유아 서적이나 교구교재비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보육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혈연에 의한 보육료는 0세가, 보육도우미는 1세가, 보육시설 이용료는 2세와 5세가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에 대한 비용 지원 필요성의 배경과 동시에 첫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배경을 동시에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 비용과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이 증가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나타냈다. 이는 그간 보육 등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반영되었다.

둘째,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으나, 그러나 첫 번째 자녀에 대한 부담은 연령별로 소비 지출의 35~51%에 달하여서 출산 수준 제고 관점에서 한 자녀를 둔 가구가 또 다른 중요한 정책대상임을 시사하였다. 첫째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소비지출의 40%가 양육비라는 데 부담을 느끼며 두 번째 출산을 주저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도 있으므로 이에 홍보와 더불어 첫 번 자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

셋째,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양육비의 소득 대비 비율은 낮고,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으나, 양육비 수준 자체는 높다. 이는 소득 대비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취업모 추가 지원의 당위성은 약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추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여성 취업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고취시킨다는 관점에서는 맞벌이 가구 추가 지원 필요성 제기의 근거가 된다.

넷째, 저소득층의 양육비 지출이 최저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최소 30만원 이상 수준은 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영유아가 1명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도 77만5천원이고 자녀 고유 항목 지출이 40만7천원이다 따라서 보편적 수당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V.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 제언

이 연구는 기존의 조사와 연구에 비하여 영유아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영유아 양육비용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분화하여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현금 지원 등 현재 양육비용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양육비 산출 결과와 연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과 문제

가.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

1) 보육료 지원

부모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된다.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기준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³⁴⁾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교육은 소득계층 하위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다자녀 지원은 2010년부터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실상 전액을 지원하며, 맞벌이 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의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아 무상보육·교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차등보육료, 만5세아, 장애아 무상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건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79만5천건으로, 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비 67.7%이다. 만5세아는 해당아동

34)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소득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임.

중 70.0%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도 2009년 기준으로 만3세는 56.4%, 4세는 52.3%, 그리고 만5세는 53.5%로 총 287,721명의 유치원 원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하위소득 70%까지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기준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였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보조금 이외에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게는 기본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010년 0세아 35만원, 1세아 16만9천원, 2세아 11만2천원이다.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근거 하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도입시에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의 가정으로 차상위이하 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재원 아동,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제외된다.

2009년 12월까지 지원실적은 6만 9천명이다.³⁵⁾

3) 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

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35)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아동으로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등의 농어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이다.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의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여 농어업의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이다. 타 부처 지원 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시설이용과 미이용으로 구분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이다. 시설 미이용 시 지원액은 2010년 기준으로 최대 0세아 134,000원, 최소 4세아 60,000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2010년 2만9천명에서 2011년 1만3천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1만8천명에서 2만 1천명으로 대상 아동수를 조정하였다.

4) 입양아동 지원

정부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현금성 경제적 지원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18세까지 2011년 기준 매월 중증장애 62.7천원, 경중 및 기타장애 60.6천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6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에 의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입양 아동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04년에는 3,899명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2,439명으로 줄었고, 2004년에는 국외 입양이 2,258명으로 국내 입양 1,641명보다 더 많았지만, 최근 국내입양우선 추진에 의하여 2009년에는 국외 입양 1,125명, 국내 입양 1,314, 2010년은 각각 1,013명, 1,462명으로 국내입양아가 더 많아졌다.³⁶⁾

5)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요보호 아동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36)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및 내부자료.

이외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위탁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 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에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12,562명, 2006년에는 14,465명, 2007년에는 16,200명, 2008년에는 16,454명, 2009년에는 16,608명으로 이 중 대리 양육가정 아동수는 10,947명이고, 친인척 위탁 가정 아동수는 4,503명, 일반 위탁가정 아동수는 1,158명이다. 한편, 소년소녀가정은 2009년 말 18세 미만의 전국에 1,054세대에 이르는데, 2001년도부터 세대수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수 역시 줄고 있어 2009년 소년소녀가정아동 중 미취학 아동은 10명이다.³⁷⁾

6)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의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2007까지만 6세 미만이었다가 2008년에 만 8세 미만, 2009년에 만 10세 미만, 2010년에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이외 고교생학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한다.

2010년도 한부모가족복지예산 중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교육비의 대상수는 102,473명으로 서울이 23,388명, 경기도 22,891명으로 가장 많다.³⁸⁾

37)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38) 여성가족부(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여성가족부.

7)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 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한다. 수당지급금액은 중증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만원, 차상위계층 15만원이고, 경증장애인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10만원이다.

8) 예방접종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의료기관에서만 접종가능한 기타예방접종(선택예방접종)으로 나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11가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8종의 백신으로서 총 22회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종류로는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전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며, 선택예방접종은 A형 간염, 뇌수막염(Hib),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다. BCG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영유아 예방접종을 전국의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12세 미만아 예방접종을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일부를 위탁하여 비용을 30%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미숙아 등의 출산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내 입원 수술 및 치료비 지원에 한한다. 지원내용은 미숙아인 경우 2.0kg에서 2.5kg 미만은 5백만원, 1.5kg에서 2.0kg은 7백만원, 1.5kg 미만은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5백만원을 지원한다.

9)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만 2세~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나, 전국가구평균소득 100~12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바우처 지원액 20,000원 ~ 27,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독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되어 책 읽어주기, 도서지급 등을 수행한다.

2008년 1~10월 동안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월평균 생성자는 약 23만 7천여명으로, 이는 2002년~2007년 출산된 아동수가 약 2,831만 명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체 만 2세~5세 아동 중 약 8.4%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³⁹⁾

나. 특성 및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서비스 비용 지원

보편적 지원은 보육이나 예방접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서비스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대표적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보육의 경우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2004년과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비용 총액은 유사하지만 2009년에는 2004년 대비 순비용은 감소하고 추가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비용 감소는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액 지원아동도 보육료를 지불한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 의하면 면제 아동도 가구소득대비 4.6%에 해당되는 평균 55,000원을 보육시설 이용시에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정부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유아 보육료는 지원 단가와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상한선 또는 부모 부담 보육료에 차이가 있어서 정부가 전액지원이라고 하지만 부모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만족도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 경비는 지방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지역 차이를 보이며, 일부지역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은 의미있는 정책이지만 그 종류가 부모들이 요구하는 접종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민간 병의원도 참여하고는 있으나 비용부담이

39)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있고,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 운영은 이용 일과 시간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특히 취업부모들이 불편을 느끼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0, 1세아의 예방접종 비용이 평균 59,000원, 34,000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보육서비스 대체 현금 지원

복지서비스에 대체되는 현금 지원으로 양육수당과 농어민자녀양육비가 이에 해당된다. 양육수당의 지원은 정책적으로 부모들 간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도 취지는 다소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동시에 몇 가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다.

양육수당제도나 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은 모두 저소득층 대상 정책으로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저소득층은 영아라도 가정내 양육보다는 시설 이용이 아동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소지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또한 양육수당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로 아직 이에 대한 평가는 없으나 외국의 사례들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므로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 이용이나 여성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감안하여 금액 상향 조정 시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1, 2세아 지원금은 기본보육료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금액 확대는 신중하여야 하며, 조기교육 대상인 유아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지원대상의 확대와 금액의 조정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이나 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은 아동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대한 확신은 없으므로 사용처를 지정한 바우처로 발행하는 방법 등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도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3) 제한적 현금 지원

특수한 가정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정책들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금지원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 대상도 소수에 불과하다. 입양가정 양육보조금은 소득 기준은 없으나,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재가장애아동이며,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정이다.

둘째, 현금지원 수준이 미미하다. 그나마 장애아동 수당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차상위 이하 경증장애인 월 10만원이고 위탁 아동이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월 10만원이지만, 모자복지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은 월 5만원이다.

〈표 V-1-1〉 중앙정부의 자녀양육 수당 제도: 2011

구분	대상	급여액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만 36개월 미만	- 연령별 10~20만원
농어업인 자녀양육비	- 취약계층 농림어업 및 임업인 - 만0세~만5세 (만6세 취약유예 포함)	- 시설 미이용아동: 법정저소득지원 단가의 35% 지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 - 만 12세 미만 자녀	- 월 5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18세 미만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차상위 이하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 18세 미만 아동 위탁가정	- 월 1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 아동 입양 가정 - 입양아동 만 13세까지	- 월 10만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아 입양 가정 - 입양 장애아동 만 18세까지	- 경증: 월 602천원 - 중증: 월 627천원

2.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제언

가. 배경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분석 결과, 영유아 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인 경우 132만원, 3인인 경우 159만원으로 산출되었고, 가계부 조사에서도 중산층으로 추정되는 응답자들은 자녀가 1인인 양부모가정 104만원, 자녀 2인 가구 148만원, 3인인 경우 1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가

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총 양육비가 1인 약 58만원, 2인 약 97만원, 3인 111만원~14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잠정 최저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한 자녀 40%, 두 자녀 50%, 세 자녀 70% 이상 수준이다.

소요되는 양육비 내역을 조사된 아동 전체 평균으로 보면, 영아기에는 분유와 이유식은 0세의 지출이 각각 6만6천원, 1만5천원으로 가장 많고 아기 기저귀는 0세와 1세가 5만원 정도 수준의 지출을 나타냈다. 질병 및 이유식기는 0세와 1세에 평균 만원대의 지출을 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 역시 발달시기상 영아의 접종이 많아 0세가 6만원, 1세가 3만4천원 수준이고, 승용용품과 외출용품, 돌/백일 위탁비용 역시 영아기의 지출이 많아 0세가 각각 7만원 정도, 10만7천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은 만5세까지 모든 연령이 약 2만원~5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보육도 혈연에 의한 보육료는 0세가 제일 많아 13만8천원, 보육도우미는 1세가 제일 많아 11만8천원, 보육시설 이용료는 2세와 5세 때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영유아 서적이나 교구교재비는 크게 증가하며 유치원 순수교육비는 4세가 40만6천원으로 가장 지출이 많았으며, 영유아 전문학원은 0세부터 5세까지 고루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세가 6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부모들의 체감도는 지출하는 가정 중심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기저귀, 의복, 장난감 등은 친인척의 선물이나 친형제자매, 이웃 및 친인척이 사용하던 물품 사용으로 항목에 따라서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비용을 지출한다는 아동만을 별도로 뽑아서 보면 0세아 분유값은 월 12만원, 예방접종비는 16만원, 기저귀 9만원 등이며, 승용용품과 외출용품, 돌/백일 위탁비용 역시 영아기의 지출이 많아 0세가 각각 22만원 정도, 60만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난감은 영아는 월 4~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보육도 혈연에 의한 보육료는 0, 1세는 5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양육비 지출을 감안하면 현재 많은 양육비용 지원 평균 수준 10만원 정도는 대체로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되므로,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단, 중장기로 구분하며 보고자 한다.

나. 단기 정책제언

1) 서비스 비용 지원 실효성 확보

정부 영유아 양육 서비스 비용 지원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이 확대와 더불어 지원 대상의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중산층 취업모는 대부분 정책대상에서 소외된다. 또한 전액지원이라고 하지만 특히 유아의 경우 단가 자체가 낮으며, 추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지원을 받는 부모조차도 체감도는 매우 낮다. 소득이 비교적 높은 부모가 조사 대상인 가계부 조사에서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4세의 양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0세~3세보다 4세~6세에서 30만원 정도 더 양육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세를 기점으로 유아교육기관 선택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지출 대비 비율도 연령별 영유아 수별 1인당 비율은 0세~3세는 영유아 수 증가와 함께 30%대에서 20%대, 10%대로 비율이 낮아지지만, 4세 이상은 영유아 2명인 4인 가구도 지출대비 30% 가까이를 교육비로 지불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 대상을 비정규직까지 넓혀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양육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다. 즉, 소득 대비 일정 부분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맞벌이의 절대적 1인당 양육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가계부 조사 결과로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비교해 보면, 두 자녀 가정까지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21~29만원 정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는 한 자녀 가구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은 관계로,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가계 부담이 된다. 정부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펼치면서 보건소에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료로 접종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살거나 취업의 경우는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의 접종도 비용의 30%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지정된 소수의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지원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필수와 선택예방접종의 차이는 질환의 경중의 문제가 아닌 예산상의 문제로 국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

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아동 예방접종 비용 평균은 0세는 월 5만9천원, 1세는 3만4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만을 보면 0세가 16만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필수예방접종을 30% 비용 지원을 받아 22회를 접종하는데도 33만원이 소요되며, 정부 지원이 전혀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로타바이러스(30만원), 폐구균(15만원) 등 선택 예방접종까지 접종하게 되면 부담은 훨씬 크다.

2) 각종 수당 액수 현실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자녀양육 관련 수당의 지원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은 2011년부터 연령별로 차등을 두면서 조정하여 0세는 2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1, 2세는 기본보육료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놓여진 지원 금액은 시설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로 연령별로 최고는 0세 13만5천원이지만, 4세는 6만원이다. 장애아동 수당도 경증은 월 10만원이고, 특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은 월 5만원이다.

이러한 기준은 산출된 양육비용 중 소득 200만원 이하 영유아 2인 가구의 1인 양육비 지출 수준이 58만원이라는 점이나 분유와 기저귀, 물티슈 등 기본적 소요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 평균은 20만원 정도라는 결과를 감안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영아 자녀양육비용이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교육이 시작되면서 증가한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세를 통한 지원 확대

소득공제와 같은 조세를 통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는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를 연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보육수당을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데, 취업모에게는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보육수당도 기업이 지급하는 전액을 비과세하여 취업모와 그 이위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또한 대상 자체를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등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이웃탁아모 등 비공식분야의 보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중장기 정책제언

1) 아동수당 지원

중장기 정책으로는 영유아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보편적 현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일반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 대한 보편적 자녀 양육지원은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이 대표적이지만, 서비스 이용 비용은 총 양육비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금 지원 중장기 정책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에서 가장 보편적 형태는 아동수당이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수당은 비기여, 보편적(demogrant)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한 인구학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국가마다 제도 적용방식은 다양한데, OECD 30개국 중 보편적 수당 도입국은 유럽의 15개국⁴⁰⁾이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2개 국가는 고용과 연계시키고 있으며,⁴¹⁾ 13개 국가는 미도입 상태⁴²⁾이다. 세계적으로는 조사된 175개 국가 중 보편적 수당 도입국은 25개국이다. 피고용자에만 지급하는 근로복지제도 도입국은 27개국이고, 이중 20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로 분류된다(서문희 외, 2007).

가) 지원금액

아동수당의 기준 금액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최저 수준으로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양육비가 영유아 1인 가정 약 58만원, 2인 가정 97만원, 3인 이상 가정 111~140만원이다. 즉, 1인 비용을 추정하면 최저 58만원 수준이다.

40)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체코, 일본임.

41) 스위스는 연방 프로그램은 한 명 이상의 아동을 부양하는 농업근로자나 소규모 자영농(가족수당) 또는 배우자(가사수당)에게, 주 프로그램은 비농업 취업자 중 1자녀 이상 부양자이며, 주 정부(칸톤)에 따라서는 농부를 포함하여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함. 고용자는 통상 아동수당 지급에 가입하고, 칸톤에 따라 고용자가 지급을 보증하며, 공무원은 별도 제도가 있음. 이탈리아는 취업자 또는 사회보험·복지급여 및 실업수당을 받는 자 중 1명 이상의 아동 혹은 부양 가족이 있는 자에 지급함. 연급을 받는 자영업자는 별도 제도에 의함.

42)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스페인, 독일, 벨기에, 터키, 멕시코, 한국, 아이슬란드, 폴란드, 그리스임.

이러한 기준은 수당 등 아동을 위한 보편적 현금성 지원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혼시 법원에서 양육비 수준 판결의 38.19%에 해당되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 수준(차선자, 2006)을 최저 수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이혼시 자녀양육비와는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으므로 2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최소 10만원 수준부터 시작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나)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그 보편성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의 제약 상, 연령, 출생 순위, 소득수준 등 아동과 가정 특성을 고려하여 단수 또는 복수의 변수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단계적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아동기인 18세 미만까지 적용이 이상적이겠으나(유해미, 2009), 우선 영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이하 아동까지로 확대한다. 영아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부모의 지출 부담 체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영아기 부모들은 자녀가 없을 때 들어가지 않던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므로 영아기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의 무게를 더욱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비용은 자녀가 연령이 많아지면서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이 일반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OECD, 2006). 미국 등에서 실시된 3종의 장기 실험연구들이 투자대비 3.78~17.07의 편익비 산출로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Barnett and Debra, 2006).

둘째, 출산순위는 첫 번째 자녀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자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첫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모들의 부담과 민감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계부 조사 결과 한 자녀 가구 양육비용은 3세까지는 약 90만원~106만원 수준이지만, 4세아 부터는 약 127만원~134만원 수준으로 0세~3세보다 30만원 정도 상승한다. 자녀 고유 항목 지출도 영아는 43만원~67만원 수준이지만, 유아기는 80만원~85만원 수준으로 4세를 기점으로 지출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첫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원정책이 추가 출산 결정으로 출산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상이기도 하므로(서문희 외, 2009)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으나 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자녀수를 고려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나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출산력과의 연계 속에서도 자녀수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바람직하다.

넷째, 자녀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당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중산층을 다 포함하고 최고소득층 일부만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산층은 보육료 지원정책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나) 아동수당과 다른 양육비용 지원 정책과의 관련성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시 검토되어야 할 양육 지원정책은 보육료 지원과 보육서비스 대체제인 양육수당 및 보육료 소득공제제도이다.

첫째, 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은 별개의 정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보육료 지원은 이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부모 지원이므로 필요성을 엄격하게 따져서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과 유아교육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육료는 취업모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아동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보육서비스 대체제인 양육수당은 폐지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므로 수당은 서비스 지원과는 분리하여 적용한다.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 채택 국가는 핀란드와 노르웨이로 육아휴직과 영아기 부모 양육이 보편화된 국가로 제도 실시 배경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조세제도와의 관련성이다. 소득공제 중 보육료 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부모의 보육료·교육비 이외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⁴³⁾에 지출한 비용을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제도를 채택하여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공제액 한도는 2004년부터 200만원을 적용한다.⁴⁴⁾ 프랑스도 1998년 자산조사에 근거한 아동수당을 기존의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피부양소득세 급여제도를 축소하였고, 일본은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면서 연소자부양공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배우자 특별공제를 폐지하였다.

43) 2004년에 포함함.

44) 실제로 소득액공제제도는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 수준은 매우 낮음. 연 소득 3,000만원 기준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 공제 시 200만원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1,097,500원, 1,267,500원으로 연 17만원의 차이가 남.

2) 장기적 영유아 양육비 추정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양육비 추정방법 연구와 더불어 미국의 USDA, 호주의 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자녀 양육비 산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본도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비 지원이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2008년에 내각부가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아동수당 확대를 배경으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이 도입되었으며 향후 미혼부 양육비 청구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 추계 필요성이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큼의 비용이 소요되는가 산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다.

3. 맺는말

이상으로 미국·호주·일본의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를 검토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본 연구의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를 통하여 총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양육비용 관련 정책제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결과 영유아 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의 경우 132만원, 3인의 경우 159만원으로 산출되었고,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선정한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양육비용은 자녀가 1인인 경우 한 자녀 양부모가정은 104만원, 자녀 2인 가구는 149만원, 3인인 경우는 16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판결 이후 지급되는 자녀 1인당 양육비의 산정금액인 월 30만원~50만원이나, 보육료 지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 등 현재 정부에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용의 지원의 정도와는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소요되는 양육비와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차이와 이에 따른 부담은 '저출산'이라는 당면 이슈를 '문제'로 남겨두어 위기의 상태로 지속시킬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및 수당 지원의 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맞벌이 지원, 예방접종 등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의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보편적 현금지원인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아동연령, 지원금액, 출생순위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되, 영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까지 확대하고,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여 추가 출산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고소득층 일부만을 제외하는 보편적인 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 양육비를 산출하려는 노력이 단발적인 것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호주·일본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플랜의 하나로 수행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 정책 실효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시간 투자 및 금전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2011). 2011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내부자료.
- 문숙재·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3.
- 문숙재·김성희(1995).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가정의 총투자량과 영향요인: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5), 49-66.
- 박복순(2005). 양육비 확보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민사법학, 30, 121-150.
- 박세경(2006). 저출산시대의 자녀 양육 부담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11.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 서지희(2005).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실태조사: 12개월에서 36개월을 중심으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은(2005).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실무연구 X, 505-562. 서울가정법원.
- 신윤정(2007). 외국의 아동 양육 지출 추계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7(2), 67-95.
- 여성가족부(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여성가족부.
-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2010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포럼 발표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윤희은(1996). 자녀 양육비 분석을 중심으로 가정내 성인 대 자녀의 지출배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국(2005). 양육비 분담액의 결정기준. 재판실무 3집, 121-138. 창원지방법원.
- 이성립(2007).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양육비용과 추정방법. 대한가정학회지, 45(2), 77-90.
- 일본 내각부 정책통관관(2010. 3). 「인터넷에 의한 육아비용조사 보고서」.
- 전경근·차선자(2005). 적절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정순희(1996). 가족구성원간 소득분배: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측정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학연구, 7(2), 193-206.
- 차경옥(2005)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차선자(2006). 적정양육비 산정 기준을 위한 제안. 가정법연구, 20(3), 103-130.
-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 한유미(2003).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양육 비교 연구: 유아기와 학령초기 자녀를 둔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75-185.
- 허경옥(1995). 편모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출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6(1), 1-19.
- 허경옥(1997).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추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1-19.
- 허경옥(2007). 다양한 추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추정 및 새로운 추정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19-42.
- Barnett and Debra J(2006). Ackerman. Costs, Benefits,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Care and Education Programs: Recommendations and Cautions for Community Developer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Vol. 37. No. 2. Summer 2006.
- Betson, D. M.(1990) "Alternative Estimates of the Cost of Children from the 1980~86 Consumer Expenditure Survey," unpublished manuscript.
- Douthitt, R. A. & Fedyk, J. M.(1988) The influence of children on family life

- cycle spending behavior: Theory and application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2, 2, 220-248.
- Dublin L. I. and Lotka A. J.(1946) "The Money Value of a Man," New York City, NY: Ronald Press.
- Espenshade, T. J.(1984) Investing in children - New estimates of parental expenditure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Harding A. and R. Percival.(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1994, National Centers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ing, Reprinted by Family Matters no.54(spring/summer).
- Hu, P. S. and Reuscher T. R.(2004) "Summary of Travel Trends: 2001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2001). "Review of Statewide Uniform Child Support Guideline".
- Lazer, E. P. & Michael, R. T.(1980). Family size and the distribution of real per capita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70, 91-107.
- Lazear, E. P. and Michael R. T.(1988) Allocation of Income within the Househo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win(1990). Estimates of Expenditures on Children and Child Support Guidelines, Lewin/ICF.
- Lino, M.(2004).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03. *Family Economics and Nutrition Review*, 16(1), 31-38.
- Lino, M.(2009).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08"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Miscellaneous Publication No. 1528-2008.
- Lino, Mark.(1995) Housing, Transportation, and Miscellaneous Expenditures on Children: A Comparison of Methodologies. *Family Economics Review*, 8(1), 2-12.
- McCaleb, T. S., Macpherson, D. A., Norrbin, S. C.(2008). "Review and Update of Florida's Child Support Guidelines," Report to the Florida Legislature.

- McCaleb, T. S. Macpherson, D. A., Norrbin, S. C., MacDonald, L. C., Feng, L. (2004) "Review and Update of Florida's Child Support Guidelines," Report to the Florida Legislature.
- McDonald, J. F. and Moffitt R. A.(1980). "The use of Tobit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2).
- OECD(2006). *Start Strong II*.
- OECD(2009). "The costs of raising childre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support parenthood in European countries: a Literature Review".
- Olson L. (1983) *Cost of Children*, Lexington: D.C, Heath.
- Percival, R. and Ann, Harding. (2002) *The Cost of Children in Australia Today*, AMP · NATSEM Income and Wealth Report, issue 3, October.
- Turchi, B. A. (1983) *Estimating the Cost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 USDA (2009)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08.
- Valenzuela, Rebecca. (1999) *Cost of Children in Australian Households*, Melbourne Institute, Reprinted from *Family Matters* no.53(Winter).

부 록

부록 1. 2010년도 가계 기초조사

부록 2. 자녀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가계부 조사

부록 3. 가계부 조사 작성 안내서

부록 1.

2010년도 가계 기초조사

지역번호		가구 일련번호			

주 소	____ 시/도 ____ 구/시/군 ____ 동/읍/면 ____ 통/리 ____ 번지 ____ 호 ____ 아파트 ____ 동 ____ 호)				
가구주성명					
응답자성명		전화 번호	집 () -		
			H.P () -		
방문일시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 ____ 시 ____ 분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1. 가구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가구원 일련번호		2. 가구구성	3. 성별	4. 연령(만나이)		5. 교육정도		6. 경제활동	
						5-1. 학교	5-2. 졸업여부	6-1. 활동분야	6-2. 종사상 위치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201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환산해 주십시오. (※ 취학전 아동은 개월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취학아동은 개월수에 비 해당 88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 분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는 중입니까?	졸업을 하셨습니까? 미취학 아동은 현재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직장 하의 일을 질문하여 지침서의 직업분류표에서 확인하고 기입)	현재 종사상 위치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가구주 02) 배우자 03) 미혼자녀 04) 기혼자녀 및 배우자 05) 가구주/배우자 부모 06) (중)손자녀 및 배우자 07) 조부모 08) 가구주 형제자매 및 배우자 09) 기타	1) 남자 2) 여자			1) 미취학 2) 무학 3)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6) 대학 (3년제 이하) 7) 대학교 (4년제 이상) 8) 대학원 이상	(초등학생 이상) 01) 재학중 02) 중퇴 03) 졸업 08) 비해당(무학) (미취학) 11) 공립유치원 12) 사립유치원 13) 공립·법인 보육시설 14) 민간·가정 보육시설 15) 영어유치원(학원) 16) 기타 88) 안 다님	01) 관리자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3) 사무 종사자 04) 서비스 종사자 05) 판매종사자 06)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0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복무 11) 직업 군인 12) 전업 학생 13) 전업주부 및 무직 88) 비해당(14세 이하) 99) 모름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자영업자 5) 고용주 6) 무급가족종사자 7) 육아휴직 중 8) 비해당
자녀	1								
	2								
	3								
	4								
자녀의 부	5								
자녀의 모	6								
기타 가구원	7								
	8								
	9								
	10								

2. 귀댁의 재산(동산, 소유/점유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와 농축산물 등)은 얼마나 되는지요? (※ 0원일 경우 0을 기입)

2-1. 동산(예금,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농기계와 농축산물 등) _____만원

2-2.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등) _____만원

3. 귀댁의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요? (※ 0원일 경우 0을 기입하십시오.)
(대출금, 사채, 카드 빚, 임대인 혹은 집주인으로서 받은 전세 보증금 등) _____만원

4. 귀댁의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월 _____만원

5.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5-1. 받고 계신다면 월 얼마를 받으십니까?
② 아니다 월 총 _____만원

6. 귀댁의 미취학 자녀의 보육과 교육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자녀의 경우 6-3부터 비해당 88기입)

자녀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6-1. 연령(만 나이)	만 ()세	만 ()세	만 ()세
6-2. 건강상태 ① 건강함 ② 질병있음 ③ 장애있음 ④ 장애와 질병 있음			
6-3. 낮 동안에 주로 다니는 기관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학원 ④ 특기, 보습 학원 ⑤ 선교원 ⑥ 기타(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⑦ 안 다님			
6-4.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순수한 교육비와 보육료는 평 균 얼마입니까? (분기나 반기별로 내는 경우 월 평균으로 계산)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6-5.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중 특별활동 등 추가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6-6.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주로 돌보는 사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인척 ④ 형제자매 ⑤ 파견육아전문인력 ⑥ 기타 비혈연 ⑦ 기타 ⑧ 없음			
6-7. (부모, 형제자매 이외인 경우)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되 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12. 가계부조사가 직접 구입한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성 지출이라면, 가계지출에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장기 저축/보험 등의 비소비성 지출도 있습니다. 아래 빈칸에는 귀댁의 비소비 가계 지출은 각각 얼마인지 써주십시오.(변동이 있다면 대략의 평균 비용을 써주십시오).

구분	설명	납입 횟수	지출액
12-1. 연금보험료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보험)	월 1회	_____원
12-2.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월 1회	_____원
12-3. 이자비용	주택대출이자, 기타 이자 등	월 _____회	_____원
12-4. 교제비 및 경조비	- 교제비: 친지, 친구등과 교제를 위한 현금성 지출 - 경조비: 다른 가구 축의, 조의금 등 - 송 금: 국내외에 거주하는 학생, 비학생 가구, 국외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나 3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송금한 금액	연 _____회	_____원
12-5.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단체, 정당, 종중, 사회운동단체, 자생상조회 등으로 회비, 기부 등 이전	연 _____회	_____원
12-6. 자산축적 및 변동 지출	적금/펀드 불입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개인)연금 등	월 _____회	_____원

13. 지난 해 12개월간의 연간 지출을 생각해보았을 때, 평상시 일상적 지출 외에 계절적 요인이나 가족생활주기, 납입시점에 따라 일회성 혹은 간헐적으로 지출했던 품목과 생활사건에 대해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사된 비소비성 가계지출과 중복되어도 무방하오니, 기억나시는대로 모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 :	· 내구재 구입-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은 품목 ·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부동산 취득세, 범칙금/과징금 등 · 가족 행사-가족행사, 여행, (돌)사진 촬영 등 · 기타-학비, 부동산 구입, 주식 및 채권 구입, 귀금속/미술품 구입, 임차보증금 지급변제 등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목												
비용												
품목												
비용												
품목												
비용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자녀 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가계부 조사

기간
2010. 6. 1 ~ 6. 30

가구번호

주 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통·리	번지 호(아파트 동 호)
가 구 주 성 명				전화번호	집 : 휴대폰:
작 성 자 성 명				조 사 원	(인) (전화번호:)

2010년 6월(가계부 기장 시점)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원수	() 인
---	-------

이 가계부는 영유아를 기르는 각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구입한 품목 및 서비스를 조사 파악함으로써 영유아를 위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이용됩니다.

따라서, 귀하 가정의 협조와 성실한 기록은 국가 정책수립의 초석이 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1.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택에서 구매한 품목을 매일 기입하여 주십시오.
2. 먼저, 가계부의 맨 위에 있는 날짜란에 해당하는 날의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지출이 없는 날에도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시고 전체표에 대각선으로 길게 표시한 후, 다음 날에는 다음 페이지에 새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3. 하루에 한 페이지씩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만, 지출품목이 많아 한 페이지를 넘는 날에는 다음 페이지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한 후 작성해 주십시오.
4. 가계부에는 구입한 품목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고 동시에 구입한 품목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품목별로 해당하는 번호는 가계부와 함께 배부된 『가계부 작성 안내 지침서』에서 찾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5. 한 줄(칸)에는 한 품목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가게에서 우유와 빵을 산 경우 한 줄에 한 품목씩 나누어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
6. 사업 및 영업상, 농업경영상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품목이나 부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재료비, 비품비, 농약비 등은 기입하지 마시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품목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2010. 06. . ()

[illegible]

[완료 조사]

** 귀댁이 평소에 지출하던 품목과 비용 중 조사기간 2010년 6월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고 얼마인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가계부 기록수당(130,000원) 입금용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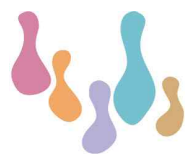
** 지난 한달간 성실하게 가계부를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를 하고자 하니 귀하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서 명

※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신 가구에 대해서만 7월중 지급해 드립니다.

가계부 조사 작성 안내서

2010. 06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가계부 기입방법 예

①			②			③	④						⑤		⑥						
품목의 번호 기입란			품목			수량 및 단위	지출 대상 ※출생순위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자녀 1에 기입 ()안에 만연령을 기입						구입 방법		금액(원)						
							부	모	기타 성인1	자녀1 (5세)	자녀2 (2세)	자녀3 (0세)									현 금
1	1	1	사과			3개				√	√	√	√				3	0	0	0	
2	5	7	기저귀			1팩						√		√			1	9	8	0	0

① 구입한 물건에 해당하는 번호를 p 4 『가계부 작성용 번호 안내』에서 찾아 기입하는 란

- 품목에 맞는 번호 세자리를 찾아 기입합니다.
- 품목에 맞는 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누락하거나 다른 번호로 기입하지 말고, 조사원 방문시 문의하여 올바른 번호를 적습니다.
- 특별히 육아와 관련한 품목은 전체 리스트에서뿐만 아니라 p8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② 소비 또는 구입한 물건의 품목명을 기입하는 란

- 구입한 것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 6월 중에 신용카드나 외상으로 구입한 품목, 월부로 구입한 품목 등도 반드시 구입 총액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단, 6월 이전에 외상, 할부(카드할부)로 구입하여 6월에 돈을 지불한 품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 전기료, 전화료, 가스사용료, 수도료 등은 5월에 사용한 요금(6월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입합니다. 수도료를 2개월 단위로 지불하는 경우, 1개월치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위 요금을 은행자동이체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계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구체적인 품목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잘못 기입된 품목과 용도	고침	바르게 기입된 품목과 용도
1) 선물 구입	❑	백설탕(선물), 쇠고기(선물)
2) 할부금	❑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책	❑	교과서, 참고서
4) 친척집 방문비용	❑	시외버스비, 사과
5) 시장볼	❑	시금치, 생선목, 치약
6) 자녀용돈	❑	시내버스비, 참고서, 노트, 사탕
남편용돈	❑	한식외식비, 시내버스비, 담배
7) 6월 중 납부한 카드대금	❑	(※ 기입하지 않습니다.)
8) 자동이체금	❑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 1) 남을 위하여 선물을 산 경우 '선물'로 표기하지 말고 선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기입 한 후 ()안에 '선물'이라고 기입합니다.
- 2) 6월 이전에 물건을 구입하여 이번 달에 지불한 할부금은 가계부에 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자녀의 참고서를 샀을 경우 '책'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참고서'로 표기합니다.
자녀가 학원비의 경우, '학원비'로 표기하지 마시고, '보습학원비' '피아노학원비' 등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 4) 현금으로 사과를 선물로 사고 시외버스를 타고 친척집을 방문했을 경우 '친척집방문 비용'으로 기입하지 말고 구체적인 선물의 품목과 교통비를 기입합니다.
- 5) 시장에서 시금치, 어묵 등을 샀을 경우 '시장봄'으로 기입하지 말고 구체적인 품목을 기입합니다.
- 6) 자녀 또는 아빠에게 준 용돈이 있다면 '자녀용돈' 또는 '남편용돈'으로 기입하지 말고 용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7) 단, 지난달에 구입하여 6월 중에 납부한 신용(직불)카드대금 총금액은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구입 및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8)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라고 적지 말고 구체적인 품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③ 수량 및 단위를 기입하는 란

- 예) 연필 2자루를 산 경우 → 해당란에 '연필 2자루'를 기입

단위 예	
· kg, l · g, ml, cc · cm · 도 · 날개단위(개, 통, 단, 포기, 병, 장, 대, 벌, 권, 마리, 봉지 등)	· 박스(box) · 세트(set) · 개월 · 회 · 기타

④ 가구원 중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를 기입하는 란

- 해당 대상칸에 체크합니다.
- 자녀는 출생순위에 따라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자녀1, 자녀2, 자녀3이며, 괄호 안에는 만 연령을 적습니다.
- 예) 만 9세,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4인 가정의 경우 → 자녀1칸에 (9세), 자녀2칸에 (5세)라고 기입
만 5세인 자녀2를 위해 장난감을 산 경우 → 자녀2칸에 체크
가족 전체가 외식을 한 경우 → 부, 모, 자녀1, 자녀2칸에 모두 체크

⑤ 소비 또는 구입한 물건의 구입방법을 기입하는 란

- 현금(상품권, 복지카드, 계좌이체, 체크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현금칸에 체크하여 주시고, 외상·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카드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⑥ 소비 또는 구입한 물건의 금액을 기입하는 란

- 상품을 구입한 경우는 '구입가격'을 기입합니다.
- 예) 6월에 카드로 3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이번 달에 10만원만 지불하는 경우에, 금액을 기입하는 란에는 반드시 총 구입가격(30만원)을 기록합니다.

가계부 작성용 번호 안내

□ 소비 지출

번호	항목명	부가설명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정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
101	쌀 등 곡물	쌀, 보리 등 가공하지 않은 미곡, 맥류, 잡곡 및 두류와 자체소비대상인 정미 전 곡물구입 포함
102	곡물가공품	밀가루, 면류(국수류, 당면, 라면), 두부, 기타곡물가공품 등 곡물을 가루화한 것, 익힌 것 또는 곡물을 주원료로 하여 공업적으로 가공한 식품
103	빵 및 떡류	제과점 및 떡집 등에서 구입한 케이크, 빵류 및 떡류
104	육류, 육류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생육 등 어류 이외에 신선, 냉동, 냉장된 식용동물의 고기 및 뼈, 내장 등의 부산물(식용으로 구입한 살아있는 동물 포함) (햄, 소시지 및 베이컨 등) 육류를 소금이나 간장 등에 절인 것, 말린 것 및 육수 등
105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생선, 굴, 게, 조개류 등 삶거나, 찌거나, 굽거나, 절이는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수산물류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 또는 반건조한 수산물(복어, 굴비,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간고등어 등). 어묵, 맛살, 수산동물 통조림, 젓갈 등 염건수산물 이외의 가공한 수산물류
106	유제품 및 알 (분유 제외)	동물의 젖, 알 또는 이것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107	분유	우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우유가공품, 알 및 알 가공품 등
108	유지류	기름, 버터, 기타 유지류 등 식물 또는 동물에서 채취한 식용기름
109	과일 및 과일가공품	나무 등 식물을 가꿔서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감귤류, 참외, 수박, 딸기, 바나나, 밤, 대추, 은행, 호두, 잣 과일을 주원료로 말리거나, 굽거나 통조림화 한 것. (음료류는 117번-주스 및 기타음료 해당)
110	채소 및 채소가공품 기타채소	과일채소를 제외한 밭에 가꾸어 먹는 것 배추, 상추,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깻잎, 부추, 무, 당근, 감자, 고구마, 도라지, 오이, 풋고추, 호박, 가지, 토마토, 식용버섯, 콩나물, 파종류, 양파, 마늘 및 마늘 부산물 등 채소를 주원료로 절이거나, 말리거나, 익히거나, 분말형태로 만든 것
111	해조 및 해조가공품	김, 미역, 기타해조류 등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공하지 않은 바다, 강 등에서 자라는 해조류 및 이를 말 리거나, 굽거나, 가루내어 가공한 것
112	당류 및 과자류	단맛이 나는 당류 및 과자류 설탕, 잼, 꿀, 조청, 초콜릿, 사탕, 젤리, 한식과자, 껌, 아이스크림, 기타과자
113	조미식품	음식조리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조미를 목적으로 한 것 말린 고추, 참깨 및 들깨, 생강, 소금 및 장류, 카레, 짜장, 식초, 케첩, 드레싱, 혼합조미료, 기타조미식품
114	이유식	인스턴트 또는 홈메이드 방법 배달 이유식
115	기타식품	죽 및 스프, 김치, 반찬류, 즉석·동결식품 등 위의 특정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식품
116	커피 및 차	커피 및 차 (원료를 구입한 경우에 한함. 241번과의 혼동을 주의)
117	주스 및 기타음료	과일주스, 야채주스, 생수, 기능성 음료 및 기타음료
02. 주류 및 담배		기호품으로 주류와 담배를 함께 분류 주점에서 구입한 술은 병단위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포함하지 않음
121	주류, 담배	알코올 성분을 1%이상 함유한 음료. 소주, 과일주, 맥주, 탁주, 증류주, 기타주류 담배식물을 건조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03.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또는 제작하기 위해 구입한 재료비와 제작, 유지, 수선 등 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131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의복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직물과 내의, 학생복 및 메리야스 이외의 겉에 입는 의복에 대한 지출 속옷 및 잠옷에 대한 지출 의복수선, 세탁, 리모델링, 맞춤 등 의복관련 서비스
132	기타의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등의 기타 의복류
133	신발, 신발서비스	발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 가장 바깥 부분에 착용하는 것 신발의 세탁, 리모델링, 맞춤 등 관련 서비스

번호	항목명	부가설명
04. 주거 및 수도광열		주거시설을 이용하여 주거서비스를 생산하고, 거주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 폐수·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141	실제주거비	월세 등 주거 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142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벽지, 바닥재, 기타 주택유지 및 수선재, 설비·수리서비스, 세놓는 주택 수선 등에 사용되는 지출 상·하수도, 쓰레기 및 폐기물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출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를 위한 공동비용 등 주거관련서비스
143	연료비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관련 비용 전기료, 연료비(가스, 등유, 연탄 등), 공동주택난방비, 기타연료비 등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장롱 등의 가구와 가정생활에 필요한 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
151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조명가구 구입에 대한 지출 및 서비스(렌탈 포함)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출. 모형이 아닌 실제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제품 카펫, 기타 실내 장식품 등 구입 및 관련 서비스
152	가정용 섬유	가구에서 이용되는 침구, 수건, 커튼 등 섬유제품 및 관련 수선, 세탁 서비스 아동 겔(속)싸개, 아동 이불 등 포함
153	가전 및 가정용기기	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내구재 구입 및 관련 서비스 전기밥솥, 가스·전자레인지,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및 선풍기 난로 및 온풍기,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기타가정용 기기 및 가전
154	주방용품	식기류 등 주방에서 사용되는 주방용 준 내구재 각종 냄비, 포크, 튀김 젓가락, 티스푼, 뒤집게 등
155	젓병 및 이유식기	젓병 및 관련용품(젓꼭지, 숟, 소독기 등), 이유식기(그릇, 수저, 컵 등)
156	가정용공구 및 기타	세탁, 청소, 재봉 등 가사에 필요한 상품 가정용전동공구, 설비관련기구, 건전지, 기타 소형 공구 및 가사용품
157	가사소모품	세제 등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소모품, 유상 비닐/종이 봉투
158	가사서비스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
06. 보건		사람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161	의약품(양한방), 인삼, 영양보조제	양약 한약(한약재) 등 처방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사 및 의사로 부터 구입한 약품 인삼, 산삼 등의 삼종류 및 이를 원료로 가공한 홍삼제품이나 영양성분 보급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보조제품으로 특정성분을 추출, 혼합, 발효 등의 처리를 거쳐 만든 제품
162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위의 의약품 이외에 안대, 식염수 등 보건의료 소모품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 신체의 교정 및 유지에 필요한 용품 및 기구. 안경 등
163	외래의료서비스, 병원입원치료비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치과외래비 포함) 입원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는 기간에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포함
164	영유아 예방접종비	BCG, B형 간염, DPT 등 영유아 필수·선택 예방접종비 (성인예방접종은 163번 해당)
165	기타의료서비스	위의 항목 이외에 입원하지 않는 환자의 의료관련서비스
07. 교통		승객 및 화물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지출
171	자동차 등 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 유지, 수리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사람의 이동 및 화물 운송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의 구입에 대한 지출 신차, 중고차구입, 오토바이, 자전거 구입 승용차, 오토바이 등 가정용 운송기구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172	운송기구 연료비	승용차, 오토바이 등 가정용 운송기구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연료 비용 휘발유, 경유, LPG, 기타연료
173	개인 대중교통 서비스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개인이 이용하는 교통 서비스
174	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철도, 육상 및 기타 등 운송 비용 톨게이트비, 주차비 등 기타 교통 관련 서비스 차량 용품(네비게이션 등)
08. 통신		
181	우편서비스	편지 등 우편 서비스, 택배
182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전화 등 통신 기기 구입 및 수리 서비스 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기타 통신 비용

번호	항목명	부가설명
09. 오락·문화		
191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기록 장치	텔레비전, 오디오 등 기타 구입 및 서비스 카메라 등 사진광학장비 구입 및 서비스 컴퓨터, 녹음기 등의 정보처리/기록장치 및 소프트웨어
192	오락문화 내구재	오락문화 내구재 유지 및 수리, 게임기
193	악기기구	악기기구
194	취미용품	취미 관련 용품 구입 및 서비스
195	캠핑 및 운동관련	캠핑 및 운동관련 용품 및 서비스
196	화훼관련	화훼관련 용품 및 서비스
197	애완동물관련	애완동물관련 물품 및 서비스
198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운동시설이용, 노래방 이용, PC방 이용, 기타오락시설이용, 운동경기관람, 오락용품대여 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방송수신료, 기타문화서비스
199	단체여행비	여행관련 품목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항목별 분류가 불가능한 국내외 단체 여행비
200	복권 구입	당첨금이 따르는 복권의 구입, 경마, 경륜
	서적	교과서, 참고서, 교양서적, 전집류 등 모든 서적류
201	영유아용서적(CD 포함), 교구 교재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지능발달 및 교육을 위해 구입한 서적(CD, tape), 교구 교재
202	초등학생학습교재, 중고생 교재, 참고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습교재 중학교·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서적류나 교과서 외에 모든 참고용 학습참고 교재
203	기타서적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서적
204	기타인쇄물	서적 이외에 기타 인쇄물(신문, 잡지 등)
205	문구	가구에서 이용하는 문구류 일체. 노트, 스케치북 등 종이문구류 및 필기구, 회화용구(서예포함) 제품
10. 교육		
	초·중·고등 교육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211	유치원 순수교육비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비용 중 순수교육비
212	유치원 특기활동 등 추가 비용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비용 중 특기활동 및 추가되는 비용
213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 는 비용 2년제 대학 이상,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학원 및 보습교육	학생 및 성인의 정규교육기관 이외에 학원에서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221	영유아 전문 학원	짐보리, 유직가튼 등 기타 학원 및 문화교실
222	음악학원	피아노학원,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관련 학원에서 받은 보충교육
223	외국어 학원	외국어 학원
224	미술학원	미술학원 및 서예학원 등으로부터 받은 보충교육
225	운동학원	태권도, 유도, 축구 등 학원강사 등에게 받는 운동 교육비
226	방문학습지	방문교사의 지도서비스가 병행되는 학습지를 구입한 경우
227	입시 및 보습	상급학교, 특수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정규교과과정 중에서 음악, 미술 및 체육과정을 제외한 학원에서 수강하는 과정
228	직업준비학원	학생이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서 받은 교육
229	체험교육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개인 및 사설학원 등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적 립금
230	개인과외비	학원 등의 기업에 속하지 않은 개인으로 부터 받는 과외
231	학교보충교육비	방과 후 학교에서 실행되는 교육에 대해 납입하는 비용
232	기타학원교육비	위에 분류되지 않는 학생대상 학원 및 시설에서 받은 교육
233	기타교육	평생교육원, 국내교육연수, 해외연수비 등 위의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훈련 및 연수서비스

번호	항목명	부가설명
11. 음식·숙박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서비스 받는 데에 대해 지불하는 식사 비용과 숙박시설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241	식사비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 및 식사를 위한 부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지불하는 비용 일반식당, 배달음식, 이동식 음식점, 단체제공식, 패스트푸드, 주점·커피숍
242	숙박비	호텔, 모텔, 여관, 장 등의 숙박전문시설과 민박, 홈스테이등 타가구에 숙박시설 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위의 타분류에 분류되지 않는 이미용 서비스, 장신구, 보험, 사회보호 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251	이미용기기, 서비스 및 용품	이미용 개인정비 관련 서비스 목록료, 이미용료, 기타이미용서비스 치솔, 치약, 세면비누, 샴푸 및 린스, 화장지, 화장품, 기타 이미용용품 구입 이미용 개인정비 관련 전기상품
252	시계 및 장신구	시계, 장신구 등 구입에 대한 지출
253	기타개인용품	가방, 우산, 종교용품, 혼례 및 장례용품, 기타 개인용품 및 관련 서비스(수리, 임차 세탁 등)
	육아용품	특별히 영유아를 기르는데 지출되는 비용
261	아기 기저귀	아기 기저귀
262	아기 물티슈	아기 물티슈
263	아동 목욕위생용품	아기 샴푸, 로션, 욕조, 손톱가위, 제균용품 등
264	산모용품(렌탈 포함)	수유쿠션, 수유패드, 수유팩, 유축기 등
265	승용용품 및 외출용품 (렌탈 포함)	카시트, 유모차, 아기띠, 슬링 등 등
266	보행완구(렌탈 포함)	보행기, 쏘서, 바운서 등
267	돌/백일 위탁비용	외부 식당 등에서 돌/백일 행사를 하였을 경우 위탁비용, 돌/백일 사진 위탁 비용
268	장난감(렌탈 포함)	모빌, 인형, 영유아용 자전거·자동차 등 장난감류, 놀이방 매트 등
	사회복지	가구에서 가족 및 가구원의 복지를 위해 탁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지출
271	산후조리원	출산후 산모와 아기의 돌봄을 도와주는 곳으로, 병원병설 및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
272	보육시설 순 이용료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을 위해 지불하는 지출
273	보육시설 추가비용	특별활동 등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순보육료외 추가 비용
274	보육 도우미	취학 전 아동의 보육도우미에 의한 보육을 위해 지불하는 지출
275	혈연에 의한 보육료	취학 전 아동의 혈연 보육을 위해 지불하는 지출
276	기타 사회복지	가구원이 시설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 비용
277	보험 (개인이 든 것)	생명보험, 화재보험, 개인연금, 운송관련보험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국가가 하는 사회보험 제외)
278	기타금융(수수료)	보험업 이외에 금융관련수수료 등 지출
279	기타서비스	부동산 및 법률 관련 수수료, 응시료, 혼례 및 장례례비, 기타 서비스, 유흥비(팁 포함) 등
13. 추가 코드		
301	연금보험료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보험)
302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303	이자비용	주택대출이자, 기타 이자 등
304	교제비	친지, 친구등과 교제를 위한 현금성 지출

번호	항목명	부가설명
305	경조비	다른 가구 축의, 조의금 등
306	송금	국내외에 거주하는 학생, 비학생 가구, 국외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나 3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송금한 금액
307	부모님 용돈, 생활비	친정, 시댁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및 생활비
308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단체, 정당, 종중, 사회운동단체, 자생상조회 등으로 회비, 기부 등 이전
309	자산축적 및 변동 지출 (저축, 적금, 청약, 펀드, 갯돈 등)	적금/펀드 불입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개인)연금 등
310	손실금, 벌금	손실금, 벌금 등
311	세금	각종 세금
312	아파트 관리비	세대 수도세, 전기세 등을 제외한 아파트 관리비

□ p3 ~ p7의 항목 중 육아 관련 항목

번호	항목명	부가설명
107	분유	분유
112	당류 및 과자류	단맛이 나는 당류 및 과자류 설탕, 잼, 꿀, 조청, 초콜릿, 사탕, 젤리, 한식과자, 껌, 아이스크림, 기타과자
114	이유식	인스턴트 또는 홈메이드방법 배달 이유식
131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의복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직물과 내의, 학생복 및 메리야스 이외의 겉에 있는 의복에 대한 지출 속옷 및 잠옷에 대한 지출 의복수선, 세탁, 리모델링, 맞춤 등 의복관련 서비스
132	기타의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등의 기타 의복류
133	신발, 신발서비스	발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 가장 바깥 부분에 착용하는 것 신발의 세탁, 리모델링, 맞춤 등 관련 서비스
155	젖병 및 이유식기	젖병 및 관련용품(젖꼭지, 숟, 소독기 등), 이유식기(그릇, 수저, 컵 등)
164	영유아 예방접종비	BCG, B형 간염, DPT 등 영유아 필수·선택 예방접종비 (성인예방접종은 163번 해당)
201	영유아용서적(CD 포함), 교구 교재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지능발달 및 교육을 위해 구입한 서적(CD, tape), 교구 교재
211	유치원 순수교육비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비용 중 순수교육비
212	유치원 특기활동 등 추 가 비용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비용 중 특별활동 및 추가 되는 비용
221	영유아 전문 학원	짐보리, 유직가튼 등 기타 학원 및 문화교실
222	음악학원	피아노학원,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관련 학원에서 받은 보충교육
223	외국어 학원	외국어 학원
224	미술학원	미술학원 및 서예학원 등으로부터 받은 보충교육
225	운동학원	태권도, 유도, 축구 등 학원강사 등에게 받는 운동 교육비
226	방문학습지	방문교사의 지도서비스가 병행되는 학습지를 구입한 경우
261	아기 기저귀	아기 기저귀
262	아기 물티슈	아기 물티슈
263	아동 목욕위생용품	아기 샴푸, 로션, 욕조, 손톱가위, 제균용품 등
264	산모용품(렌탈 포함)	수유쿠션, 수유패드, 수유팩, 유축기 등
265	승용용품 및 외출용품 (렌탈 포함)	카시트, 유모차, 아기띠, 슬링 등 등
266	보행안구(렌탈 포함)	보행기, 쏘서, 바운서 등
267	돌/백일 위탁비용	외부 식당 등에서 돌/백일 행사를 하였을 경우 위탁비용
268	장난감(렌탈 포함)	모빌, 인형, 영유아용 자전거·자동차 등 장난감류, 놀이방 매트 등
271	산후조리원	출산후 산모와 아기의 돌봄을 도와주는 곳으로, 병원병설 및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
272	보육시설 순 이용료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을 위해 지불하는 지출
273	보육시설 추가비용	특별활동 등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순보육료외 추가 비용
274	보육 도우미	취학 전 아동의 보육도우미에 의한 보육을 위해 지불하는 지출
275	혈연에 의한 보육료	취학 전 아동의 혈연 보육을 위해 지불하는 지출

연구보고 2010-01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59-2 93330